



다시
생명의 입니다!


제1회
한국교회 생명신학포럼

2017. 5. 19(금) 오후 5시~20(토) 오후 1시

고려신학대학원(천안) 도서관 지하1층 영성원(카타콤베)

(Tel. 041-560-1999,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주최 : 한국교회 생명신학포럼



- 한국교회 생명신학포럼 취지문 5
- 한국교회 생명신학포럼 발기인 10
- 제1차 한국교회 생명신학포럼 순서 11
- 말 씀 / 영생 : 정현구 목사..... 12
- 환영사 / 생명의 소중함과 공생, 풍요함을 함께 누리는 것 / 신원하 박사..... 18
- 축 사 /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사회 / 박상은 박사 19
 - 반생명적인 한국사회의 구조를 변혁시키는 일 / 이상원 박사 20
- 격려사 / 생명사역과 생명프로젝트를 위하여 / 양영태 박사 22
 - 온 국민이 추앙하는 생명문화 창달하도록 / 김종억 박사 24
 - 한국교회와 전문가의 현명한 성경적 대처 시급 / 이시영 장로 25

■ 생명신학포럼 / 1부

- 주제발표 1 / 왜 생명신학인가(노영상 교수) 29
- 주제발표 2 / 생명신학과 예수의 치유사역(이신건 교수) 38
- 주제발표 3 / 복내전인치유선교센터(이박행 원장) 46

■ 생명신학포럼 / 2부

- 주제발표 4 / 생명문화 형성을 위한 기독교의 생명이해와
여성신학적 대안(김은혜 교수) 67
- 주제발표 5 / 생태계의 위기와 한국교회의 책임(송준인 교수) 79
- 주제발표 6 / 한국교회 생명운동 현장 사례(유미호 실장) 92

「한국교회 생명신학포럼」 취지문

생명의 총체적 위기

21세기는 거대한 조류를 뜻하는 메가트렌드(Megatrends) 시대로서 세계화와 초고령사회, 가치 및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자본주의 진화 등의 격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 예측과 대응을 소홀히 한다면 생명 멸절의 세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이미 인류와 지구공동체는 되돌리기 어려운 생명의 총체적 위기 앞에 놓여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위기는 인간위기, 생태위기, 영적위기로 그 얼굴을 달리하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기의 뿌리는 자유주의 세계화 정신과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장미 빛 정신으로 무장한 약탈적 경제체제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인간의 존재를 황폐하게 만들어 정신적, 신체적 질병을 초래했습니다. 부의 양극화와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는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불안과 상대적 빈곤감으로 인해 우울증, 자폐증의 뿌리가 됩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인간의 생활수준을 급격히 향상시켰지만, 생활방식을 급격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자, 삶의 주된 관심사가 의식주 해결에서 삶의 질로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생리적' 생활양식이 '사회적' 생활양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녹지의 감소, 에너지 고갈뿐만 아니라 생명의 동지인 지구공동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태적인 종말의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농촌의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통한 대량 생산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결과로 쌀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물과 공기와 흙을 비롯한 등 자연은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농산물을 재확획의 수단으로 보고 단기적인 이익만을 얻으려는 정책은 자연의 본성을 거스르는 방식이었기에 필연적으로 농촌의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농촌의 초고령화로 인한 인력난도 심각합니다. 도시에서는 실업자가 넘쳐나고 농촌에는 일손이 태부족입니다. 농촌에는 인구절벽 사태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식품, 종자문제, 유전자 조작 식품 등 총체적인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약 28% 정도입니다. 만약 기후변화나 국제적인 전쟁으로 인해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되면 한국의 농업, 생태, 생명은 근원적 위기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발전의 신화에 사로잡힌 현재 인류는 태양을 향해 날아가다가 추락한 이카루스처럼 장밋빛 미래를 꿈꾸었지만, 인간과 생명과 영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OECD 사회지표로 본 한국, '최악' 위험사회로 치달아

한국의 주요 사회적 지표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의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이시디는 회원국들의 안정성과 통합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한 눈에 보는 사회상(Society at a Glance)' 2016년 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소득과 인구구조 변화 등을 담은 일반지표를 비롯해 고용 상황과 불평등, 건강성, 사회통합성 등 5가지 영역의 주요 지표들을 통해 각 회원국들이 놓인 상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35개 회원국 가운데 35위로 가장 심각하고, 노인빈곤율은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반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34위)은 가장 뒤떨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익히 알려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국민 스스로 느끼는 건강도(35위)마저 가장 나쁜 나라로 꼽혔습니다. 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50대의 사회적 고립감(35위)이 회원국 중 가장 위험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정부 신뢰도는 29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여성의 권리신장과 노인빈곤에 대한 복지정책, 일자리 불안과 고학력 청년층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재원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물론 <한 눈에 보는 사회상>보고서의 지표가 한국 사회의 모든 것을 설명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핵심지표에서 심각한 정도의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외부의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한국 사회의 병리현상은 개인, 가정, 교회, 환경에 직·간접으로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병든 사회를 희년의 가치로 진단하고, 대안적 공동체 운동을 통해 건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질병공화국

한편 우리나라에는 암을 비롯한 생활 습관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암은 수십 년 동안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 투병 중인 암 환자가 16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는 국립 암센터의 암 발생 예상치를 훌쩍 뛰어 넘는 수치입니다. 40대 이후 암 유병율은 50%에 이릅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비롯한 각종 대사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00만 명이나 됩니다. 주의력 결핍증(ADHD),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지가 발표한 '네티즌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결과 정신질환 유병율은 25.4%로 나타났습니다. 1년 유병율은 11.9%로 집계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약 470만 명이 정신질환을 겪었습니다. 아토피, 비염 등 면역성질환 등의 환경성 질병으로 고통 받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초고령 사회의 노인성 질환은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곳곳에 병원과 약국이 들어서 있고 수많은 의료인들이 매년 배출되지만, 국민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질병공화국이 된 주된 이유는 창조주의 질서를 떠난 식생활습관과 운동 부족이며, 무한 생산과 소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무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입니다. 아울러 생활 전반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독소 요인이 증가하여 몸의 면역력은 더욱 약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공동체인 가족과 마을의 해체로 고독해진 영혼의 몸부림이 질병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이와 같이 총체적 발병 원인에서 기인하지만, 건강 관련된 전문가들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관점에서 생명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할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물론적 실용주의에 일그러진 생명윤리

현대 한국사회에서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은 미시적인 생명윤리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환경윤리의 차원에서 협공을 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시적인 생명윤리의 차원에서 인간의 생명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결정적인 사례는 한국사회의 생명윤리 문제들에 있어서 법률적 판단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과 모자보건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은 수정 후 14일 이전의 배아들은 인간생명이 아니라 세포군에 불과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배아파괴 및 조작을 허용하고 있고, 제3공화국정부에서 독일 나치시대의 안락사법을 본 따서 만든 모자보건법은 임신부의 건강과 복리를 보호한다는 명목하게 광범위하게 낙태시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과 모자보건법이 존재 하는 한

한국의 생명과학 연구실과 산부인과에서 자행되는 광범위한 생명과괴는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거시적인 환경윤리의 차원에서 인간의 생명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결정적인 사례들로 는 세 가지 현실이 우리 피부에 와 닿아 있는데, 하나는 초미세먼지이며, 다른 하나는 환경호르몬이며, 또 다른 하나는 원자력 발전에 따른 잠재적인 방사능 누출 위험입니다.

현재 한국의 하늘은 열흘에 8-9일 가량은 70% 정도는 중국 북동부에서 날아오고, 나머지 30%는 한국 사회 안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에 덮여 있는 실정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발암물질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너무 작아서 코털에 의하여 걸러지지 않고, 한 번 체내에 들어오면 배출될 수 없는 극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초미세먼지는 보통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고 방진 마스크를 통해서만 걸러지기 때문에 이제는 방진 마스크를 일상적으로 쓰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과 같은 성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환경 호르몬은 인체로 하여금 자연적인 성호르몬으로 오인하여 받아들이게 한 다음에는 정자 수 감소, 불임 유발, 아토피와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물질로서 우리들의 생활에 익숙한 PCB, 패트 병을 비롯한 플라스틱 용기들, 컵라면 용기, 코팅된 영수증, 생선을 비롯한 어패류 등에 광범위하게 들어 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의 동해와 서해 해안가에 이미 수십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립되어 있고, 일본의 해안가에 수십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어 있는 것은 물론, 특히 중국 동부 해안가를 따라서 수십 기가 넘는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원자력 발전소들 가운데 몇 개라도 사고가 나서 핵 원료로부터 방사능이 누출되어 나오기 시작하면 끔찍한 대 재앙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이와 같은 반생명적인 사건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전부라고 파악하는 유물론과 효율성을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공리주의와 실용적 가치를 절대화하는 실용주의 등과 같은 이념적인 틀 곧 세계관이라는 터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 반생명문화의 광범위한 피해자

21세기에든 사회 저변에 여전히 여성혐오(Misogyny)가 광범위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강간, 낙태, 자살, 테러, 폭력, 학살 등으로 하루 밤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여성이야말로 반생명문화의 가장 광범위한 피해자들입니다. 한국사회의 남성중심문화와 이중적 성윤리로 인한 성매매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시키는 대중문화와 직장과 교회 안에서 조차 만연한 여성비하와 성차별의 현장은 여성의 존엄성이 짓밟혀온 생명 죽임의 현장들입니다.

저출산 1위, 사교육비 1위, 일에 밀려서 양육이 무가치하고 경제논리에 출산을 포기해야만 하는 사회에서 생명가치를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사회가 가장 나쁜 사회입니다. 아이를 낳는 일이 두렵고 양육하는 일이 고통이 되는 사회는 이미 생명의 길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빠르게 키울 수 없는 사회는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러나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변변치 않은 듯한 일들이 신성한 일임을 아는 사회는 건강합니다. 모든 인간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머니의 10개월의 절대적 돌봄을 통하여 태어납니다. 한 사회의 생명의 물줄기는 모성의 건강함입니다. 걱정 없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그 어떤 정치적 과제보다 근원적이고 시급한 생명의 일입니다. 한국사회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명가치를 어떻게 회복해야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반생명적 현상이 유지하고 재생산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차별입니다. 반 생명의 시대가 죽음과

폭력 그리고 전쟁의 문화가 지배하도록 하는 이성의 논리, 경쟁의 논리 그리고 힘의 논리가 가치를 결정하였다면 생명문화는 여성의 감수성과 어머니의 지혜 그리고 사회적 모성의 실천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생명의 회복을 위한 돌봄의 윤리, 양육의 윤리, 관계의 윤리는 과거에 부정적으로 그려진 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평가들 위에 정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 자신들도 생명운동의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 병든 사회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생명신학적 관점에서 인간중심주의와 함께 남성중심주의 혹은 남성 우월주의 문화를 철저히 반성하고 그 극복의 방안과 성정의(gender justice)의 실현을 위해 여성과 남성은 연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생명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일에 더 책임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의 자화상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자발적인 충성이 어우러져 2,000년 교회사에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교회는 근·현대사의 역사 발전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선교사 27,000명을 파송함으로써 세계에서 인구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교회의 양적 급팽창에 따른 부작용의 폐해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선교 단체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위기로 인해 주님의 몸인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분열과 교회의 양극화로 인한 공교회성 훼손,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빚은 역사와 시대정신에 대한 무관심,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의 세속화로 인한 거룩성 상실, 물질사상에 오염된 성직매매와 외형적 성공 추구, 배타적이고 우월적인 교회문화에 대한 자기도취,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무지로 맹신적인 종교생활 강요, 소외된 인간의 생명과 사회적 고통에 대한 무관심, 지구 생태계에 대한 청지기 역할 망각, 통전적이며 전인적인 영성수련이 없는 신학훈련 과정, 대학생 선교단체와 교회 주일학교 활력 상실 등이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한 한국교회의 자화상입니다. 선교지 현장에서도 십자군 방식의 선교정책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교회의 병폐가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 침탈의 십자기는 우뚝 세워져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 미래를 맞이한다면, 교회 생태계는 무너지고 성도의 급격한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 영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확신과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실천적 신앙생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창조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그분의 품성인 사랑을 회복하여 생명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제2의 종교개혁이 절실합니다.

생명위기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한편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 정보화가 주는 근본적인 삶의 근본적인 피로에 대항하는 부드러운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류사회는 여전히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기대어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생태문명 의식을 가진 소수의 운동가들에 의해 귀농 귀촌 운동, 생태 전환도시 운동, 대안교육공동체, 동서양을 아우르는 통합의학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본주의의 병폐로 붕괴된 마을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이 대안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를 통해 가족과 마을 구성원 그리고 마을과 마을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생명의 그물망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독교가 21세기에 정신적, 영적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전 영역에서 생태적 신앙을 재발견해야 합

니다. '생태'는 단순히 자연이나 환경을 의미하기보다 자연의 한계 안에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공존 공생해야 한다는 원리를 가리킵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시대정신에 걸맞게 마을목회 및 생명목회에 관심을 가지고 현대 문명의 폐해를 극복하는 일에 앞장 서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생명문화를 창달하는 것을 목회와 선교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생명 중심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만약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포괄적 의미에서 선교라고 본다면,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 세계를 향하여 교회는 신학적 응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핵심가치인 '생명'을 회복하며 충만하도록 일깨우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없을 것입니다. 본 포럼의 가치 지향이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와 모든 피조세계를 향하여 살롬의 문명을 향도하는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개교회주의, 교파주의로 계도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벗어나 교회의 우주적 연대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피조세계와의 합일적 삶을 위해 단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문이 새겨진 창조 세계 전체를 인식하는 우주적 신학이 필요합니다.

1.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 담론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병폐를 신학적, 목회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와 사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평화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신학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문·사회, 자연과학과의 통섭적인 연구를 시도해야 합니다.

1. 산업화, 과학화로 인해 탈영성화 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분석하여 인간이 전인적인 영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전인치유 신학과 영성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몸을 성전으로 인식하여 청지기로서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생활영성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도록 돕는 실사구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 그렇다면 우리의 영성은 내면주의와 피안주의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분의 창조질서에 순종하며 본능적 자아에서 해방되어 이웃을 대해 책임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1. 마지막으로 복음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신학적 준거 위에서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사랑의 가치 인식을 통해 생명과 평화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간의 생명과 교회와 더불어 인간사회의 온 영역과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신학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후 2017년 5월 19일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 발기인 일동

한국교회 생명신학포럼 발기인 (가나다순)

강성열(호남신학대학, 구약신학) 고정원(영광사랑교회) 구교형(전 성서한국 사무총장) 김경열(총신신학대학, 구약신학) 김광렬(총신대학, 조직신학) 김도일(장로회신학대, 기독교교육) 김동춘(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조직신학) 김민철(전 전주예수병원 원장, 내과) 김성환(광신대학, 목회상담) 김순성(고려신학대학원, 실천신학) 김은심(경상대학 간호대학) 김은혜(장로회신학대학, 기독교와 문화) 김정남(한국목회간호협회 회장) 김종억(복내마을 농생명과학 연구소) 김현진(광신대학, 목회상담) 김화영(나다공동체 대표) 나용화(전 개신대학원대학교 총장, 조직신학) 노영상(호남신학대학, 기독교윤리) 류명렬(대전남부교회) 박경수(장로회신학대학, 역사신학) 박상은(국가 생명윤리위원장, 안양샘병원 대표원장) 박성근(서울척척통증클리닉 원장) 박영섭(주식회사 미션&컴 대표) 박정식(광신대학, 신약신학) 박정욱(전 조대의대교수, 탐탐재활의학과) 박준범(전 인터서브선교회 대표, 사랑의 병원) 방충현(선한의료인들 이사장) 서강석(전남·광주누가회 이사장, 서강석내과) 서성우(큰샘교회 담임) 서재홍(전 조선대학 총장, 병리학) 소향숙(한국성인간호학회 회장) 손영규(건양대학대학원 치유선교학과) 송경의(전 광주기독병원장, 신경정신과) 송준인(총신대학, 생태신학) 신원하(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 안교성(장로회신학대학, 역사신학) 양낙홍(고려신학대학원, 역사신학) 양영태(광신대학, 영성신학) 유미호(한국교회환경연구소 연구실장) 이대희(안양샘병원 대표이사) 이만순(CTS TV방송 부회장) 이박행(복내전 인치유선교센터) 이상원(총신신학대학, 기독교윤리) 이시영(시니어선교한국 대표, 전UN대사) 이신건(서울신학대학, 조직신학) 이영은(고신대학 간호대학) 이창근(청년세움연구소장) 이춘우(대전케노시스교회 담임) 이현철(전 전남의대 학장, 의학한림원 정회원) 임영국(미래한국병원 원장, 좋은 씨앗 대표) 장근조(생태건축 리빙스톤 회장) 장윤재(이화여대, 조직신학) 전석호(월정유기농장, 주식회사 정농 대표) 정동섭(전 침신신학대, 목회상담) 정명호(서울혜성교회) 정원범(대전신학대학, 교회와 사회연구소) 정현구(서울영동교회) 조 샘(인터서브선교회 대표) 조은하(목원대학교, 기독교교육학) 최광선(호남신학대학, 생태영성) 최승락(고려신학대학원, 신약신학) 최영관(전남대학 정의과 명예교수) 하태식(전남·광주 누가회 간사) 한국일(장신대학, 선교학) 한철호(미션파트너스 상임대표) 홍성진(보건복지부 국립인천검역소 소장) 홍주민(디아코니아 연구소)

제1차 한국교회 생명신학포럼

■ 주제 : 다시 생명입니다

I. 창립예배 및 개회식

- 사 회 : 이박행 목사(생명신학포럼 공동준비위원장, 복내전인치유선교센터)
- 기 도 : 정원범 목사(대전신학대학, 교회와 사회연구소)
- 말 씀 : 영생, 요 3:1~16 /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 축 도 : 나용화 목사(전 개신대학원대학 총장)

- 환영사 : 신원하 박사(생명신학포럼 공동준비위원장, 고려신학대학원 원장)
- 축 사 : 박상은 박사(대통령 직속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상원 박사(총신대학 교수, 기독교윤리)
- 격려사 : 양영태 박사(광신대학, 코이노니아 영성원 대표)
김종억 박사(복내마을 농생명과학 연구소 소장)
이시영 장로(시니어선교한국 대표, 전 UN대사)
- 환영 만찬 : 고려신학대학원 주관

II. 생명신학포럼 1부

- 주제발표 1 : 왜 생명신학인가? 노영상 교수(송실사이버대학 이사장, 기독교윤리)
- 주제발표 2 : 생명신학과 예수의 치유사역 이신건 교수(서울신학대학, 조직신학)
- 주제발표 3 : 한국의 전인치유 현장 사례 이박행 원장(복내전인치유선교센터)
- 종합토론 강성열 교수(호신대학, 농어촌선교연구소 소장)

III. 생명신학포럼 2부

- 주제발표 4 :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본 생명론 김은혜 교수(장로회신학대학, 기독교와 문화)
- 주제발표 5 : 생태계의 위기와 한국교회 책임 송준인 교수(총신대학, 서울청량교회)
- 주제발표 6 : 한국교회 생명운동 현장 사례 유미호 실장(한국교회환경연구소)
- 종합토론 정원범 교수(대전신학대학, 교회와 사회연구소)

영 생 (요 3:1-16)

정현구 목사
(서울영동교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구절입니다. 그 구절에 나오는 ‘영생’은 우리의소망이고 위로입니다. 또 영생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전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일찍부터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또 영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중심주제로 한 신학이 필요하다며 우리들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지금보다 더 많이 말하고 더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의미를 바로 알지는 것입니까. 생명의 온전한 회복이 영생이며, 그 영생을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데, 그 영생이 주님이 주시겠다는 영생과 일치하는 않는 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들어왔던 번영신학, 삼박자 축복, 종말론, 영혼구원론, 내세주의 등은 영생의 의미를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명과 영생에 대한 불완전한 혹은 왜곡된 이해를 가진 교회에게 성장과 부흥을 말하기 전에, 믿고 전하는 그 생명과 영생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것에서 다시 출발하려고 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영생은 ‘죽어서 천당’이 아님을 가르치면서, 영생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교정하는 역할을 상당부분 감당해 왔습니다.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온 세상의 주되심’이란 중심주제, 그리고 공관복음이 중점으로 말하는 ‘하나님 나라’란 주제를 부각시킴으로, 이원론이란 뿌리깊은 암초를 걷어내고, 구원의 정치 사회학적 측면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의 보다 총체적 모습에 다가가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 담론은 더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은 생명의 담론입니다. 생명은 교회가 생각했던 것처럼 영혼만도 아니고, 또 인간 생명만도 아닙니다. 그 생명에는 몸생명, 그리고 함께 공존하는 동식물의 생명, 그리고 생명의 기반이 되는 창조생태계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질이 생명을 질식시키고, 과학기술이 생명의 지도인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암이란 엄청난 고통 속에 수많은 생명을 던져 넣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대재앙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동안 신학이 인간 구원, 영혼 구원에 집중된 신학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온 창조와 만물의 구원을 주목하는

신학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인간의 고통만이 아니라 자연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명신학포럼이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신학의 담론은 결국 ‘생명이 무엇이나’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영생은 곧 온전한 생명입니다. 영생은 이 땅을 벗어나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몸, 그리고 창조세계를 포함한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어 창조된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의미를 바르게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공관복음의 하나님 나라와 함께 요한복음의 영생이란 또 하나의 관점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구원과 재창조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생명신학포럼이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시려는 그 영생은 무엇인지를 살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자연적 출생, 성령은 영적 출생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지만, 당시 자연적 출생은 ‘피로 인한 출생’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자연적 출생에 이어 영적 출생으로 또 한 번 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시 성경학자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정통한 구약성경을 통해 영생의 의미를 알려주시려 했다는 것이 옳습니다. 물과 성령을 통한 새로운 탄생은 에스겔 36장 25-2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겔 36:25-26).

물로 우상숭배의 죄를 정결케 하고, 새 영(성령)으로 불순종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순종의 부드러운 마음을 줌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게 한다는 내용의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니고데모를 포함한 유대인들에게 적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던 그에게, 다시 바람의 이미지로 설명하십니다.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때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요 3:7-8).

이 구절에 나오는 ‘바람’ 역시 구약을 배경으로 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바람)이 흙에 들어가 생명 즉 사람이 되었는데, 흙덩이와 같은 유대민족에게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야 함을 가르친 것입니다. 바람의 이미지는 에스겔서 37장의 환상을 연상시킵니다. 골짜기에 너부르진 마른 뼈들이 성령의 바람을 받자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로 있는 백성들을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서서히 그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과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마른 뼈처럼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바람이 불 때,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로마 치하에서 마른 뼈처럼 살아가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의 바람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듭난 생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던 그에게 예수님은 다시 구약의 뱀뱀 이야기를 하시면서 설명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무지한 가운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묻자, 주님은 하늘의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요 3:12). 그리고 이어서 그 하늘의 일을 한 줄로 요약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 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요3:13)

‘하늘의 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이스라엘 역사에 포함된 구약의 모든 일들인데, 그것을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일과 인자가 하늘에 올라간 일로 압축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육신을 통해 이 땅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한 하늘까지 올라가심이 곧 하늘의 일이라고 합니다.

인자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오심으로 자신의 보혈을 우리를 씻기는 거룩한 물로 주셨고, 부활과 승천으로 하늘까지 올라가심으로 흠과 마른 뼈에게 생기를 넣어 살게 하는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셨는데, 이 거듭남은 신비로운 초월적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자의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이란 하늘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난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러한 하늘 일을 구약의 한 사건으로 다시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뱀뱀 이야기입니다. 함석헌 옹이 한국의 역사를 ‘고통과 섭리’란 두 단어 속에, 토인비가 인류의 문명사를 ‘도전과 응전’이란 두 단어로 담았듯이, 예수님은 전 인류의 역사를 ‘불뱀과 뱀뱀’이란 두 단어 속에 요약하신 것입니다.

뱀의 유혹으로 시작된 인간 타락은 불뱀에 물린 것과 같았고, 이때 하나님은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는데, 그 가죽 옷은 불뱀의 독을 치유하는 뱀뱀이며 하늘의 일이었습니다. 매년 있는 대속죄일은 일 년 동안 백성들 속에 퍼진 불뱀의 독인 죄를 치료하기 위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데, 아사셀 염소도 불뱀의 독을 해결한 뱀뱀이며 하늘의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장자가 죽게 된 것도 불뱀에 물린 것과 같은데, 어린 양의 피는 불뱀의 독에서 구출해 낸 뱀뱀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성경은 불뱀으로 인한 위기 때마다 뱀뱀을 통해 불뱀의 독을 처리한 하나님의 일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로 높이 달린 뱀뱀에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뱀이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요 3:14). 인자는 십자가란 나무 장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까지 내려오시어 불뱀의 독을 씻어내는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또 뱀뱀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높이 들렸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부활과 승천을 통한 인자의 올리심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인자가 올리심으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은 새 마음을 주시

로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3:15).

이렇게 물과 성령, 바람, 그리고 늦봄 이야기를 하신 후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이처럼”은 ‘매우’란 강조부사가 아니라 앞의 ‘늦봄 이야기처럼’이란 뜻으로 봐야 더 맥락에 충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즉 불뱀에 물려 죄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뱀에 물린 자를 위해서 늦봄이 되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란 장대에 달리는 지점까지 내려오시어 보혈을 흘리사 죄의 독을 해독시키시고, 부활승천하여 올라가사 성령을 주시어 다시 생명이 회복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을 어떤 종교적 체험이나 혹은 구원의 서정의 한 단계로 보려는 경향이 있지만, 거듭남은 물로 씻김을 받는 것, 즉 옛 창조를 벗어나는 것이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 즉 본래의 창조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이 곧 주님이 주시려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저 천당에 가서 살아갈 초자연적인 삶이 아니며, 이 땅의 죄악된 생명이 저곳에서 무한정 지속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 영생은, 병들어 아파 죽게 된 사람이 좋은 약과 의사를 통해 본래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듯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주시려고 했던 그 본래의 생명과 그 생명을 통해서 목표하신 그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창조의 본래 모습으로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석처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될 삶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거듭남과 영생은 창조의 본래적 모습이 회복되는 삶이며 재창조의 삶입니다. 이런 본래적 모습은 타락하기 전의 에덴의 삶에서 그 모형을 찾을 수 있으며,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 원형적 실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그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이 삶은 타락하지 않았다면 영구히 지속되었을 삶, 즉 영생인데, 재창조를 통해서 그 회복된 생명의 모습이 영구히 지속되게 할 것인데, 그런 생명과 삶이 영생이며, 그런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그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은 주시려고 했으며, 그 영생은 창조된 본래의 삶입니다. 주님이 주시려는 영생을 알기 위해서는 창조의 본래적 DNA를 담고 있는 에덴의 삶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덴의 삶의 핵심은 에덴이란 외적 환경이 아니라 에덴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관계입니다. 관계는 생명의 본

질이며, 삶도 역시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적 개체가 아니라 여러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생명현상은 그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생명의 본질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첫째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에 절대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 아담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자유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선악과를 먹는 그 불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모습,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가 영생의 첫째 조건입니다.

또 인간은 인간은 삼위가 하나가 되는 사랑의 원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와의 관계에 사랑이 흐를 때 그렇게 지속하고 싶어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 공동체는 영원히 지속 가능한 사귄의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영생의 둘째 조건입니다.

또한 아담은 에덴이란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주어진 땅을 하나님의 마음과 방식으로 다스리고 경작함으로 그 땅을 복되게 해야 했습니다. 즉 오늘처럼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구히 지속가능한 창조세계가 되게 해야 했습니다. 자연과 세상과의 바른 관계가 영생의 셋째 조건입니다.

이처럼 본래 창조된 생명의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에 대한 바른 관계란 기둥 위에 세워진 삶이었고, 그럴 때 그 생명과 삶은 영구히 지속될 수 있었으며 또 그럴 가치를 가진 생명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에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생의 원형이 무엇인지, 그 영생은 영혼과 타인과 세상을 아우르는 통합적 삶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합니다. 이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무너뜨리고, 이어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를 도미노처럼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수직축이 잘못되면 수평축도 같이 잘못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래 자리에서 벗어나자, 다른 관계도 제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설계도와 달리 돌아가는 기계가 곧 고장 나듯이, 그릇된 관계 안에서의 영위되는 삶은 끊임없는 다툼과 전쟁과 고통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이런 삶은 생명이라고 하지만 생명이 아니며, 영구히 지속될 수 없는,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는 모습으로 멸망과 심판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병든 반쪽 생명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서는 영생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영생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우리를 데려가심이 아니라, 창조된 본래적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가능한 온전한 생명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생명을 다시 되찾아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담은 다락방 강화는 주님이 주시려는 영생을 세 가지 그림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첫째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선과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인데,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지인 우리를 포도나무에 연결시킴으로,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시킴으로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둘째 그림은 세숫대야와 수건의 그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높으냐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지배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서로 돕고 섬기는 본래적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통해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 취해야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요17:15-19). 이 세상 밖으로 가려고 하거나, 이 세상 속에 동화되어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속에 있으되 세상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명을 품고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영생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온전한 생명은 창조된 관계의 온전한 회복에 있습니다.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삶, 즉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반생명적으로 흘러가는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정치에서의 인권문제, 경제에서의 신자유주의를 통한 빈부격차, 탐욕의 긍정, 비인간화 문제, 과학기술이 만드는 반창조적 인공사회와 거대 재앙과 기술, 디스토피아의 문제, 환경오염을 통한 창조생태계 파괴, 핵 문제 등등을 포함한 수많은 반생명적인 현상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길로 가는 것이 마치 사는 길로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물질은 더 많아질 지 모르지만, 생명은 죽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더 편리한 문명을 누릴지 모르지만 생명은 죽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엄청난 부를 향유할지 모르지만 참 삶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조된 그 본래의 자리를 떠난 곳에는 참 생명도 참 삶도 참 인간도 없습니다. 다 죽음의 그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 땅의 현실을 판단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 생명이 무엇인지, 다시 거듭난 새 생명과 새 삶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 땅의 현상을 제대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이루는 바른 관계가 어디서 무너졌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무너진 관계를 각 영역에서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창조된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만큼 생명은 살아납니다. 꽃을 피웁니다.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과 영생을 바로 알고, 반생명적 현상을 경고하는 예언자적 소리를 내야 하며, 그 진정으로 사는 것, 영구히 지속가능한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산 위의 동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생명의 바른 의미를 일깨우는 생명신학운동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공생, 풍요함을 함께 누리는 것

신원하 박사
(생명신학포럼 공동준비위원장, 고려신학대학원 원장)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 신학 교수님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인 여러분!

이번에 처음 발기되는 「한국교회 생명신학포럼」에 뜻을 함께 해주시고 기꺼이 귀한 시간 내어 전국에서 이 모임 장소 고려신학대학원에 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30-40년 동안 우리 조국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경쟁적 신자유주의화로 사람들이 앞만 바라보고 달려 오고 싸우듯이 삶을 살아왔습니다. 앞서서 살아남기 위해 주위를 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연과 다른 공동체를 훼손하고 불편을 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아 왔습니다. 사람들은 사나와졌고, 서로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자연은 점점 훼손되었고, 인간탐욕이 뿜어내는 각종 오염물로 인해 자연 생물들이 터전을 잃고 사라져 가면서 자기보호와 생존을 위해 사람에게 대해 발톱을 드러내며 각종 질병과 기후변화로 대응해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목회자, 교수, 전문인들은 이런 모습을 목도하며 안타까워하고 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계획은 인간이 모든 생명들이 다스리고, 또 섬기며(아바드) 그로 인해 모든 피조물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었는데, 작금의 모습은 인간이 오히려 다른 생명들을 착취하는 자리에 앞장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인식하면서도 크게 개선하려는 것에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던 나태한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며 반성합니다.

평소 이 문제를 누구보다 깊이 파악하고 자신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수고해 오신 이박행 목사님과 가까운 몇몇 교수님과 전문인들이 드디어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과 공생, 그리고 풍요함을 온 피조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이 모임을 제안하고, 이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에 공감하면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뜻 깊은 첫 포럼을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던 많은 분들을 함께 뵙고 교제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모임에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뜻을 나누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배움, 각성 그리고 귀한 사권이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제1회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사회

박상은 박사
(샘병원 대표원장·국가생명윤리위원장)

가정의 달 5월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계절이며 온 가족이 함께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복된 계절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서로 가장 아껴야 할 가정이 폭력이 난무하는 싸움터로 변질되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300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태도 알고 보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평형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컨테이너를 넣어 일어났으며, 가슴기 사태도 돈에 눈이 어두워 사용해서는 안 될 유해물질을 섞어 무고한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생명경시 풍조를 바로잡고 어린이집에서부터 노인정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에 맞는 생명존중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립하고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해 ‘생명존중 선언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선언문을 간략히 소개하면 먼저 생명존중 선언문이 제정된 배경에 대한 소개와 생명의 특징을 생명의 책임성, 평등성, 안전성, 관계성의 넷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 자신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이를 가정, 학교, 직장, 국가에서 적용해야 할 실천 내용을 적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경제를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모든 정책을 경제 최우선주의에 입각, 진행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보다 더 우선되는 사안이 생명과 안전이기에 이제 서로 만나면 돈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말합니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 노인, 그리고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사회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생명신학 포럼이 마침내 시작되니 그동안 많은 분들이 염원한 바와 같이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고 올바른 생명신학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생명의 날을 함께 제정해 기독교가 이 땅에 생명존중 문화를 일구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시작된 생명신학포럼이 연약한 생명을 일으켜 세우며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데 소중한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평생의 삶을 바치신 장기려박사님, 김영준박사님, 그리고 생명신학을 정립하시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박행목사님, 이상원교수님, 노영상교수님, 신원하교수님을 비롯한 생명신학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생명신학포럼이 해를 거듭하면서 올바른 생명신학에 기초한 생명윤리연구와 생명운동이 더 활발하게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반생명적인 한국사회의 구조를 변혁시켜 가는 일

이상원 박사
(충신대학 교수, 기독교윤리)

현대 한국사회에서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은 미시적인 생명윤리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환경윤리의 차원에서 협공을 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시적인 생명윤리의 차원에서 인간의 생명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결정적인 사례는 한국사회의 생명윤리 문제들에 있어서 법률적 판단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과 모자보건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은 수정 후 14일 이전의 배아들은 인간생명이 아니라 세포군에 불과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배아파괴 및 조작을 허용하고 있고, 제3공화국정부에서 독일 나치시대의 안락사법을 본 따서 만든 모자보건법은 임신부의 건강과 복리를 보호한다는 명목하게 광범위하게 낙태시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과 모자보건법이 건재 하는 한 한국의 생명과학 연구실과 산부인과에서 진행되는 광범위한 생명파괴는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거시적인 환경윤리의 차원에서 인간의 생명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결정적인 사례들로 는 세 가지 현실이 우리 피부에 와 닿아 있는데, 하나는 초미세먼지이며, 다른 하나는 환경호르몬이며, 또 다른 하나는 원자력 발전에 따른 잠재적인 방사능 누출 위험입니다.

현재 한국의 하늘은 열흘에 8-9일 가량은 70% 정도는 중국 북동부에서 날아오고, 나머지 30%는 한국 사회 안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에 덮여 있는 실정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발암물질로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너무 작아서 코털에 의하여 걸러지지 않고, 한 번 체내에 들어오면 배출될 수 없는 극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초미세먼지는 보통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고 방진 마스크를 통해서만 걸러지기 때문에 이제는 방진 마스크를 일상적으로 쓰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과 같은 성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환경 호르몬은 인체로 하여금 자연적인 성호르몬으로 오인하여 받아들이게 한 다음에는 정자 수 감소, 불임 유발, 아토피와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물질로서 우리들의 생활에 익숙한 PCB, 패트 병을 비롯한 플라스틱 용기들, 컵라면 용기, 코팅된 영수증, 생선을 비롯한 어패류 등에 광범위하게 들어 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의 동해와 서해 해안가에 이미 수십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립되어 있고, 일본의 해안가에 수십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어 있는 것은 물론, 특히 중국 동부 해안가를 따라서 수십 기가 넘는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원자력 발전소들 가운데 몇 개라도 사고가 나서 핵 원료로부터 방사능이 누출되어 나오기 시작하면 끔찍한 대 재앙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이와 같은 반생명적인 사건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전부라고 파악하는 유물론과 효율성을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공리주의와 실용적 가치를 절대화하는 실용주의 등과 같은

이념적인 틀 곧 세계관이라는 터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위기상황은 의료기술이나 과학기술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기술적 지침들에 대한 방법론적인 연구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기술사용을 조정하고 지도하는 이념적 틀 곧 세계관에 대한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연구를 동시에 요청합니다. 그동안 의학, 생물학, 환경공학 등의 영역에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관행들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들과 실천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이념적 틀과 세계관에 대한 근원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은 일반적인 학회나 개인적인 글과 논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을 뿐 통합적이고 조직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절박한 현실이 이와 같은 접근을 요청해 오고 있었는데,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은 이와 같은 절박한 요구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응답이라고 해석됩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인간의 생명의 가치에 대한 절박한 체험을 하셨고, 같은 상황에 처한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 오신 이박행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몇 분의 신학자들께서 헌신적으로 이 모임을 결성하는 데 앞장서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이 포럼이 생명윤리운동을 전개해 온 기관들 및 환경보호운동에 앞장 서 온 기관들과 긴밀하게 연대하는 가운데 반생명적인 한국사회의 구조를 변혁시켜 가는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힘으로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사를 대신합니다.

생명사역과 생명프로젝트를 위하여

양영태 박사
(광신대학, 코이노니아 영성원 대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스스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 10:10)라고 하신 말씀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인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나아가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고전 4:1)인 사역자들은 물론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행 11:26)들은, 예수님을 따라 자기가 생명을 더 풍성히 얻음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는 생명사역과 생명프로젝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헬라어로 *zōē*로서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혼적 생명(이성적 생명)은 헬라어로 *psuchē*인데 우리말 성경은 이를 목숨으로 번역하였고, 또한 헬라어로 육체적 생명(비이성적 생명)은 *bios*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라는 사람의 창조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으심을 받을 때 육체적 생명인 *bios*가 있었고(여기에 동물적인 *psuchē*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자 생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nephesh hayya*’로서(헬 ; *psuchēzōsan*, 고전 15:45) 영어로는 ‘*living soul*’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살아 있는 혼’ 곧 ‘생혼’입니다. 그러나 생령이라는 번역은 의미상으로는 맞는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코를 통하여 사람 ‘속’(히 ; *qereb*, 헬 ; *koilia*)에 숨(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영적인 생명체가 되고, 그리하여 사람이 혼적 생명(헬 ; *psuchē*, 목숨 - 영과 하나가 되어 동물과는 다른)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헬 ; *zōē*)까지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영이라는 말과 혼이라는 말이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nephesh hayya* 즉 *living soul*을 생혼이 아니라 생령으로 번역한 말은 문자적 의미에서는 정확한 것이 아닐지라도 (영적 생명체라는) 의미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영을 의미하는 루아흐(*ruach*)와 혼을 의미하는 네페쉬(*nephesh*)를 구별하자면, 전자는 생명을 의미하면서도 물체나 육체와는 일절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물체 또는 육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루아흐(영)와 네페쉬(혼)는 같은 것(하나)인데, 루아흐(영)은 독자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네페쉬(혼)는 루아흐(영)와 하나이면서도 육체와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작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보면 영혼과 몸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이분

설), 기능적으로 보면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삼분설). 그리하여 영과 혼을 같은 것(존재론적)으로 보면 이분설이 되고, 다른 것(기능적)으로 보면 삼분설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혼은, 처음에 사람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하나님의 숨(영)으로서 본질적으로 영과 하나이었으나,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는 몸과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혼은 영과 본질적으로 하나일 뿐만 아니라 몸과도 유기체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본질적으로 하나로서 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혼은, 몸과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과 몸 사이에 있으면서 영과 몸의 연결 통로가 됩니다. 결국 사람은 영과 혼과 육(몸)의 세 가지(기능)가 하나로 된 유기체적 통일체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인 영적 생명(zōē)과 혼적 생명(psuchē)과 육체적 생명(bios)은, 본질적으로 또는 유기체적으로 하나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함께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zōē)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 시려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혼적 생명(psuchē)과 육체적 생명(bios)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생명을 풍성히 얻는다는 것에는 영적 생명을 풍성히 얻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 곧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산다는 의미(선교) 외에, 행복(혼적 생명)과 전인치유(육체적 생명)가 포함됩니다.

이것이 복내 전인치유선교센터가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 생명을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이는 성령의 지배 곧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성화)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 곧 생명사역과 생명프로젝트를 위하여 이제 우리는 생명신학에 대하여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신학포럼의 창립을 축하하면서 삼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 국민이 추앙하는 생명문화 창달하도록

김 종 익 박사
(복내마을 농생명과학연구소 소장)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 창립 모임에서 격려사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그 영광을 드립니다. 생명신학의 창립은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진 자연이 인간과 어우러지고 인간은 그 자연과 동화되면서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포식시대를 맞고 있으나 악성 난치성 병이 급증하고 있고 병원마다 환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의약품과 첨단수술이라는 공격적인 치료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완벽한 근원치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과 질병의 관계는 생활방식 환경문제 의식구조 경제 문화 습관등 수많은 요소가 그물처럼 연결되어 나타나는 다원적인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식생활 방식이 가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바람직한 식습관은 곡채식에 의한 균형식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식습관은 필요 이상의 육식과 편식으로 난치성 질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인은 유기농업과 토양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은 1차 산업으로서 경제행위에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 증대, 상품화를 목적으로 생육촉진제, 화학비료, 농약등을 다량 살포하게 됩니다. 한 예로 인삼을 재배하는 어떤 농민은 절대로 인삼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편 양계장의 경우, 과밀축산으로 AI가 발생하면 전부 매몰시킬 정도로 닭의 면역력은 극히 약합니다. 그 안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컨베이어를 타고 세척장으로 유입되어 계면활성제를 첨가 세척하게 됩니다. 계면활성제가 난각을 침투하여 난황과 결합하게 되면 발암인자가 생성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유축복합영농으로 고품질 다수확의 농업기술체계가 확립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런 기술체계가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우리가 상호 협조하여야 합니다. 한편 입체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실증적 경험, 환경조건, 과학적 체계,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생명신학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상호 협조하여 온 국민이 추앙하는 생명문화를 창달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와 전문가의 현명한 성경적 대처 시급

이시영 장로
(시니어선교한국 대표, 전 UN 대사)

이미 여러 해 전입니다만, 황우석 사건이라는 생명공학에 관련된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생명공학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었던 당시 우리 사회는 여러 해에 걸쳐 술한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때 저도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가톨릭 교회에서 성명을 내서 그 내용을 보고서야 얼마 간의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성체 줄기세포의 연구는 허용할 수 있으나 배아 줄기세포를 건드리는 것은 생명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 연구를 위해 상당액의 기금도 조성하여 기여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는 교황청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교계나 교회가 준비된 입장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개신교는 성숙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태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야기되는 세속문제에 대하여는 관심도 없거나 논평을 내지 않거나 오히려 기피하는 것이 정상적인 태도라 여겼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어 생명공학이라는 전문적이면서도 우리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사회문제에 대해 교회 안밖의 전문가들께서 생각과 마음을 모아 함께 성경적인 입장을 나누게 됨을 충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만사지탄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세례 요한 같은 “광야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의 생각으로는 비단 생명공학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서양문명의 주도 하에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어 온 모든 과학적인 첨단 기술들이 불가피하게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유착이 되고 소비주의적 유행에 휘말렸습니다. 당초 수단으로 출발했던 것들이 목적 자체로 둔갑하여 우리 사회나 개인이나 가정의 삶과 생활 속에 거의 자동적으로, 그리고 무분별하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부식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엄연한 현실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러한 현상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까지 전염되어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는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으로 거의 미화되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빨리 적응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결정적인 손상을 입어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종래의 상황인식과 패러다임에서 하루 속히 벗어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한국교회와 전문가들의 현명한 성경적 대처가 시급합니다.

오늘날 너무도 급속하게 발달되어 확산되고 있는 첨단 생명공학의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한 윤리적 입장, 내지는 성경을 기초로 한 입장을 나누고, 정리하며, 확산하는 귀한 기회를 마련하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 모임의 열매가 세상 속에 들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생명신학포럼 1부

왜 생명신학인가?

노영상 교수(송실사이버대학 이사장, 기독교윤리)

생명신학과 예수의 치유사역

이신건 교수(서울신학대학, 조직신학)

한국의 전인치유 현장 사례

이박행 원장(복내전인치유선교센터)

생명신학의 필요성과 교회의 실천

노영상 교수

1. 왜 생명신학인가?

오늘 우리 주변은 죽음과 폭력의 문화에 만연해있다. 생태계의 파괴에 의해 전 생명체들이 신음 하는 중이다. 세계 곳곳에 발발하는 전쟁들은 생명들을 커다란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인한 빈곤과 기아는 인간생명의 존엄을 심각히 손상하여 왔다. 또한 에이즈, 사스 등의 새로운 질병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명공학의 무분별한 개발과 인간복제 등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에스겔 6:11-13의 말씀은 이미 오래 전에 이러한 죽음의 문화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면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리지고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살육 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¹⁾ 작금의 이러한 위기는 다차원적인 성격을 지닌다. 우상숭배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파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릇된 관계로서의 부정의, 인간의 자연에 대한 폭력에 의해 야기된 생태계 파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에서 비롯되는 생명위협, 인간의 자신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야기되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학대 등, 생명위기는 다차원적인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교회는 지구 생명공동체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및 통전적 신앙과 신학에 근거한 살림의 생명목회 패러다임을 확립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지향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지난 1백20여 년 동안에 이루어 놓은 성장을 바탕으로, 죽음의 문화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목회에 전력을 다 해야 한다. 이런 정황에서 예장 통합 교단은 ‘생명살리기운동10년(2002-2012)’ 및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운동 10년(2012-2022)’¹⁾을 선포하고, 생명목회를 오늘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설정한 것은 시의 적절한 일이라 생각한다.²⁾ 또한 금번 한국교회 생명신학포럼의 발족은 이런 논의에 많은 아이디어를 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모임들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원한다.

1) 2012년 총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전개하는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운동”(이하 “치.화.생 10년”)은 치유하고 화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생명이 위협받고 치유와 화해가 요청되는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운동이다. 한편으로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부산총회의 주제인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에 대한 응답이다. 이는 또 한 본 교단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교회에 생명선교목회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개한 <생명살리기운동 10년>을 “생명공동체운동”의 차원에서 심화시킨 것이다. 생명선교목회는 생명세계의 창조적, 구속적, 섭리적 회복과 갱신을 가져오는 치유와 화해의 목회이기 때문이다.

2) [http://www.pck.or.kr/community/mutidataboard/upload/생명목회%20칼럼-손인웅\(13\)](http://www.pck.or.kr/community/mutidataboard/upload/생명목회%20칼럼-손인웅(13))

2. 성경이 말하는 생명³⁾

헬라어에는 생명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비오스’(βίος)이며 다른 하나는 ‘조에’(ζωή)이다. ‘조에’는 내연적인(intensive) 생명을 말하는 반면, ‘비오스’는 외연적인(extensive) 생명을 의미한다.⁴⁾ 보통 ‘비오스’는 개역성경에서 ‘생활’(living)이란 말로 번역되는 바, 생명의 본질을 지칭하기보다는 생명의 지속과 생명유지의 방편 및 수단이란 의미로 쓰인다.⁵⁾ ‘조에’는 생명의 핵심과 본질을 말하는 반면, ‘비오스’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 및 생명의 껍데기를 의미하는 곳에 사용된다. 이에 성경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조에’라는 생명의 개념이다.

요한복음에선 생명이란 개념이 ‘영생’이란 말로 종종 표현된다. ‘영생’은 헬라어로 ‘조에 아이오니오스’(ζωή αἰώνιος, eternal life)로 되어있다.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이란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형용사 ‘아이오니오스’란 단어는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 말임에 유의하여야 할 것 같다. 헬라어 사전에서 보면 그 ‘아이오니오스’라는 형용사가, 영원한(eternal), 우주적인(universal), 종말적인(eschatological), 신적인(divine) 등의 다양한 뜻을 가진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⁶⁾ 그 단어의 어근은 ‘아이온’(αἰών)인 바, 그 단어는 시간을 초월한 것으로서의 영원(고전 2:7 등), 또는 오래 지속된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며(누가 1:70, 행 3:21), 헬라어 ‘코스모스’(세상)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마가 4:19 히 1:2 등).⁷⁾ ‘아이온’은 시간적 연장선상에서 영원과 만나는 시점으로 일종의 종말론적 위상을 가진다(히 6: 2, 5, 살후 1:9, 벤후 1:11 등). ‘아이온’은 시간적 의미로서의 ‘영원’(eternity) 함이나 공간적 의미로서의 ‘우주’(universe)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은 시간적인 영원한 삶일 뿐 아니라,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우주적인 삶 및 질적인 차원에서의 신적이며 본질적인 삶,⁸⁾ 또한 무궁하고 종말적인 삶의 모습을 포괄한다.

‘아이오니오스’란 단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다.

- (1) 본질적인(essential): ‘아이오니오스’란 단어는 ‘본질적인’이란 의미를 갖는다. 이 의미를 택하여 ‘조에 아이오니오스’를 번역하면, 본질적인 생명, 참 생명이 될 것이다. 껍데기의 생명이 있고, 핵심적인 본질적 생명이 있다. 성경은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 방편으로서의 껍데기의 생명을 ‘비오스’라고 말하며, 생명의 알곡과 같은 부분을 ‘조에’로 표현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여야 할 생명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의 생명이 아니며, 그 생명의 바탕을 이루는 ‘조에’로서의 생명이다. 물론 이 말은 ‘비오스’로서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책, 『기독교생명윤리개론』(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367-374를 참조하시오. 이외의 부분에서도 필자의 다른 곳에 발표된 많은 글들이 인용되었다.

4) 히브리어 하이임(חַיִּים)은 ‘비오스’의 의미를 네페쉬(נֶפֶשׁ)는 ‘조에’의 의미를 갖는다.

5) Richard C. Trench, Synonyms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0), 91 ff.

6) Ed. by G. Kittel,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68), 200-207. ‘아이오니오스’의 어근은 ‘아이온’인데, 시간적으로는 시대(age) 또는 영원성(eternity)이란 뜻을, 공간적으로는 세계(world)나 우주(cosmos)라는 뜻을 가진다. ‘아이오니오스’란 단어는 보통 영원한, 시작과 끝이 없는, 불멸의 등의 뜻을 가지는 형용사이다. 그러나 가끔은 ‘우주적’(universal)이나 ‘종말적’(eschatological)이란 뜻의 형용사로 쓰이기도 한다. 히브리어 11장 2절은 전자의 우주나 세상을 가리키는 뜻으로, 6장 5절은 종말을 나타내는 형용사로의 쓰임새를 보여준다.

7) Ed. by G. Kittel,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1, 197ff를 참조하시오. 쿨만도 그의 책 Christ and Time에서 이 ‘아이온’이 연장된 시간이란 의미와 영생이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Oscar Cullmann, Christ and Time, trans by Filson (Philadelphia, 1950/51), 62.]

8) ‘아이오니오스’는 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divine) 본질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 히 9:14엔 “영원하신 성령”이란 말이 있는데, 그 ‘영원하신’이란 ‘아이온’을 번역한 단어는 신의 본질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 [Ed. by G. Kittel,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1, 208 참조.]

- (2) 종말적인(eschatological):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이온’(αιών) 곧 영어 에온(eon)을 어근으로 갖는다. 에온은 ‘우주의 한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에온이 바뀌면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리는 새 세상에 대해 설명한다. ‘조에 아이오니오스’는 그 새로운 에온에서의 생명을 나타낸다. 지금 여기에서 맛보는 종말에서의 새로운 생명이 ‘조에 아이오니오스’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맛볼 그 온전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한 종말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 (3) 신적인(divine): 그 종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주시는 종말로서, ‘아이오니오스’란 단어는 또한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을 의미한다. 창세기 2:7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한다(시 104:29).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기원되시고 주인되신다. 또한 요한복음 10:28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한다. 영생이 하나님에게서 부여된 것임을 언급하는 구절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생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요일 5:11), 우리는 그 아들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된다(요 17:3, 3:16, 6:47).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시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하여 ‘조에 아이오니오스’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히브리서 9:14엔 ‘영원하신 성령’이란 단어가 나타난다. ‘영원하신’이란 단어는 헬라어 ‘아이오니오스’로 쓰여 있다. 그 구절은 하나님이신 성령의 속성을 한 마디로 ‘영원하신’분으로 설명한다.
- (4) 영원한(eternal): ‘아이오니오스’란 단어는 성경에서 대부분 ‘영원한’이란 단어로 번역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시간적인 한계 속에 있다. 야고보서 4:14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시간적인 굴레를 뛰어넘은 영원한 생명인데 비해, 오늘의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그러하지 못하다. 그리하여 우리의 시야가 원시치 못할 때가 많다. 우리는 한치 앞의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릇 행하곤 한다. 우리는 이 같은 근시안적인 인간의 전망을 넘어서는 신중심적인 전망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 (5) 우주적인(cosmic): 히브리서 11:2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알게 됨을 언급한다. 여기에서의 세계란 헬라어 ‘아이온’으로 쓰는 바, 이 세상 곧 우주를 지칭하는 단어라 할 수 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조에 아이오니오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 우주에 연결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실재한다. 자연과의 생태적 관계,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온전함 속에서 인간의 생명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인간은 자기라는 존재를 통해, 공간적 제약 속에 감금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우주에 대해 개방된 삶의 모습을 갖게 된다. ‘영원한’이란 의미가 미래와 영원한 시간을 향해 개방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주적인’이란 번역은 세상과 우주에 대해 열려진 인간의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

3. 문화란?⁹⁾

9) 이 부분은 필자의 책, 『기독교 사회윤리 방법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2006), “제3장 문화선교 해석학의 이론과 실제”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문화란 단어는 영어로는 'culture'로 독일어로는 'Kultur'로 표현된다. 이 단어는 원래 라틴어 동사 colere에 그 어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밭을 갈아 경작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위와 같은 본래적 의미 외에도, "가치를 창조한다"는 뜻으로 변용되기도 한다. 문화 이론가 윌리엄즈(Raymond Williams)는 문화를 "영어 단어들에서 가장 난해한 단어 중 하나"라고 말했다.¹⁰⁾ 미국의 유명한 인류학자들인 크로우버(Alfred Kroeber)와 클럭호운(Clyde Kluckhohn)은 문화의 개념에 대해 연구한 그들의 책, 『문화』(Culture: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에서 문화에 대한 수백의 다른 정의들을 제시한 바 있다.¹¹⁾ 그들은 여러 정의들을 나열한 뒤, 문화에 대한 기본 되는 9개의 개념을 간추렸다. 그 아홉 개의 기본 되는 개념들은 철학적, 예술적, 교육적, 심리학적, 역사적, 인류학적, 사회적, 생태적, 생물학적인 정의들로 구분된다.

먼저 철학에서의 정의가 문화에 대한 가장 오래된 정의인데, 철학에서는 문화를 일종의 경작(cultivation) 곧 양육(nurturing)으로 본다. 개인이 지식과 지혜와 이해를 습득하는 것을 문화로 보는 견해이다. 문화를 개인의 내적이며 정신적이고 지적인 행위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로 문화를 일종의 예술(art)로 보는 견해도 오래된 정의 중 하나이다. 작금의 문화선교라는 용어가 문화에 대한 이런 정의를 반영한다. 세 번째는 교육(education)을 문화로 보는 견해가 있다. 네 번째로 심리학적 정의에서 문화는 학습된 행동양식의 총합이 된다. 심리학적 정의들은 흔히 문제 해결의 도구로서 인간의 적응, 조절과 학습을 강조한다. 이 유형의 정의들에 따르면 문화는 생물학적 유전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에게 특징지어진 학습된 행동양식의 총합이다. 다섯 번째 역사적 정의는 문화를 사회적 유산과 전통으로 본다. 사회적 유산의 조직과 총합인 어떤 집단의 문화는 인종적인 기질과 집단의 역사적 삶 때문에 사회적 의미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민속학자들과 문화 역사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던 정의로서, 문화는 인간 생활에서 전승되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요소들에 의해 구체화된 것임을 그들은 강조하였다. 사회적 유산은 역사적으로 계승된 인공물, 상품, 기술적 과정, 사상, 습관과 가치로 구성된다.¹²⁾ 여섯 번째 정의는 인류학적 정의이다. 영국의 인류학자 타일러(Edward B. Tylor)의 정의가 유명하다. 타일러는 문화를 모든 인간 경험을 포괄하는 바의 복합총체(the complex whole)로 보았다. 일곱 번째 사회학적 정의는 문화를 공유된 가치, 상징, 신념, 그리고 행동의 특질로 본다. 어떤 행동의 총체일 뿐 아니라, 그 행동들을 연결하는 방법으로서의 가치, 가치체계, 패턴, 주제들이 이러한 사회학적 개념의 문화와 상관된다. 이에 있어 인류학적이며 사회학적인 문화의 개념은 문화를 인간이란 종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반면, 생태적이며 생물학적인 문화의 개념은 다른 종들과 자연의 영역 모두를 포괄한다. 생태적 문화의 개념은 인간과 자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생물학적인 문화의 정의는 모든 종들이 나름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 꿀벌들에겐 꿀벌 문화가 있으며, 개미들에겐 개미 문화가 있다는 것이다.¹³⁾

문화는 예술 및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나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음향녹음과 같은 문화 산업을 언급하는 좁은 의미의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공유된 상징, 가치, 관습, 신념 등의 총체를 말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그것은 역동적이고 유기적이며 통전적 의미(holistic sense)를 갖는다.¹⁴⁾ 우리는 문화를 하나의 커다란 나무에 비유할 수 있다. 신화, 종교, 윤리, 철학, 우주론과 미학은 그것의 뿌리를 형성한다. 경제, 군사체계,

10) <http://highschool.kaywon.ac.kr/artnculture/A-1.htm>

11) Alfred Kroeber and Clyde Kluckhohn,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 (New York: Vintage Books, 1963).

12) <http://highschool.kaywon.ac.kr/artnculture/A-1.htm>

13) D. Paul Schafer, Culture: Beacon of the Future (Westport: Praeger, 1998), 16-30.

14) D. Paul Schafer, Culture: Beacon of the Future, 7.

과학기술, 정치 이데올로기, 사회 구조, 환경 정책과 소비자 행태 등은 그것의 즐기와 가치를 구성한다. 교육 체계, 문학, 예술, 영적 신념, 도덕적 실천 등은 그것의 잎과 꽃과 열매들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문화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제반 학문의 융합이 요청되는 것이다.¹⁵⁾ 우주론과 철학과 신학에서는, 세계관, 통전성,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 등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된다. 인류학으로부터, 문화의 패턴과 주제뿐 아니라, 전체로서의 문화의 형성에 관한 통찰을 취한다. 사회학에서는, 가치, 가치체계, 상징, 신념 정체성, 인종, 계급, 종족 및 성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된다. 생태학으로부터, 인간의 종과 다른 종들 사이, 인간과 자연의 다른 영역 사이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통찰을 갖게 된다. 그리고 생물학에서는, 다른 종들의 문화에서의 진화적 성격과 유기체적 과정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발견하게 된다. 역사로부터, 서로 다른 문명과 문화의 성쇠 및 문화의 조직과 진화에 대한 통찰을 갖게 된다. 예술로부터, 진리와 미의 창조성, 탁월함, 그에 대한 추구 및 숭고함을 추구함에 대한 통찰을 얻는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제반의 학문에서 문화에 대한 통찰들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문화학’은 제반 학문들을 아우르는 통전적(holistic) 학문이라 할 수 있겠다.¹⁶⁾

4. 살롬의 생명문화

진정한 생명은 ‘조에’의 생명으로서, 시간적으로는 영원하고, 공간적으로는 우주적인, 곧 시간적인 전망과 공간적인 전망에서 넓게 펼쳐진 생명이라 할 수 있다. 찰라적 쾌락에 만족하며 시간적으로 짧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은 영원까지 넓혀진 지평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기적인 자기 폐쇄적 좁은 공간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우주적 지평으로 넓혀진 신적인 삶을 영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문화에 대한 전망은 생명에 대한 전망과 비슷한 면이 있다. 문화의 시야는 인간의 삶을 일차원적으로 좁게 조망하지 않는다. 어떤 문제를 문화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넓은 전망을 갖고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을 말한다. 건강에 대한 문화적인 접근을 일례로 들어보자.¹⁷⁾ 건강과 질병 및 치유에 대한 개념은 그 공동체의 사회구조와 가족구조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그 사회의 경제적인 수준, 빈곤층의 분포 등도 건강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 나라의 정치, 특히 의료 및 보건에 대한 국가의 정책, 의료보험 제도 등도 한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러한 건강의 문제는 한 국가의 범주 속에서만 관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글로벌한 체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 가치관 세계관 또한 건강과 질병의 문제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어떤 한 문제를 문화분석적인 측면에서 추구한다는 것은, 그 문제가 놓인 총체적 상황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문화적 시야를 가진 사람은 모든 문제를 너른 시야를 통해 바라본다.

생명문화는 이러한 생명과 문화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복합어이다. 인간의 생명과 구원의 문제를 문화적인 견지에서 다루는 것을 말한다. 생명문화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며, 통전적인 접근을 한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교육 등 제반의 분야에서의 생명의 진작의 과제를 다루는 것이 생명문화가 추구하는 바이다. 이런 생명문화의 의미는 인간의 제반 관계에서의 온전함과 조화로움을 구현하는 데에 있다.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집단, 인간과 자연, 인간과 자아 등의 제반의 관계에서의 온전함과 통전성을 생명문화는 추구한다. 이 같은 제반 관계에서의 온전함이란 히브리어로 ‘살롬’으로 표현될 수 있다.

15) D. Paul Schafer, Culture: Beacon of the Future, 42.

16) D. Paul Schafer, Culture: Beacon of the Future, 45.

17) 마사 O. 루스토트, 엘리사 J. 소보, 『건강 질병 의료의 문화분석』, 김정선 역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2) 참조.

월터스트로프(N. Wolterstorff)도 암스텔담의 자유대학에서 행한 카이퍼 기념 강연(the Kuyper Lecture)에서 이러한 살롬의 다차원적인 성격에 대해 언급하였다.¹⁸⁾ “우리는 ‘살롬’이 정의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정의 없이 ‘살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살롬’은 정의 이상의 어떤 것이다. ‘살롬’은 인간 존재의 하나님과 자아와 이웃과 자연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말한다.”아트킨슨(D. Atkinson)도 그의 책『평화의 신학』에서 같은 입장의 발언을 하고 있다. “평화는 대체로 올바른 관계 속에 존재한다. …최상의 평화는 옳은 관계 속에 거함에 따른 즐거움과 만족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 관계란 하나님, 이웃, 자신,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참된 평화는 불과분 정의와 관계된다. 그러므로 정의 없는 평화는 결코 존재하지 않으나 평화는 정의를 초월한다. 자주 ‘평화’와 ‘정의’는 함께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시85:10, 사48:18).¹⁹⁾ 이러한 검토들을 통해 우리는 ‘살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게 된다. 먼저 ‘살롬’이란 일종의 관계를 말하는 용어라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와 국가사이의 바른 관계 곧 전쟁의 관계가 아니라 평화적인 협조의 관계를 말함과 동시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그 자신의 자아와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등 여타의 것들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통해 추구되어지는 개념이다. 우리는 평화의 개념을 국가와 국가사이의 전쟁 없음의 문제만으로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와 자아의 심리적인 면, 나와 이웃과의 사회적인 면, 나와 하나님과의 종교적인 면, 나와 자연과의 환경적인 면 등 다차원적인 관계성을 통해 이룩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살롬에 대한 정의들에서, 생명문화가 지향하는 바가 살롬임을 파악하게 된다. 살롬의 생명문화를 구현하는 것이 기독교적 온전함의 목표인 것이다.

5. 삼위일체적 생명과 살롬의 생명문화

이상의 언급으로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러한 생명의 본질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한 것 같다. 이에 다음으로 이러한 생명의 본질에 따른 참 삶의 태도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현할 때,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 다음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기독교가 말하는 참 삶이란 제한된 좁은 시간과 공간적인 삶이 아니며, 그러한 시공간적 제한을 뛰어넘는 폭넓은 의미의 삶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오늘의 제한된 시간의 세계에서 무궁한 시간의 삶을 영위하며, 오늘의 갇힌 공간적 삶에서 우주 저 멀리 공간까지 펼쳐진 열린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러한 무궁하고 궁극적인 삶을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말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이, 이런 삶의 출발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여타의 것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여, 우리를 하나의 전체적인 네트워크 속에 놓이게 한다.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의 포괄성에 기반한 보다 명백하고 첨예한 구원에 대한 서술이 이사야서에서 표명된다. 이사야 11장 1-10절, 35장 1-10절 등의 말씀엔 기독교가 그리는 이상적인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구원을 구성하는 요소를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과 영광이 이 땅에 편만하게 되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되는 것이다. 둘째는 범세계적인 정의와 평화를 실현한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전 자연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사야가 말하는 살롬은 우리가 보통 예상하는 바의 좁은 의미의 내용이 아니다. 그것은 포괄적인 것으로서, 인간의 영육간의 잘됨, 사회적인 억압으로

18) N. Wolterstorff,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Eerdmann, 1983), 69.

19) D. Atkinson, *Peace in Our Time*, 한혜경, 허천희 역, 『평화의 신학』(서울: 나눔사, 1992), 159.

부터의 해방, 자연을 포함하는 전 피조물의 보전으로서의 개념이 그 속에 함축된다(로마서 8:18-25, 골로새서 1:15-20).

참 생명으로의 살롬은 올바른 생명문화를 창조한다.²⁰⁾ 기독교의 구원이란 악한 세상에서의 자신의 격리와 탈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으로 내가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된 내가 다시 이 세상을 변화함을 통하여 완성된다. WCC는 이 같은 노력을 JPIC (Justice Peace and the Integrity of Creation)라는 모토를 통하여 구현하려 하였으며, 이 ‘정의, 평화, 창조의 보전’으로서의 JPIC는 오늘에 이르러 살롬이란 한 단어를 통하여 다시 요약되고 있다(이사야 26:12).²¹⁾ 이 같은 살롬으로서의 포괄적인 기독교의 생명문화에 대한 개념은 현 문화를 비판함과 동시에, 현 문화가 장차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기독교의 참 생명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부여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은 자기부정의 정신으로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신자는 자신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축을 확장하여, 우리로 하여금 살롬에 이르게 한다. 자기 속으로 움츠러들어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감에 의해, 우리는 진정되고 정화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자기 생명과 만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수렴과 남을 위한 확산을 반복하며, 우리는 전망의 궤적을 넓혀나가게 된다. 우리의 생명은 우주전체를 넘어서는 하나님에 연결되어 있을 때 역동성을 갖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십자가에 매어 닦을 통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에 다다르며,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참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생명은 포괄적 살롬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전체를 향해 나아가는 생명정신은 오늘의 현 문화를 비판한다. 자기중심주의(egocentrism),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 남성중심주의(androcentrism),²²⁾ 자유방임의 경쟁적 자본주의(capitalism), 자기 종교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교의 열정을 후퇴시키는 종교적 폐쇄주의 등의 문화가 초극의 대상이다.

먼저 오늘의 지나친 개인주의적 경향 및 자기중심주의는 초극되어야 할 대상 중의 우선이다. 개인주의를 조장하는 교육환경, 개인주의에 입각한 정치경제구조 등, 우리의 보다 넓은 전망에의 투신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나만의 자유, 나만의 성공을 위한 삶, 이기적인 경제활동 등, 우리는 이 같은 한계를 넘어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을 만물의 중심이나 척도로 보거나, 인간의 생명을 절대화하여, 자연을 그에 부가하는 것으로 보게 될 때 생기는, 부조화도 우리의 극복하여야 할 편견 가운데 하나이다.

자민족중심적인 생각, 배타적인 민족주의 및 제국주의와 패권주의 또한 비판의 대상이다. 국가이기주의에 의한 새로운 식민주의의 출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타민족 말살정책 및 살롬을 저해하는 인종주의에 비판을 가함이 필요하다. 기타 전지구적인 정의를 저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 남성에 의한 여성의 착취, 기성세대의 청소년층과 어린이에 대한 착취, 다수민족의 소수민족에 대한 착취, 제 1세계의 제 3세계에 대한 착취, 부자들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 건강한 자들의 병들고 약한 자들에 대한 억압,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사회적 정의를 침해하는 많은 사례들이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구별하여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고 다른

20) 이사야 26:12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모습을 ‘살롬’(shalom)이란 한 단어로 압축하였다.

21) 두호로, 리드케, 『살롬』, 손규태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22) John Walter Quiring, Total Liberation: Spirituality for Green Politics (Michigan: UMI Dissertation Service, 1994), 25 ff. 이 박사 학위 논문은 녹색정치를 위한 영성에 대해 말하며, 생태정치학의 비판 대상이 되는 여러 ‘ism’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편의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은 광범위한 살롬 추구에 역행하는 일이다.

이러한 살롬의 생명문화는 생명의 본질로서의 삼위일체적 하나님생명 대한 연구를 통해 더욱 진작되리라 생각한다.²³⁾ 삼위일체적 생명에 나타나는,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집합주의(collectivism)를 넘어서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²⁴⁾ 다양성(diversity) 속의 일치(unity)의 양상, 유일신론에 바탕을 둔 전체주의의 배격 등 그것의 생명논리를 사회 문화적 해석으로 담아내는 일은 앞으로의 큰 과제 중 하나가 되리라 본다. 이 같은 살롬의 개념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정치 경제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자치공동체의 강한 연대를 전제하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의 입장이 이에 부합하리라 생각한다.²⁵⁾ 공동의 복리를 향한 공공선(common good)을 소중히 여기며, 공동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소읍과 같은 자치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오늘의 정치경제 체제의 대안 모색은 이 시점에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또한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문명 블록간의 공생적 관계형성 및 세계정치와 경제를 규제하는 세계윤리(global ethics)²⁶⁾ 구상을 향한 적극적인 사고도 요청된다. 이와 같은 일들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감당되기 힘들며, 서로 모여 논의하고 실천을 함께 하는 협의적 과정(conciliar process)을 필요로 할 것이다.

보프는 1986년에 쓴 책, 『삼위일체와 사회』(Trinity and Society)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드러난 사회적 의미를 제기하고 있다.²⁷⁾ “인간의 사회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나타내고 있다. 계시에 의해 드러난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개인과 행동의 다중성(multiplicity) 속에 있는 일치(unity)의 모습을 의미한다. 삼위일체는 참여와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의 모델이다. 삼위일체는 통합된 사회(integrated society)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것은 개인과 사회 사이의 공존(co-existence), 각자의 행복과 공공선(common good) 사이의 공존을 나타낸다.”

6. 생명문화 창조를 위한 교회의 역할

필자는 이 글을 구성하며, 세 가지의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생명과 문화와 살롬이다. 이에 있어 그 세 가지의 개념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임을 앞의 내용에서 설명하였다. 생명과 문화와 살롬 모두 관계적 통전성(related wholeness)을 강조한다. 그리고 인간의 삶의 지평을 넓혀나갈 것을 세 개념은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확대는 인간중심적인 전망에서 신중심적인 전망으로의 변화를 요구하며, 기계론적 사고에서 유기체적 사고로, 그리고 환원주의적 사고에서 다차원적인 열린 사고로, 문화배타적인 분리주의적 입장에서 문화친화적인 사고로의 전환을 요청한다. 교회는 이런 생명문화의 창달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외부

23) 뉴비긴(Lesslie Newbign)은 그의 글 “공적 진리로서의 삼위일체”(The Trinity as Public Truth)에서, 코크레인(Norris Cochrane)의 책 『기독교와 고전 문화』(Christianity and Classical Culture)를 인용하면서, 고대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주장은 일종의 교리적인 사색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며, 당시의 사회상과 문화의 모습을 반영하며,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로서 나온 것임을 강조하였다. 당시 서방교회를 중심으로 한 삼위일체론의 강조는, 희랍의 이원론적인 철학과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와 맞물려 있다. 또한 그 삼위일체의 패러다임을 통해, 고대의 유일신론적(monotheistic) 군주제의 극복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시대에 있어 삼위일체론은 참여적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의 근거로서 재해석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이 서로 평등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존재임을 말한다. [Lesslie Newbign, "The Trinity as Public Truth," Ed. by Kevin J. Vanhoozer, The Trinity in a Pluralistic Age (Grand Rapids: Eerdmans, 1997), 1-7]

24) Leonardo Boff, Trinity and Society, trans. by Paul Burns (New York: Orbis Books, 1992), 118-120.

25) 이지현, 『개인, 공동체, 교육 II: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사회주의』(서울: 교육과학사, 1997).

26) 세계윤리(global ethics) 구상의 방향에 대해서는 쾅(Hans Küng)의 책 A Global Ethics for Global Politics and Econom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를 보시오. 특히 그는 국제적인 정치 경제 분야에 대한, 윤리적 규제가 필요함을 강력히 말하고 있다. 그러한 규제를 위해서는 세계경제와 정치에 있어서의 규범적인 고찰 및 그러한 규범을 통해 규제를 수행할 수 있는 국제적 기구의 설립에 대한 구상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27) Leonardo Boff, Trinity and Society, 118-120.

를 향한 십자가에 드러난 바의 희생적 사랑의 관계를 널리 전할 의무를 가진다. 세 인격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 되어 만드는 사랑의 구조를 파악하고, 우리 인간 서로도 그런 유기적 관계를 진작해나갈 뿐 아니라, 그러한 문화적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성경에는 교회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은유들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전, 방주나 배, 신자의 어머니, 반석,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등의 은유들이다. 여러 가지의 은유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란 표현이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리스도의 몸이란 은유에 나타나는 유기적 공동체 이론으로서의 교회관을 잘 설명한다. 고린도전서 12:12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몸은 하나 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기관이다. 성경은 생명을 배태하고 육성하는 집 또는 자궁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강조한다. 몸의 유비에 따른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생명의 교회가 없이는, 온전한 생명이 육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명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우고 굳건히 하는 것이, 생명구원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²⁸⁾ 그 교회는 생명의 담지체로서 우리에게 살롬의 공동체성을 드러낸다. 이에 생명을 살리는 운동은 동시 교회의 운동이 된다. 교회의 생명 살리기 운동은 교회의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는, 교회가 유기체적 생명의 본질로서의 교회의 참 모습에 충실할 때, 성취되는 일인 것이다.

오늘 교회가 처한 사회의 문화적 환경은 생명을 죽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인간존재의 근원에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듯, 우리는 인간의 문화적 환경 속에서 구원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 인간이나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 및 문화의 모든 영역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존의 있던 것을 고쳐서 쓰는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문화 밖으로부터 오는 창조적 새로움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기존의 문화적 사고나 생명경험에 안주하거나 머무름이 없이, 새로운 창조적 문화변혁의 과정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인류문화를 향한 새로움의 창조에 희망을 걸면서, 오늘의 쇠락된 생명문화의 상황을 역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않은 모든 생명문화의 변화는 우리에게 창조적 새로움을 주지 못한다. 항상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희망을 갖는 신앙인들과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28) 본인의 글 “생명목회”중에서 인용함.

생명 예수와 예수의 질병 치유

이신건 교수

1. 예수는 생명이다.

오늘날 우리는 곳곳에서 죽음의 권세가 맹위를 떨치는 것을 본다. 살인과 자살, 전쟁과 테러, 핵무장과 빈곤, 생태계의 위기, 살인적인 경쟁문화와 반생명적, 반인륜적 삶의 방식이 현대인을 점점 더 깊은 죽음의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를 다시금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이해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임무를 받고 있다.¹⁾

본회퍼의 말대로 “우리가 아무런 협력도 하지 않고 부여받은 신체적 생명은 그 자체 안에 보존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강탈하거나 획득한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에 받은 권리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있기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존재자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²⁾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명 자체의 가치는 하나님에 의해 보존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자, 유지자, 구원자이시다는 사실은 가장 비참한 생명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가치를 준다. 문둥병에 걸려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 있었던, 그리고 개가 상처를 핥던 비참한 나사로는 사회적 이용가치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오직 이용가치에 따라서만 생명을 판단하던 사람들의 희생자였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영생을 얻을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평가하셨다.”³⁾ 더욱이 그리스도는 친히 육체적 생명 안으로 들어오으로써 생명의 권리를 생생하게 실증해 보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⁴⁾

몰트만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고 선취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 전체를 포괄할 만큼 다채로운 성격을 지닌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정의와 평화의 윤리적 이상일 뿐만 아니라, 건강과 생명과 충만함 속에 있는 생명이기도 하다. 예수는 이 세계를 새로운 생명의 시초로 인도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예수의 회개 요청은 이 요청을 듣는 사람들의 생명 전체를 사로잡는다.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 전체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에 대한 자유를 열어준다.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방향 전환이나 새로운 행동을

1) “생명”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살아 있는 유기적인 존재(식물, 동물)와 특히 인간의 존재를 의미한다. 그리스어는 자연과학적-활력적 관점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생명(ζωή)과 윤리적인 관점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생명(βίος)을 구분한다. 신약성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사귀를 표현하기 위해 자연과학적-활력적 생명 개념을 수용한다. Theologisches Begriffslexikon zum Neuen Testament Bd 2., hg. L. Coehen(Wuppertal: Theologischer Verlag R. Brockhaus, 1983), 837. 신약성서에서 “비오스(βίος)”는 10번 나오고, “조에”(ζωή)는 135번 나온다. 개인의 고유한 생명, 생명력, 생명의 담지자로서 혼을 의미하는 “푸시케”(ψυχή)는 103번 나온다. 신약성서에서 “조에”(ζωή)는 죽음과 대립되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믿는 자들의 생명을 의미한다.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d XX(Walter de Gruyter, Berlin, New York, 1990), 526.

2) D. 본회퍼, 손규태, 이신건, 오성현 옮김, 『윤리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216.

3) 같은 책, 227.

4) 같은 책, 201.

위한 결단만이 아니라, 옛 세계의 조건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생명을 선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⁵⁾

이런 점에서 신약성서가 예수를 인격화한 생명으로 이해한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타당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깊다. 요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전부터 선재하던 그리스도로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영원한 생명이었다.(요 1:4, 요일 1:1 이하) 예수는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자신의 말씀과 인격을 통해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요 6:33, 10:10; 요일 4:9) 그러므로 예수는 “생명의 떡”(요 6:35, 48), “생명의 빛”(요 8:12), “부활과 생명”(요 11:25, 14:6)이라고 불린다. 육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영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요 6:68, 10:28, 12:50, 17:2), 그 자체로서 영생이다.(요일 5:20) 예수의 임무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 풍성히 주기 위한 것이다.(요 10:10)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은 믿음을 통해 받게 된다.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요일 5:12), 영생을 가졌다.(요 6:40, 47)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요 5:24) 예수는 영생하게 하는 생명수의 샘과 생명수의 강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요 4:14; 계 7:17, 21:6; 22:1, 17)

여기서 요한은 영지주의(Gnosis)의 생명 이해를 반박한다. 영지주의가 영생을 거의 도달할 수 없는 피안의 세계로 옮겨놓았다면, 요한은 하나님의 생명을 현재 안으로 완전히 옮겨놓았다.⁶⁾ 그리고 요한은 영생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격과 긴밀하게 결부시켰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요 17:3) 현세적인 영생은 죽음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죽음과 심판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예수가 주는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예수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요 4:14)

이런 점에서 본회파의 말대로 생명은 하나의 사실, 하나의 본질,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하고 유일한 이 인격은 다른 인격 가운데서 발견할 수도 있는 그런 인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의 “자아”다. 예수는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생명은 자아로부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생명과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본질과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살아가고 있다.⁷⁾

바울도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빌 1:21), “우리의 생명”(골 3:4)이라고 부른다. 바울에 따르면 예수의 희생적 죽음과 부활 속에서 만물의 종말론적 전환이 일어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는 희생에서 소생으로, 비천에서 고양(高揚)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무상함에서 불멸성으로, 이 세계의 밤에서 하나님의 새날의 아침으로 새롭게 전환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그를 믿는 자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는 사람 같지만 살아 있다.”(고후 6:9)⁸⁾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얻는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인가? 서양의 전통에서 영원한 생명은 아주 일찍부터 영혼과 결부되어 생각되었다. 존재론적으로 하나의 실체로 이해된 영혼은 육체와 구

5) J. 몰트만, 곽혜원 옮김, 『희망의 윤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113 이하.

6) 요한은 현재하게 현재적 종말론을 대변한다. 그도 물론 현재의 삶이 미래에 완성될 것을 기대했지만, 묵시문학적 종말론처럼 우주적 대변혁을 기대하지 않았다. 요한에 따르면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은 이미 현재적이다. 복음은 보편적인 것이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은 현재적이다. 현재는 나중의 성취를 위한 하나의 전 단계가 아니다. 요한에게서 구원은 상실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귀, 하나님과 함께 불멸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빛 속에 머무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신진, 『종말론의 주제와 역사』(서울: 신앙과지성사, 2011), 65 이하 참조.

7) D. 본회파, 『윤리학』, 297 이하.

8) J. 몰트만, 앞의 책, 11 이하.

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죽은 후에 비로소 주어진다.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주어지고, 멸망을 받을 자들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주어진다. 이러한 전제 아래서 중간기에 영혼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에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다시 결합되는지를 묻는 수많은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영원한 축복을 최종적으로 갈망하게 되었다.

고대 전통에 따라 하나님이 최고의 선으로 이해되었다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참여의 단계가 달라진다. 영원한 생명은 축복된 하나님 관조와 하나님과의 사귄다. 이러한 표상은 중세기를 거쳐 르네상스 기간에 이르러 구원을 받은 자들과 멸망을 받은 자들이 거처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까지 발전되었다. 프톨레마이오스(K. Ptolemaeos)의 세계상에 따라서 사람들은 천구(天球) 너머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구원을 받은 자들이 머무는 자리가 있고, 이와 멀리 동떨어진 곳, 곧 땅의 중심에 멸망을 받은 자들을 정화하는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다.⁹⁾

이러한 세계상이 무너진 이래 현대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더는 이런 표상에 의존하여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영혼의 불멸성을 영원한 생명의 근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단지 현재의 생명이 사후에 영혼의 상태로 계속 존속한다는 의미에서 단순히 양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영원은 양적인 규정이 아니라 질적인 규정이다. 영원한 생명이란 무한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충만하게 된 생명을 의미한다. 영원한 생명은 생명 연장 프로젝트나 지루한 장수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적 개념처럼 허무한 시간과 대립되는 무시간적인 생명도 아니다.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유한한 피조물과 생생한 관계를 맺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원은 고갈되지 않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 속에 있는 무제한적이고 완전한 생명이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생명의 완전한 충만함이다.¹⁰⁾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은 사후에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경험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의 모든 순간에 의미 있게 경험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죽음을 극복한 생명의 진정한 시작이기 때문이다.¹¹⁾ 그러므로 현세의 삶은 단지 일시적이고 허무한 삶이고 현세의 삶이 끝난 다음에, 곧 죽은 후에 비로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이 세상의 삶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 현세의 삶을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의 삶으로 여기고 죽음 후에 하늘의 분향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희망하는 태도는 물론 현세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도 있지만, 현실을 비겁하게 도피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책임적으로 감당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몰트만의 말대로 이 세상의 삶이 단지 피안을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삶을 거부하는 이론이요, 하나의 종교적 기만이다. 그것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과 모순되며, 이런 점에서 종교적 무신론이다.¹²⁾

9)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d XX, 546 이하.

10) J. 몰트만, 앞의 책, 119 이하.

11) 같은 책, 129.

12) J. 몰트만, 김근진 옮김, 『오시는 하나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101. 몰트만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 신분은 불멸하다. 그러므로 죽음은 인격 전체의 폐기가 아니라, 인간 전체의 변형(Transformation)이다. 생명(삶)은 변화되지, 폐기되지 않는다. 같은 책, 136 이하.

2. 왜 예수는 질병을 치료하는가?

생명으로 온 예수는 인간에게 질병과 죽음을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었고, 병든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을 고쳐주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귀신을 추방하고 병을 치료한 사람으로 알려졌다.¹³⁾ 복음서는 병자들이 예수가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에 이끌려 예수에게 몰려왔다고 거듭 보고한다.¹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마 4:24)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 하시니라.”(막 1:32-34) “...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막 1:45)

예수가 치유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단지 예수를 목격한 자들에 의해서만 증언된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에 의해서도 분명히 주장되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 세례 요한이 해룻에 의해 처형되기 전에 감옥에서 예수의 권능 있는 행적에 대해 듣고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인지를 질문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는 다음과 같은 말로 대답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마 11:5; 눅 7:19)¹⁵⁾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가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들은 해룻은 예수의 능력 있는 행동이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했다. “해룻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해룻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막 6:15-16)

예수는 병자를 치유하는 의사의 사명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눅 4:23) 예수는 스스로 병자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병자 치유의 사명과 능력을 나눠 주었다.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막 3:15)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눅 9:1)

왜 예수는 질병을 고치는가? 예수의 치유 기적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병자 치유는 고대의 세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고, 오늘날도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수의 치유 기적은 그가 선포하고 선취한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바로 그런 맥락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예수의 치유 기적은 단순히 종교적인 신비 경험이나 초월적인 능력의 발현으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예수 안

13) 예수가 마귀를 추방하고 병을 고쳤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다. 보그에 따르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우리가 가진 자료들이 이를 항상 증거한다. (2) 마귀추방과 질병 치유는 예수의 주변 세계에서 비교적 평범한 일이었다. (3) 예수를 적대시했던 사람 들조차 예수에게서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온다는 주장에 도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은 예수의 그런 능력이 약한 영들의 우부모리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했다. 예수를 추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의 대적하던 사람들도 예수를 치유 능력을 가진 거룩한 사람으로 보았다. M. 보그, 김기석 옮김, 『예수 새로 보기』(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8), 89 이하.

14) 우리는 예수가 행한 기적을 치유 기적, 자연 기적, 초자연 기적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의 치유 기적에 관해서만 설명한다.

15) 보그에 따르면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위대한 카리스마적 치유자 가운데 하나였던 엘리야에 대한 기대와 명백하게 연관되어 있다. 같은 책, 89.

에서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다. 우상과는 반대로(시 115:4-8)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여호와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시 18:46)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시36:9) 하나님이 살아 계신 존재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 “야훼”(출 3:13-15)를 통해 가장 분명히 설명된다. “야훼”는 단순히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그의 절대적 존재를 지시하는 이름으로 이해되기보다는 그의 활동과 작용을 지시하는 이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으로서 등장하고 행동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실증과 능력의 증명과 결부되어 있다.¹⁶⁾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존재로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억눌린 생명을 위해 구원의 활동을 전개하신다.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창 2:7; 시 104:30; 사 42:5),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입는다. 하나님은 상하게도 하시지만, 낮게도 하신다.(신 32:39)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다.”(출 15:26)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친히 치유하셨다. 하나님은 치유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뚜렷하게 드러내시며, 이를 통해 구원하시는 분임을 친히 입증하신다.¹⁷⁾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은 병든 자의 치유, 귀신들린 자의 해방이기도 하다. “구원”(Heil)이란 말은 “치유”(Heilung)라는 의미를 지니며, 상처를 낮게 해주는 것은 구원의 구체적인 결과다. 그리스도는 치유행위, 곧 혼돈과 분열에 싸인 인생을 붙잡아 다시 완전하게 만드는 행위를 통해 구원을 성취한다.¹⁸⁾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구원도 온다. 하나님의 통치는 파괴의 세력들과 귀신들과 우상들을 세계로부터 몰아내며, 그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피조물들을 치유한다. 예수가 가까이 다가가고 예수에게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특히 “병자들”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치료를 갈구하기 때문이다.¹⁹⁾

모든 질병이 죽음의 전령(傳令)이듯이, 병자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령이다. 모든 중병 속에서 우리는 죽음과 씨름하고, 모든 치유 속에서 우리는 부활과 같은 것을 체험한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처럼 느끼며, 생명을 다시 선사받았음을 느낀다.²⁰⁾ 병자 치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영혼적, 내면적 현상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현상으로도 경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치유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병자 치유는 구원의 현재성과 신체성, 곧 구원의 전체성을 지시한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피안의 세계로 미루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죽은 자들이나 사후의 세계를 위해 약속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인간을 질병과 죽음 속으로 몰아가고 이를 통해 인간을 지배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활개를 치는 곳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생명을 돌보고 질병을 고치는 일은 이 땅의 의사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질병과 고통이 없는 영혼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사후의 구원을 기다리는 장소를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16) T. 보만, 허혁 옮김,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왜관: 분도출판사, 1975), 56 이하; G. von 라트, 허혁 옮김, 『구약성서 신학 제1권』(왜관: 분도출판사, 1976), 186 이하.

17) 이정기,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출판부, 2007), 24 이하 참조.

18) D. 렐런 편, 이기춘 역, 『몰트만과 실천신학』(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34 이하.

19) J. 몰트만, 김근진, 김명용 옮김, 『예수 그리스도의 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156.

20) J. 몰트만, 이신건 옮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23.

비록 이 땅에서 완전한 치유는 불가능하고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치유는 죽음 이편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표지이며, 바로 그래서 모든 치료는 부활의 생생한 전조(前兆)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치유는 단순한 종교적 기적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신체성과 구원의 전인성 또는 전체성을 지시하는 표지다. 우리는 구원을 단지 죄의 용서라는 내적인 사건에만 제한해서는 안 되며, 질병 치유도 단지 내적인 사건의 외적인 표지로서만 이해해서도 안 된다. 병자 치유가 하나님의 통치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인간 자신과도 마찬가지로 포괄적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창조와 인간의 부분적인 한 영역에 제한할 수 없다. 구원은 단지 영혼만이 아니라 창조 전체와 인간 전체를 위한 것이다.²¹⁾

3. 귀신 추방과 병자 치료

예수는 병자를 매우 불쌍히 여겼고, 질병을 고쳤다. 귀신 추방과 병자 치료는 예수의 메시아적 사명에 속한 것으로서 예수의 활동과 제자들의 과송의 성격을 분명히 설명한다. 예수가 귀신을 추방한 사건은 공관복음에서 일곱 차례 나타난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을 살펴보기로 하자. 마가복음(1:23-27)과 누가복음(4:31-37)에 따르면 예수는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한 다음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했다. 예수가 귀신에게 “잠잠히 나가라”고 명령하자, 더러운 귀신은 귀신 들린 자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특히 하계도 예수를 식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최초의 존재는 바로 귀신 들린 자, 곧 더러운 영들이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막 1:24, 눅 4:34)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귀신들도 예수와 함께 그들의 때가 다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과 우상들은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당신은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나이까?”(막 1:24; 눅 4:34)라는 귀신의 말을 통해 입증된다.²²⁾

마태복음(8:28-32)에 따르면 예수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에게 소리를 지른다. 여기서도 귀신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8:29)이라고 고백한다. 흥미롭게 여기서 귀신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라고 항의한다. 귀신들이 예수에게 “만일 우리를 쫓아내려거든,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라고 간청하자, 예수는 허락한다. 돼지 속으로 들어간 귀신들은 돼지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 몰사하고 말았다. 여기서도 예수가 먼저 귀신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그에게 말을 건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괴롭히던 귀신들은 사람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의사가 오면 병자들이 나타나듯이, 구원이 가까우면 과멸도 반드시 드러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들도 드러나며, 질병에 사로잡혀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 세계가 드러난다.²³⁾

귀신 들림과 귀신 추방의 현상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고대 사회에서 귀신 추방은 매우 흔한 현상 가운데 하나였고, 그래서 귀신의 존재도 매우 자명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귀신 추방의 행위는 매우 비밀상적이고 이질적인 것으로 느껴진다. 귀신 들림과 귀신 추방의 현상을 현대 의학을 통해 설명하고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현대적 세계관의 틀에서 현대인은 귀신 들림의 현상을 대개 다른 설명이 필요한 어떤 상태에 대한 원시적이고 과학 이전의 설명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현대인은 귀신 들림을 하나의

21) J. 몰트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 160 이하.

22) 같은 책, 158.

23) 같은 책, 157.

정신병리학적 상태로 본다. 귀신에 들렸다고 믿는 허황한 상상도 그런 증상에 포함된다. 언젠가 귀신 들림의 현상을 정신병리학적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귀신 들림의 현상은 1세기에 팔레스타인 사회의 특징이었던 정치적 억압이나 사회적 착취, 급격한 사회 변동과도 무관하지 않다.²⁴⁾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사회체제의 구조들 속에서 객관화된 “공동정신”(Gemeingeist)은 의심할 나위가 없이 마귀적인 특징을 가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을 억압하고 정신착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병자를 그의 삶의 역사 안에서 보고 그의 삶의 역사를 사회의 역사 안에서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고대의 신화적이고 마술적인 사고에서 질병과 악마를 결합한 것은 질병을 이런 방향으로 보려던 시도였다.²⁵⁾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귀신은 분명히 생명을 파괴하고 존재하는 것을 폐기시키는 세력을 인격적으로 표상된 것이었다. 귀신에 대한 고대의 인격적 표상에 따르면 귀신은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다.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탄”, 곧 고발자로 불리며, 인간 세계와의 관계에서는 “악마”라고 불린다.²⁶⁾ 예수와 동시대의 사람들은 귀신 들림을 실제적인 현상으로 생각했고, 귀신의 실재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를 적대시한 사람들도 예수의 귀신 추방의 행위가 악한 권세의 도움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다.”(막 3:22) 비록 예수를 정통에서 벗어난 마법사로 비난했던 예수의 적대자들은 예수의 능력을 경멸하고 예수의 능력의 근원을 어둠의 세력 “바알세불”에게 돌렸지만, 그들은 예수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았다.²⁷⁾

그들의 비난에 맞서 예수는 자신을 통해 나오는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확실하게 말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 12:28; 눅 11:20) 예수는 자신의 귀신 추방의 행위를 “강한 자”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결박과 정복을 당하는 신호로 보았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막 3:27)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카리스마적 인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통해 힘차게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했다.²⁸⁾

예수는 치유자로 이름을 널리 떨쳤다. 복음서는 귀신 추방과 질병 치료를 구분한다. 그러므로 모든 치료 행위가 귀신 추방 행위는 아니었고, 모든 질병이 악령에 사로잡힌 결과는 아니다. 복음서에는 치유의 행위가 귀신 추방의 행위보다 더 자주 나온다. 예수가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한 소경, 앓은뱅이, 나병, 귀머거리 외에도 공관복음서는 열병, 중풍, 손이 오그라든 것, 등이 굽은 것, 혈루증, 병어리, 수전증, 귀가 잘려나간 것, 죽을 병을 말한다. 이것은 예수가 고친 질병을 전형적으로 소개한 것이지, 예수의 치유 행위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없다.²⁹⁾

예수는 어떻게 질병을 치료했는가? 첫째, 예수는 말씀으로 질병을 고쳤다. 예수는 손이 마른(오그라진)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라고 말했다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막 3:5) 둘째, 예수는 접촉을 통해 질병을 고쳤다. 나병환자가 왔을 때, 예수는 그에게 손을 대고 고쳐주었다.(막 1:41) 셋째, 예수는 물리적인 수단을 통해 질병을 고쳤다. 귀먹은 자를 치유한 사건에서 예수는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댔다.(막

24) M. 보그, 앞의 책, 94.

25) J. 몰트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 164.

26) 같은 책, 159.

27) “바알세불”이라고도 불리는 “바알세불”은 사탄의 이름으로서 “똥의 주님”, “파리들의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다. M. 보그, 앞의 책, 95.

28) 같은 책, 96 이하.

29) 같은 책, 98.

7:33) 눈먼 자를 치유한 사건에서도 예수는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했다. 다섯째, 중풍병을 치유한 사건(마 8:13; 막 2:5)과 혈루증을 치유한 사건(마 9:22)에서 예수는 간청하는 자의 믿음을 보고 질병을 고쳤고, 가나안 여자의 딸을 치유한 사건(막 15:28)에서 예수는 그녀의 끈질긴 간청을 보고 질병을 고쳤다. 이처럼 어떤 경우에는 특히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들의 질병을 고칠 수 없었다.(막 6:5-6) 예수와 그를 믿는 자들의 믿음의 상호작용은 치료의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한 사건(막 9:17-27)에서 예수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한다. 여기서 예수가 환자의 믿음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³⁰⁾

그러나 어떤 방법을 통해 치유 기적이 일어나든, 치유의 근본 원인은 환자의 믿음이나 의지가 아니라,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의 권능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행 1:8)라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서 예수의 모든 치유 기적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의 권능을 통해 일어난 것이었다.³¹⁾ 이러한 사실은 예수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도 분명히 입증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

그러나 예수는 단지 자신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만 질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과 무력함을 통해서도 질병을 고쳤다. 예수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도 질병을 치료한다. 이사야의 말 (사 53:5)처럼 하나님의 좋은 채찍을 맞음으로써 우리를 낫게 하고, 상처를 입음으로써 우리의 병을 고쳐준다. 구원을 죽음의 극복과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로 이해하는 포괄적인 구원 의미에서 볼 때, 질병 치유는 예수의 상처를 통해 일어난다.³²⁾

30) J. 몰트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 166.

31) M. 보그, 앞의 책, 99 이하.

32) J. 몰트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 163 이하.

한국의 전인치유 생명선교 목회 복내전인치유선교센터

이 박 행 원장

복내마을 천봉산 골짜기에는 보슬비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온종일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안개 가루처럼 어찌나 곱게 내리는지 곤히 자고 있는 아이를 조심스레 깨우는 엄마의 목소리처럼 느껴집니다. 겨우내 잠자던 대지를 깨우는 장엄한 재창조의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모든 풍경이 아름다워 눈길이 닿는 곳마다 한 폭의 수채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현관 앞에 앙상한 나무였습니다. 모든 가지마다 빗물이 알갱이가 되어 영롱하게 맺어 있었습니다. 빗물과 거기 서 있는 나무와의 만남. 비록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는 아니지만 신적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요? 우연인 것 같으나 생명탄생을 위한 운명적인 조우(遭遇)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남은 사랑으로 이어지고, 사랑은 생명을 낳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만남의 결과물입니다. 자연 속에 새겨진 신의 지문(指紋)을 통해 생명의 신비를 발견해가는 일은 우리 곁에서 속삭이는 하나님의 현존을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1. 천봉산 골짜기, 환우의 작은 천국

복내전인치유선교센터는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천봉산 깊은 산자락에 있습니다. 천봉산은 에덴동산의 원시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청정지역입니다. 바람 한 자락, 햇빛 한 줄기가 평화롭기만 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말기 암 환우들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희망을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강조되고 있는 생태신학과 사랑의 실천을 접목시킨 실험적인 현장이기도 합니다. 제 자신이 간경화로 건강을 잃고 들어와서 1995년에 개척하였으니 올해로 22년이 되었습니다.

복내는 수려한 주암호수와 울창한 산림에 둘러 쌓여 있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장소라 하겠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지나가는 차가 몇 대 없을 정도로 고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런 곳에서 전인치유의 꿈을 꾸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생태마을 개념으로 조성된 치유센터는 숙소와 교회, 산책로, 표고버섯 및 채소 재배지, 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숙소의 경우 숲, 천일염, 황토 등을 사용해 바닥을 만들고, 맥반석으로 특수 제작한 침대, 환경호르몬 발생을 억제한 목재가구로 채워져 있습니다.

1995년부터 이제까지 암재활의 표준을 만들고자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암 재활을 위한 심신이완 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예술요법, 영성치료, 온열요법, 생활요법을 각 병원들과 연계해서 실행해 왔습니다. 100차례 넘게 암환우를 위한 전인치유 세미나와 전문가를 위한 전인치유 포럼을 개최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의료계나 종교계의 암 재활 요양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많은 오해를 받았으나 이제는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줄기 소망의 빛을 바라면서 찾아온 암 환우들을 위해 ‘복내전인지유교실’을 기획하여 전인건강에 대한 강의, 성경 강해 및 통독, 찬양과 기도와 명상, 즐거운 놀이와 노래 부르기, 영화 감상과 작은 음악회, 우리 입맛에 맞는 자연 건강 식사, 황토물감 들이기, 환우들에게 맞게 고안된 규칙적인 체조와 산책 그리고 풍욕, 황토 및 맥반석 찜질, 표고 버섯 및 유기농 야채 재배, 솔잎 채취 및 효소 만들기, 개별적인 상담으로 환자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남대 화순 암센터와 광주기독병원, 한국누가회 그리고 건강관련 전문가들이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암환우를 돌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첫째, 참된 생명의 가치를 깨닫도록 돕는 영성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둘째, 창조질서에 순응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체득시켜 자연치유 면역력을 강화시키도록 합니다. 셋째, 전인격적인 치유를 위해 다양한 문화 예술적 활동을 생활화합니다. 넷째, 양, 한방을 비롯한 현대의학과 보완통합의료의 적절한 도움을 받게 합니다. 다섯째, 사랑의 공동체생활을 통해 지상의 천국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즉 교회의 영적인 기능과 병원의 치료적 기능을 천혜의 자연 조건 속에서 공동체적 생활영성으로 조화시켜 전인적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선교학자인 랄프 윈터 박사가 2005년에 내한해 제5회 한국선교지도자 국제포럼에서 발제했던 12개의 ‘전방개척(frontiers)’ 사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는 암을 비롯한 불·난치 질환에 대해 선교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예언적인 통찰을 언급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지도자들은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그는 단호하게 미래의 선교 영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는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하나는 ‘말씀의 책’이며, 또 하나는 자연이라고 부르는 ‘창조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지도자들과 과학적 지식인이 서로의 영역에 대해 배척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했습니다. 결국, 창조의 책을 해석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을 소홀히 할 때 과학적 세계관에 익숙한 자들에 대한 선교의 문은 닫힐 것이라고 심각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미 안식교를 비롯한 타 종교들은 질병을 매개로 포교 활동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선교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친히 환자들을 고치셨고,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셨던 전략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나라의 확증과 확장에 가장 교과서적인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개신교는 영육 이원론에 갇혀 인간을 전인적으로 보지 못한 채 영적인 구원에만 매달려 있는 형국입니다. 몸을 영혼과 육체로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육체도 하나님의 피조 작품입니다. 또한 거룩한 성전이기에 때문에 생명의 원리를 따라 훈육해야할 책임이 교회와 신학교에 있는 것입니다. 생활신앙을 실천하려는 개혁신학도 결국은 몸의 영성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생활영성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생명체에 성경적인 원리를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인지유적인 통합의료 사역은 개신교 내에 모델이 없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무모하기도 했고, 개척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분야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결실을 조금씩 맺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인건강학회 창립대회(2007.5)에서 암 재활의 표준으로써 복내가 선정되어 사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호스피스 사역단체들도 넓은 의미의 전인지유적인 돌봄 사역으로 범위를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정책에서도 통합적인 암재활 서비스 지지 분야가 공식적인 실행 영역으로 채택되어 지역 암센터를 거점으로 시스템

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센터가 주관하는 <천봉산 자연건강문화 한마당>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추천하고 문화관광부가 선정되어 지역주민들과 교회 그리고 관심있는 분들 350명이 모여 뜻깊은 모임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2009년에는 암 관련 민간단체 최초로 전남대 암센터와 의료협력 체결을 맺었고, 이 사역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되어 급기야는 한국 교회 호스피스 협회가 한국교회 호스피스·전인치유 협회로 개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임을 발족하는 첫 모임에서 주제 강의를 할 때에 실로 감회가 깊었습니다. 통합적인 암 재활 정책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이 방문하였고, 국립암센터 연구 책임자도 암재활 센터 모델 연구차 내방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관련된 국립암센터 암재활 관련 연구 프로젝트의 자문위원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역 초기 시절부터 신학적 교류를 나누어 온 노영상 교수는(숭실사이버대학 이사장) 복내 현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기서 신학과 의학이, 과학과 종교가, 신앙과 실천이, 마음과 몸이, 목사와 의사가 만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선교계의 큰 어른이신 이태웅 박사(전 GMTC 원장)는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선교 자원이 될 것”이라며 과분한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김정남 교수(전 한국지역간호학회장)는 “우리나라 치료 모델 중 최고”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승장 목사(학복협의 상임회장)도 복내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고 독특한 사역 형태”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왜 암 환우들이 생활하고 있는 작은 공동체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큰 관심을 쏟는 것일까요? 아마도 사역 철학이 기존의 교회나 병원이 갖고 있는 고정된 사고와는 달리, 인간에 대해 전인적이고 생태적인 접근을 통한 질병에 대해 근원적인 문제 인식과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2. 급증하는 암을 비롯한 생활습관병

우리나라에는 암을 비롯한 생활 습관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암은 수십 년 동안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 투병 중인 암 환자가 16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는 국립 암센터의 암 발생 예상치를 훌쩍 뛰어 넘는 수치입니다. 40대 이후 암 유병율은 50%에 이릅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비롯한 각종 대사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00만 명이나 됩니다. 주의력 결핍증(ADHD),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넌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결과 정신질환 유병율은 25.4%로 나타났습니다. 1년 유병율은 11.9%로 집계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약 470만 명이 정신질환을 겪었습니다. 아토피, 비염 등 면역성질환 등의 환경성 질병으로 고통 받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초고령 사회의 노인성 질환은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곳곳에 병원과 약국이 들어서 있고 수많은 의료인들이 매년 배출되지만, 국민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질병공화국이 된 주된 이유는 창조주의 질서를 떠난 식생활습관과 운동 부족이며, 무한 생산과 소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무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입니다. 아울러 생활 전반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독소 요인이 증가하여 몸의 면역력은 더욱 약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공동체인 가족과 마을의 해체로 고독해진 영혼의 몸부림이 질병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이와 같이 총체적 발병 원인에서 기인하지만, 건강 관련된 전문가들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관점에서 생명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할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습

니다.

주요 암 발생요인을 보면, 흡연, 음주, 식생활(과다지방섭취), 비만, 감염(간염), 환경오염, 운동습관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위암이 서구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쌀밥 위주의 식사, 절인 음식의 잦은 섭취, 소금의 과다 섭취 등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암과 관련된 병원과 약국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늘어 가고 의학정보도 범람하고 있는데, 왜 암 환자는 늘어만 갈까요?

근본적으로 암은 인체의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 유전자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유전자 병, 즉 DNA병입니다. 즉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이것이 치명적인 결함으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암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 속에도 존재합니다. 하루 수백 수천의 암세포가 모든 사람의 신체 내에서 발생하고 소멸됩니다. 이 모든 암세포가 병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포가 정상생리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세포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건강한 상태가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병으로 발전합니다.

살아있는 세포는 끊임없이 ‘유전자발현’을 하고, 세포의 주인인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도 변화를 거듭합니다. 이에 따라 유전자의 염기서열도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변이세포를 배출해 냅니다. 변이세포가 많아져 세포 내에 독소를 방출하면 인간 DNA복구유전자(Human DNA Repair Gene)가 잘못된 DNA를 복구해 세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합니다. 게다가 인체에는 암세포를 적발하여 공격하는 특정백혈구(NK세포, T세포) 들도 있습니다. 매일 형성되는 암세포들은 특정백혈구의 공격을 받고 분해되거나 2mm정도 크기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최근 들어 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현대인들이 예전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염기서열이 쉽게 교란되고, 그것을 수리해야 하는 DNA복구유전자도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의 염기서열은 마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음의 주인인 창조주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바르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창조주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세속적인 욕망과 불안,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생존경쟁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율, 산업재해 사망율, 가계부채, 이혼증가율, 어린이·청소년 불행지수, 당뇨·심근경색증·대장암·남성 간질환·중년 여성 사망률 등 50개 분야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 재앙 수준에서 스트레스를 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안은 창조질서와 사랑의 원리에 입각한 생활습관으로 되돌아 와야 합니다. 암을 예방하거나 극복하려면 우선 오염된 도시를 떠나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직접 농사를 지어 먹는 생활방식이 가져오는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암은 창조주가 만드신 에덴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그분의 초대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3. 통합적인 암 재활 휴양 필요성 대두

최근, 암 발생 시 수술과 항암, 방사선 표준치료 이후에 전문적인 암 재활 요양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투병중인 암 생존자는 대략 16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암의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재고해야 한다는 반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진수 전 국립암센터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96년부터 국가 암관리 사업을 통해 암 조기검진 사업이 활발해지고 국민들의 암 검진 인식이 향상되면서

5년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앞으로 암 발생률과 생존율 모두 증가할 것에 대비해 암 생존자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제는 암 예방과 전이 억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재활에 대해 연구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대개의 경우 수술과 항암 및 방사선 등 현대의학의 도움을 통해 1차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항암치료로 암세포를 꺾어낼 때 정상세포도 함께 고통을 받기 때문에 삶의 질은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치료가 끝난 후에도 전이나 재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우선 병들 수밖에 없었던 생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전인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마음과 육체, 영혼의 상태를 교정시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습관을 길들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인건강 교육, 자연건강식사, 규칙적인 산책 및 운동, 마음관리, 가족관계 훈련 등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목적을 재점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영성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효과적인 암 재활을 통해 전이가 억제되고 재발이 방지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건강한 생활문화로 바꾸어 암 발생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암 재활 요양을 통해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고통을 경감시켜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치료를 마친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생활치료를 위한 휴양인프라가 생활밀착형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암 재활을 위해 숲이 우거진 자연에서 휴양을 하는 일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이미 독일과 일본에서는 산림치유와 관련된 연구 성과물을 토대로 보건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각종 매스컴의 홍보에 힘입어 산림청에서는 대학병원과 연계하여 산림치유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일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림을 배경으로 한 요양마을 구축을 위한 법령정비를 진행 중입니다.

숲이 지닌 인간 건강 증진 및 질병 치유의 기능을 최근에는 생리적, 심리적 지표를 통해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숲은 인간 심신의 치유에 보다 집약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화된 생활 속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숲에서 심신의 쾌적함을 느끼고 이를 인체 면역력이 향상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질병이 예방되어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하여 ‘산림치유(Forest healing)’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림치유는 그동안 삼림욕으로 대표되던 산림이 지닌 건강 증진 효과를 한 단계 진보시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산림치유 활동을 ‘산림테라피’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보건 복지 분야에 있어서 암 재활에 대한 법제정이 없거나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 보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지나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치유선교 역사는 정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먼저 시작해 왔습니다. 한센병, 결핵 등을 퇴치하기 위해 손양원 목사님 같은 신앙의 선각자들이 몸부림쳐 온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한국교회 이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재정을 투입하고, 사람을 길러내야 합니다. 치유선교에 대한 자원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일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교단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전인치유 요양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전인치유센터를 지역별로 건립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지역교회들과 네트워크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 실천하는 영성 훈련을 받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선교사님들에게서도 암 재활이 필요한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이들을 위한 선교 후방기지 구축차원에서 휴양센터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신학대학원 과정에 암을 비롯한 불난치 질환에 대한 전인적인 임상목회 과목을 개설하여 기존의 기독교병원들과 연계, 의료의 현장에서 임상 실습하는 과정을 전공필수로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복내와 같은 자연 중심의 생활습관을 체득할 수 있는 훈련과정도 필요합니다. 전인지유 목회에 대한 좋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역의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4. 복내전인지유선교센터 현장 REPORT

1) 자연건강식

8시, 우리 입맛에 맞는 자연 건강 식사를 합니다. 오랜 투병생활로 입맛이 떨어진 환우들이 매끼마다 다양한 음식을 섭취해 체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며, 올바른 식사법을 지도합니다. 환자들의 좋은 식탁을 위해 일체의 화학조미료 대신에 천연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체 생산한 농산물이나 저공해 건강식품, 고품질 재료를 구입해서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면역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지나친 육식을 피해야 합니다. 하와이의 일본인이민자들의 암 발병률은, 특히 본토인들에 비해 대장암 5배, 전립선암 11배, 자궁암 12배, 유방암 3.5배, 난소암은 3배나 높았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비타민 A, C, E 등 항산화제가 들어 있는 과일, 채소, 통곡류, 견과류, 씨앗 등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인돌이라는 성분이 있어 유방암 위험률을 감소시켜 줍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끓일수록 항암물질이 과열됩니다. 단 항암과 방사선 치료 중에는 단백질 손실이 급격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물류를 중심으로 단백질 공급을 적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각종 콩과 견과류는 사포닌이라는 항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합니다. 마늘과 양파에 있는 알리닌이라는 물질은 발암물질의 작용을 막습니다. 딸기, 산딸기, 토마토, 당근, 견과류 등은 페놀산(phenolic acid)이 함유되어 담배 연기나 매연 때문에 생기는 DNA 손상을 감소시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메주콩과 두부는 이소플라본(isoflavone)이라는 보약 성분이 있어 암세포가 끊임없이 분열하는 것을 막아 준다. 체리나 오렌지과 과일들 속에 있는 테르펜(terpene)이라는 항암물질은 췌장암과 유방암 덩어리를 사그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식과 육식에 대한 논쟁은 아주 오래된 주제입니다. 양쪽의 주장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은 단순히 신체에 영양소와 무기질을 공급하는 동물사료와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채식과 육식을 조화 있게 먹되 체질에 따라 먹고,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에모토 마사루가 그의 책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 밝힌 것처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물 분자 구조가 바뀝니다. 우리의 몸은 70퍼센트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마음의 상태는 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인체에 위대한 변화를 가져온다. 먼저 뇌파를 안정시켜 깊은 호흡을 유도합니다. 이 때문에 소화기능이 강해지고 내분비계의 호르몬 분비가 정상유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각종 장기는 음식물이 마지막 배설될 때까지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식사가 여의치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죽이나 미음 등의 대용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암과 방사선 치료 중의 환자들은 단백질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영양치료 차원에서 집중적인 관리를 합니다. 항암치료 후의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해독기능이 있는 생약과 음식을 집중으로

투여하기도 합니다.

식생활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병의 원인이 잘못된 식습관에 연유하기 때문에 생활습관의 교정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병을 고치시기도 하지만 명철과 지혜로 병에 대한 바른 지식과 삶의 태도를 교정하심으로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식생활 개선은 가장 중요한 생활치료의 출발입니다.

2) 음악치료

암환우들의 식단을 작성할 때에 빠트리지 않는 메뉴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된 모차르트 피아노 곡입니다. 진공관 앰프와 LP판을 이용하여 가장 자연에 가까운 음악을 들려줍니다. 산책할 때도 암환우들은 모든 산책로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두뇌 건강이 좋아질까요? 도대체 어떻게 귀가 없는 식물이나 미생물에게까지 소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모든 세포는 75%~90%의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리에 의한 공기 진동이 그 세포내의 수분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음악이 흐르는 상태에서 물의 결정을 만들면 그 곡에 따라 결정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리의 파동이라는 것은 물에, 그리고 세포에 깊은 영향을 주며 이는 인간의 세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는 파동의 형태로 귀를 통해 뇌까지 전달되는데 실제로는 뇌뿐 아니라, 약 60조억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몸 전체에서 그 파동을 통해 무엇인가를 감지하게 됩니다. 음악을 듣는 것은 세포전체가 음악으로 샤워를 하는 것과 같아서 몸과 마음의 기운을 원활하게 순환시켜 줍니다. 특히 3500Hz~4000Hz의 고주파음과 파동효과가 풍부한 모차르트 음악은 부교감 신경이 분포하고 있는 연수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음악이 연수에 연결된 안면신경이나 설인신경에까지 영향을 미쳐 침이나 눈물의 분비를 촉진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침과 눈물 속에 있는 면역 물질 IgA 항체와 병원균을 용해하는 효소 리소자임(Lysozyme)의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고, 눈이나 입으로 침입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를 격퇴하는 힘도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차르트 음악효과의 권위자인 일본의 와고 하루히시는 우선 피실험자에게 모차르트 음악을 약30분간 들게 한 후 앞에서 말한 침에 함유되어있는 IgA항체의 양과 혈중 림프구의 변화 및 기능을 조사했습니다. 실험 결과 개인차는 있었지만 대부분 모차르트 음악을 들은 후 IgA항체의 양이 전보다 1.5~2배 이상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혈액을 순환하는 림프구의 수도 급격하게 늘고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루어진 실험에서는 모차르트를 들은 뒤 암세포를 공격하는 내추럴킬러세포가 늘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혈액 속 호르몬 중에서는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감소해 있었습니다.

항암치료로 인하여 모든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침이 마르는 현상입니다. 연수에서 간뇌에 걸친 뇌간부는 안면신경이나 침샘을 지배하는데 여기에 음악적 자극이 오면 침이나 눈물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 효과 때문인지 복내에서 요양 중인 암환우들의 식욕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일반병원 입원환자들의 불평사항 1호는 병원 밥은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식사시간 만이라도 음악을 틀어주면 음식불평이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음악은 삶의 질을 고양시켜주는 신의 선물입니다.

플로리다의 빅 벤 호스피스 병원은 음악치료사가 5명이나 상주하면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의료종사자들의 휴게실에 음악요법사가 상주하면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음악요법을 제공해 심신에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환자를 대할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의료 활동이 가능하고 오진 등의 문제도 줄일 수 있으므로 매우 큰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문위원으로 돕고 있는 광주기독병원 내의 암환우들을 위한 전인지유 병동 응접실에는 클래식 음악이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오디오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호스피스 환자의 경우 최후 통증과의 힘든 싸움이 이어지는데, 음악요법이 특유의 완화작용을 함으로써 진통제 투여량을 줄이는 효과도 확실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원봉사자들이 불러주는 찬송가는 최고의 음악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것처럼 음악으로 통증이 완화되면 의식을 또렷하게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닫혀있던 마음도 조금씩 열려 한결 밝은 마음으로 가족들과 의료진과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훌륭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음악요법의 의의는 충분할 것입니다.

3) 전인건강교육

즐거운 노래 부르기에 이어 의료인들이 실시하는 전인건강교육을 받게 됩니다. 건강교육의 목적은 병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투병의지를 강화하여 희망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환우들은 이 교육을 통해서 육체에 대한 바른 이해와 투병생활의 방향을 잡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병든 몸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겠다는 결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교육의 효과는 신앙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분에게 더욱 좋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교육 내용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 생명의 시작, 세포의 구조, 유전자 발현기전, 생명체와 면역계, 현대인의 질병, 몸과 마음의 관계, 창조와 진화, 환경, 간염, 당뇨, 고혈압, 암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로 교육합니다. 최신 의학 이론뿐만 아니라 한방, 자연요법(온열요법, 독소제거) 이르기까지 폭넓은 임상경험들을 환우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인식시켜 식생활개선에 힘쓸 수 있도록 합니다.

때로는 부부생활, 대인관계, 내적 치유, 마음 다스리기, 치유사례 등을 강의합니다. 체질과 음식, 정신 건강, 재활 치료, 음악 치료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환우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론 강의를 마친 뒤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환우 한 분 한 분을 위한 사랑의 중보기도를 합니다. 보호자와 봉사자는 물론 환우들까지 마음을 합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는 믿음의 역사를 배가하여서 치료를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4) 산책과 삼림욕

오전에 푸른 소나무가 반기는 다양한 산책로를 따라서 단체 산책을 합니다. 이곳은 청정지역으로서 도시의 혼탁한 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생동하는 자연의 생명력을 눈으로 보면서 빠른 걸음으로 몸을 움직입니다. 얼마 정도를 걷다 보면 체내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약간의 땀이 나면서 노폐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운동 강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최대운동능력을 100으로 잡으면 고강도 운동은 그것의 90, 중강도 운동은 70, 저강도 운동은 45 상태입니다. 강하고 짧게 하는 운동보다 약하고 길게 하는 운동이 체력의 7요소(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평형감각, 유연성, 순발력, 민첩성)를 기르는 데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

구 결과 고강도 운동은 활성산소를 다량 생성시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걷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운동 요법입니다.

운동의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첫째는 뇌 속에서 쾌감 호르몬들을 분비하게 하여 기분이 좋아집니다. 둘째는 혈관 벽에 붙어 대기하고 있는 면역체들을 활발하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운동을 안 하면 면역체계가 활발해질 수 없습니다. 면역체가 활발할 때, 면역체 T-림프구가 암세포를 송곳 단백질로 터트릴 수 있습니다. 셋째, 에너지 공급이 활성화되므로 체력이 강해져 암을 투병하는 데 훨씬 수월해집니다. 넷째, 걸으면 우뇌가 활성화되어 좌뇌 중심의 긴장된 생각이 풀어집니다. 이때 웅어리진 가슴의 언어가 쏟아지면서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수고와 동료 환우들의 세밀한 산책 지도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산등성이에 올라 휴식과 더불어 암반에서 흐르는 생수를 마십니다. 49,0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하버드 보건학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물에 관한 연구 보고를 했습니다. 하루에 6컵 이상 물을 마실 때, 방광암 발병률이 51퍼센트 감소되며, 같은 양의 주스를 마셨을 경우 36퍼센트 정도 감소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물이 주스보다 더 효과적이고 아무것도 안 마시는 것보다는 주스를 마시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로마린다의 대에서는 물과 혈액응고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 물을 8컵 이상 마시는 것은 혈액 응고를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특히 심장병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우들의 상태에 따라 산책 거리가 정해지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환우들이 1시간가량의 산책로를 완주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병원이나 집에서 무기력하게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던 이들에게는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어 환우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한 체조를 합니다. 근육의 긴장과 이완, 호흡능력 강화, 정신 집중 원리에 따라 신체의 면역력을 활성화시켜 주는 과학적인 체조입니다. 특히 깊은 호흡은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호흡이 열으면 그 횟수가 빨라지고, 그 결과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율이 떨어져 몸속에 가스가 축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 산도(PH)가 7 이하로 떨어져 산성화되고 피로물질인 젖산이 쌓이게 됩니다. 이 결과 세포막과 DNA를 파괴하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노화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분당 7-8회를 목표로 복식호흡을 하면 세포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신집중에도 도움이 됩니다.

움직이는 명상(walking meditation)을 하는 자세로 체조를 하면 뇌파는 알파 파장을 발산합니다. 이 파장은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신경전도물질을 분비하게 하여 심신을 안정되게 합니다. 이른 아침에 땅에 집중적으로 깔려 있는 음이온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대개 3,4일 정도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몸에서 새로운 기운이 북돋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발목펌프 운동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균형 있는 좋은 식사와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에 1만보를 걷는 것이 좋겠지만 습관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안된 운동법이 발목 상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매일 하면 현대인의 보행 부족을 해소하고 전신의 혈액과 체액의 순환을 좋게 하며, 누구나 가지고 있던 병이 어느 새 차도를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 의사인 이나가키 선생이 발목의 상하 운동을 생각하게 된 것은 정신 수양을 위해서 산에서 칩거하며 식물을 관찰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바람에 의해 나뭇잎이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본 것이 발목의 상하운동을 고안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수십 미터의 큰 나무가 물을 끌어올려 쭉쭉 자랍니다. 그러나 물리학적 원리로는 곤게서 있는 것만으로 나무는 도관(식물이 양분이나 물을 끌어들이는 관)을 통하여 수십 미터나 물을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식물이 물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은 모세관 현상만이 아니라 잎이 바람을 받는 것에 의해 줄기와 가지가 진동하고 휘는 것에 의해 생기는 물리적 보조기구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때 ‘인간도 어떤 유력한 보조기구가 갖춰진다면..’이라고 생각하고, 하체의 정맥관에 주목하여 인간의 몸과 구조 자체의 그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발목의 상하운동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흥미 깊은 것은 혈액순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정맥 혈관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혈액순환론에 대해서는 1628년에 발표한 윌리엄 하비의 <동물의 심장과 혈액의 동작에 대하여>라는 논문으로서 심장원동력설을 기술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심장(좌심실)에 의해서 가압된 혈액은 동맥, 세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서서히 압력을 줄이면서 흐르고, 정맥에서 우심방으로 돌아오기 직전에는 그 압력이 제로나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체된 혈액은 우심실에서 다시 가압된 혈액에 의해 이동되어 폐에서 가스 교환을 하고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가서, 우심실로 돌아와 다시 가압되어 동맥으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혈액행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밝혀진바, 모세혈관의 기능은 모든 세포와의 가스교환, 양분 보급, 노폐물 회수를 행하는 유일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맥은 일반적으로 전 혈액의 75%가 존재하는 혈액의 저장소이며, 유량(流量)의 조정 기능도 하고 있어 정맥관 작용으로 혈액을 평온하게 환류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나가키 이론에서는 이 정맥의 혈류를 촉진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가장 큰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각 세포의 사실상 외계와의 접촉은 혈액과 체액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지만, 또 하나의 접점으로서 장내의 용모가 있는데, 이 용모는 다른 생물이 합성한 유기물과의 접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불건강 상태에서 일탈하기 위해서는 바로 거기에 있는 유기물을 일소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장내 소화물의 이상 발효나 부패에 의한 혈액과 체액의 오염을 막고, 모세혈관망의 이상적 혈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맥의 혈류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게 되면, 전신의 세포는 이상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며, 기본적으로 일체의 질병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이 이나가키 이론의 핵심사상입니다.

또한 이나가키는 정신안정제나 수면 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면을 전혀 취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이 이론을 근거로 한 운동법을 실행하면 간단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소화기관 중에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의한 체액의 오염과 정맥혈의 환류 불충분에 의한 모세혈관망의 조직액(간질액)의 순환부전에 의해서 뇌 안에 완전히 기능하지 않는 세포가 생기는 결과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울증 치료의 첫걸음은 뇌의 휴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의 피로를 빨리 풀기 위하여 바로 자리에 눕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하반신에 담겨 있던 더러워진 체액은 머리를 돌게 됩니다. 바로 이때 제일 섬세한 뇌의 세포는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이대로 자면 안돼, 몸을 움직여서 신장을 활동시켜 깨끗한 체액을 만들고 나서 잠을 자라.’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불면입니다. 질병의 원인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주로 사지의 정맥 근핍작용의 발현 부족과 체액의 오염에 의해서 ‘방아쇠’가 되어 버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6) 영성치유

영성치유를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영혼은 존재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영혼이 병이 들면 마음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마음은 육체에 분명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의 바탕이 되는 것은 영적 치유입니다. 영의 문제는 인간의 삶의 바탕을 이루며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장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이것은 바른 언약 관계의 회복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유지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질병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이탈 분리되어 적대 관계 속에 놓인 상태를 말합니다. 즉 악령의 지배로 인해 자기 의지와 정욕대로 살아가는 상태입니다(롬 1:21-32). 이러한 상황은 바로 죽음의 상태인데,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은’인간으로 묘사하였다(엡 2:1). 영적 죽음이 영적 질병의 뿌리입니다.

영적 죽음이 영적 질병이라면 영적 부활은 영적 치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화해와 조화이며,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영적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 전인격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영위할 때 가능합니다.

영적 치유의 방법은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제시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중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아담스가 말한 대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과정이 필요합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이며, 죄인인 인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둘째, 성화입니다. 인간의 영적 질병의 요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바로 보아야 하며 죄의 용서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유지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 치유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신앙적 노력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조명하는 자기 성찰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적 치유의 목표는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변화된 삶,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는 삶을 의미합니다.

7) 내적치유

내적 치유는 ‘기억의 치유’과 ‘과거 상처의 치유’ ‘상한 마음의 치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적 질병이란 죄가 들어와 깨어진 원마음이 치유되지 않음으로 겪게 되는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세계로부터 경험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반응의 정도가 정상 수준을 넘어 병리 상태로 와전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내적 치유를 필요로 하는 마음의 상처를 자주 받는데 이 요인들은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이 범한 개인의 죄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강간, 근친상간, 부모의 학대, 알코올 중독자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 등입니다. 둘째, 우리가 죄악 된 세상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로서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사고, 가난, 유전적 질병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 사랑에 대한 욕구를 거절당한 경우입니다. 그 결과는 분노, 거부감, 적개심, 정신적 고통, 불안, 죄책감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이탈된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현재에까지 미치는 그 상처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스러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치유를 위해서 네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첫째는 자기문제에 대한 직면, 둘째는 문제에 대한 인정, 셋째는 자기노출, 넷째는 치유

를 위한 기도입니다. 정신과 의사나 목회자 또는 상담자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상처를 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기노출인 동시에 자신의 실체를 바로 보는 하나의 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적 치유란 단순한 심리학적 상담이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적 치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내적 치유는 스스로 고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또 내적 치유는 예배와 교육, 상담, 찬양, 인간관계 개선, 말씀 묵상으로 가능합니다.

아울러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현대병의 약 80퍼센트가 심인성 질환인 점을 감안한다면, 명상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병의 원인인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치료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에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명상을 깊이 할 때에 약 27가지 신체 변화가 뒤따른다는 과학적인 보고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대자연 속에서 모든 긴장을 풀고 푸른 나뭇잎, 맑은 물줄기, 지저귀는 새소리,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통해서 전해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이내 모든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 자신의 죄와 질병을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상합니다.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등 단순한 기도를 반복 암송하도록 합니다. 명상을 마치고서 흥분한 마음으로 손을 손을 잡고 하늘을 향해 ‘아버지! 내가 여기에 왔어요’라고 외칩니다. 모두의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 가운데에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비니다. 이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면서 공동체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안마와 포옹을 통해서 긴장되었던 몸과 마음을 다 녹입니다.

8) 온열요법

성인의 정상 체온은 36.5도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대부분은 36.5도 이하입니다. 체온의 저하는 만병을 불러일으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팔다리, 허리, 어깨가 결리거나 아플 때, 심신이 피로할 때에 목욕을 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면 대부분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추운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허리의 통증이나 무릎, 팔꿈치 등의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체온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체온이 35도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34도는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사람의 생명이 한계에 도달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경계의 체온입니다. 33도는 사람이 겨울에 산에서 조난했을 때 동사하기 직전 환각증상이 나타날 때의 체온입니다. 30도로 떨어지면 사람은 의식을 잃고, 29도가 되면 동공이 확대되고, 27도 이하는 숨이 멈춘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체온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여름보다 겨울에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감기나 폐렴,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이 일어나기 쉽고, 그 밖에도 당뇨병이나 교원병(류머티즘과 같이 몸의 결합 조직이 계통적으로 침해를 받는 병), 신장병, 암과 같은 병으로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가장 사망률이 높은 시간은 해 뜨기 전의 축시(丑時), 즉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하루 가운데 이 시간대의 기온과 체온이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천식 발작이 일어나거나 아토피성 피부염에서 가려운 증상이 심해지는 것도 딱 이 시간대입니다. 새벽녘에 낮아졌던 체온은 오후 5시쯤까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하루 가운데 가장 낮은 체온과 가장 높은 체온 차이는 약 1도인데, 겨우 1도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

다. 실은 이 1도가 여러분의 컨디션이나 기분 그리고 건강까지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열기 관입니다. 사람은 열로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도 죽지만, 35도 34도로 내려가도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감기나 폐렴뿐 아니라 암 같은 난치병 환자는 단순한 피로만으로도 열이 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열을 내서 체온을 상승시켜 면역력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면역력은 삼십 몇 퍼센트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거꾸로 체온이 저하하면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암세포도 35도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고 39.3도의 체온에서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은 '체온이 높고' 적혈구가 많은 '빨간 아기'로 태어나,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백발'이 되고 '백내장'을 앓고 피부에 '백반'이 생기는 등 서서히 노화하여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눈 색깔이 하얗듯이 하얀색은 찬 색깔입니다. 놀란 일을 당하면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고 말합니다. 우주의 모든 물체가 식으면 딱딱해지는 것처럼 인간도 나이와 함께 근육이 굳어지고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몸의 피부뿐 아니라 체내의 여러 장기도 딱딱해져서 동맥 경화나 심근경색, 뇌경색 등 굳는 병을 앓기 쉽습니다. 암(癌)도 '바위 암(岩)'에서 유래한 말로, 어떤 면에서는 '저체온'의 병입니다. 그러므로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움직여서 열이 높은 심장이나, 적혈구가 모여서 열이 높은 비장에는 절대로 암이 발병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식도, 위, 대장, 자궁 등은 세포가 주변 부위에만 존재하고 가운데는 빈 형태라 열이 낮기 때문에 암이 발병하기 쉽습니다.

사람에게는 개나 고양이와 같이 복슬복슬한 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사람이 열대 지방에서 출연했다고 추측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열대 지방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위를 견디기 위한 체온 조절 능력은 갖고 있어도, 추위를 견디는 데 필요한 체온 조절 능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저체온에 약할 수밖에 없고, 일단 몸이 차가워지면 여러 가지 병에 걸리기 쉬운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다양한 질병을 미리 막거나 치료하는 근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체온을 가져오는 생활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몸을 차게 하는 음식의 섭취, 운동 부족, 마이너스 사고, 욕조에 몸을 담그지 않고 샤워만 하는 목욕, 약의 남용 등이 모두 몸을 차게 하여 '병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열 발생 보조기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TDP 신등 온열치료기, 미쓰이 주열기 등입니다. 매일 반신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수면양말을 신도록 합니다. 음식이나 물은 따뜻하게 데워서 먹도록 합니다. 실내공기를 늘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서로 간에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상담 및 소그룹 치유

건강 상담과 신앙 상담을 통해서 환우 개개인의 영육의 질병을 진단합니다. 이 상담을 통해서 기존 치료가 적절했는지 여부, 양/한방을 비롯한 자연요법의 적절한 치료 계획, 음식 처방, 가족 치료, 영적 치유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의료진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마음의 고충을 내어놓는 것만으로도 환우들은 심리적인 안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병의 뿌리를 쫓아낼 수 있도록 도움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됨으로써 활기를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믿음의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분야의

상담을 마친 후에 환우의 상태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처방을 내립니다. 때로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자신들의 병의 고통이나 상처를 나누며 서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고통을 나눌 때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혼자만의 아픔과 비밀을 나누면서 영혼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해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게 됩니다.

10) 가벼운 노동과 즐거운 소풍

오후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노동을 합니다. 이것은 환우들의 상태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노동으로는 표고버섯 따기, 화단과 채소 가꾸기 등을 합니다. 인간은 삶에 대한 의미를 느꼈을 때 생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됩니다. 노동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돕는 중요한 치료입니다. 꺼져 가는 생명의 심지를 불태워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햇빛과 정신 건강 사이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햇빛을 45분 이상 쬐이면 세라토닌이 분비되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밤에 잠도 잘 오는데 그 이유는 낮에 햇빛을 통해 증가된 세라토닌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변형되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잘 오게 할 뿐 아니라 병든 세포를 수리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망가진 면역체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휴식입니다. 밤일하는 간호사들은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유방암 발병률이 약 2배입니다.

요양 기간 중에 즐거운 소풍을 가기도 합니다. 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보성 녹차밭, 해수 녹차 온천탕, 주암호수, 남해안 바닷가 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소풍날이면 암이나 불치병으로 투병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환자들은 즐거워합니다. 항암 치료 등으로 머리가 다 빠져서 모자를 둘러쓰고 외출을 삼갔던 환우들에게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명곡이라고 해도 심표가 없으면 연주가 불가능합니다. 심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배꼽이 빠질 정도로 한바탕 웃고 나면 환우들 얼굴에 홍조가 돕니다. 웃음은 뇌에 유익한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발생시켜 우울증으로 인하여 고갈된 화학물질을 원상 회복시켜 주는 작용을 합니다. 웃음은 에어로빅과 같이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낮춰 주고 가슴과 복부와 어깨 근육을 수축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경감시킵니다. 웃음은 뇌의 대사에 직접 관여하여 비통한 생각이 전달되는 경로를 대부분 차단시켜 주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웃게 되면 의식이 환기되어 순간적으로 기분이 풀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내전인치유교실 요양 프로그램의 중심 메시지는 현실에 근거한 희망입니다. 일상에서 겪게 되는 상실과 위기, 실패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랑의 힘으로 전인성을 발전시키고 즐길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예배당의 십자가 옆에 걸려 있는 표어가 환우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 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5. 선교사 건강상실로 인해 무너져 가는 선교현장

한국 교회가 과송한 선교사가 27,000명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미국에 이어 선교사를 가장 많이 과송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로는 세계 1위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선교대국입니다. 이전 보다 열기

는 식었지만 선교에 대한 책임감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지로부터 우리를 슬프게 하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선교사들이 건강을 잃어서서 영적 전쟁터에서 무기력하게 버티고 계신 분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위험요소는 매우 다양합니다. 선교지 현장에서 문화 적응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그 나라의 식생활에 적응하는 일은 간단치 않는 것입니다. 불규칙한 생활과 자율적인 사역으로 인해 일과 쉼을 적절히 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께서 안식년을 맞이해 고국에 들어와서도 후원교회와 후원자에게 선교보고를 드리고, 새로운 후원자 발굴에 여념이 없어 재충전하기도 어렵습니다. 장기 휴양이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회나 기관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병은 숨긴 채 선교지로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병을 키워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 사역도 중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부양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더 하나님의 선교 전략에 매우 심대한 차질을 빚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한국교회와 선교계가 머리를 맞대어 선교사의 건강 관리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질병 예방, 진단, 치료, 재활, 휴양 등 “선교사 몸 돌봄”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병후 재활 기간에는 선교사들의 특수한 신분을 감안해 더욱 섬세하고 전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훈련과 경험을 쌓은 사역자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선교전략 중에 최고의 지혜입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베이스캠프가 든든히 세워져 뒷받침해야 하는 이치와 동일합니다. 건강한 선교사들이 건강한 선교현장을 만들고 창조와 사랑의 질서에 입각한 선교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센터는 이사이신 서강석 내과와 협력하여 선교사들에게 무료건강검진을 제공하며, 휴양이 필요한 경우 본 센터에서 전인적인 몸 돌봄 사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세안미션과 협력하여 중증재활이 필요한 선교사를 돕고 있습니다. 바울선교회(이동휘 이사장)는 선교사 파송 전 국내 교육의 일환으로 전인치유 프로그램을 필수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식년을 맞이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선교회(GMS) 소속 선교사 재충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GMS는 100개국에 2375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국내 최대의 선교회로 16개 지역에서 114개 지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을 통해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멤버케어에 위한 공동 노력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예방) 암을 비롯한 대부분의 질병이 개인의 잘못된 생활습관 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적 요인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선교사 후보생은 허입 전 훈련과정에서 전인적인 건강에 대한 이해 및 증진시키는 교육과 실습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관련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위탁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 2) (재활)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병원 치료 이후에 사역 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전인적인 돌봄을 받으며 재활에 힘쓸 수 있도록 전인치유선교센터를 적절하게 이용한다.
- 3) (휴양) 다양한 이유로 탈진된 선교사들이 질병 상태로 악화되지 않도록 전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회복과 재충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 4) (안식년) 국내사역을 위해 귀국하는 선교사들이 디브리핑 후 필요에 따라 전인치유센터에 일정 기간 입소를

권고하여 전인적인 돌봄을 통해 활력을 회복하도록 한다.

- 5) (재교육) 건강은 평생 관리해야 하므로 모든 선교사 재교육 커리큘럼에 전인건강 교육 과정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건강 관리 뿐만 아니라 생명 중심의 통합선교 사역 전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격려한다.

6. 지역과 함께하는 생명농업과 마을기업이 대안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보성 북내면 일봉리는 전형적인 산촌마을입니다. 20가구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은 30명 정도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지 오래 되어 생산노동 인구는 현저히 줄어들고 돌보아 드려야 할 어르신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한 해 동안도 7분의 어르신이 노환으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농촌현실은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농농사 경작으로는 별로 순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000평(20마지기) 농농사 수입으로 연간 5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형편입니다. 이 정도면 대농에 분류됩니다. 한 달 순수익이 40만 원 정도입니다. 직접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연로하신 분들은 대리 경작을 시켜 수를 얻어 생활비에 보태고 있습니다. 지금의 형편으로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더미에 올라앉습니다.

다행히 저희 마을이 산촌생태마을로 8년 전에 지정되어 4년에 걸쳐 산책길, 상수도 정비, 펜션 건축, 저림 배추 공장을 구축하였습니다. 치유센터 산책로 주변으로 편백나무를 식재하여 38만평에 삼림욕을 위한 들레길을 조성하였습니다. 펜션도 꾸준히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소득 창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인 저림배추 공장은 4년 전부터 가동하여 지역 내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저림 배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 소유의 북내마을 영농조합법인을 마을 주민에게 개방하였습니다. 10분의 마을주민들이 출자를 하여 마을기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마을기업은 특정인이 기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1인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특수 관계 친인척이 50% 지분 이상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마을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북내마을 기업은 2015년도에 전라남도 예비형 마을기업에 선정되어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양한 기업 운영과 관련 교육과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경영지원도 받았습니다. 천연식이유향으로 친환경 농자재를 개발하여 특히 출연한 엘바이오텍의 물품과 기술지원을 받아 “유향저림배추”를 생산하였습니다. 일 년 내내 무르지 않는 아삭감과 당도로 소비자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들이 앞 다투어 홍보를 해주었습니다. 주문이 집중적으로 모일 때는 일손이 부족하여 주민 모두가 동원되어 밤샘 철야로 물량을 생산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절임배추 3300박스(1박스 당 20kg/총 66톤)를 생산하였습니다. 배추 및 양념재료 생산농가는 4,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는데, 이는 동일 면적 벼농사 대비 3-4배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계약재배를 하였기 때문에 생산자는 판로 확보 걱정이 없고, 마을기업은 믿을만한 배추를 조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절임 작업을 하신 분들은 1달 여 동안 400만 원 정도의 큰 소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농농사를 일 년 내내 지어 올릴 수 있는 소득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출자하셨던 분들에게는 이익배당을 해드렸습니다. 한편 올해 사업을 구상하는 중에 마을 이장님께서 땅도 장비도 없는 마을 분들에게 자신의 땅에 배추 농사를 지으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배추 재배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성심껏 봉사하시겠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생산이익을 골고루 분배하지는 취지였으니 온 마을 주민들이 인정이 넘치는 공동체가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성 관내 중학생

전원에게 도서를 기증하였고, 관내에 장학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해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마을 분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존 임대했던 공장으로는 물량을 소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6년 행정자치부 마을기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출자금을 추가로 모집하여 절임 배추 및 김치가공 공장을 확장 신축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보성농업기술센터로부터 전통음식개발체험관에 선정되어 우리 밀로 만든 제과·제빵 및 김치 담그기 체험 공간을 설계하여 건축 준비 중입니다. 디자인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의 궁극적 목표는 복내면 일봉리 일대를 유기농 생명농업 단지로 조성하여 믿을만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계약재배를 통해 믿을만한 재료를 확보할 수 있고, 농가 입장에서는 판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혜택은 도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결국은 생명의 선순환을 이루어 공생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을기업 운동은 자본주의 폐해로 갈수록 황폐해져가는 이 사회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대안인 것입니다. 마을을 살리면 작게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크게는 지구를 살리는 일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7. 21C형 전인치유 생명선교 목회 비전

보성 복내 천봉산 골짜기에서 전인치유 사역을 시작한 지 22년.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에스겔의 환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황무지에 집을 지어 사람을 살게 하시고, 주변 환경을 단장하여 에덴동산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즘 복내마을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살롬’을 체험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이 골짜기에서는 매일같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있었던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소망을 회복하여 여호와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파송되었습니다.(겔36,37장) 개척 초기의 어려움을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이 골짜기에 발을 내딛으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십니다.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내마을을 중심으로 생명 회복과 보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총체적인 사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전인치유센터를 좀 더 활성화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인치유교실과 장기 휴양을 통하여 환자들의 육체와 마음 그리고 영혼을 함께 치료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결핍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돕는 일은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양·한방의 현대 의학과 자연 및 전통 요법을 연구·개발하여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전인건강 운동단체들과 폭넓은 협력관계를 맺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이는 병이 든 이들을 돕는 치유목회보다 더 근본적인 일입니다. 나는 이를 ‘예방목회’라고 부릅니다. 자연친화적인 생활의학을 기초로 하며,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인격치유를 그 방법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추수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전인적인 회복을 돕는 영성훈련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감성을 부추기는 체험 중심의 기도원이나 지적인 훈련을 강조하는 제자훈련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안타까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사회는 변하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졌는데 방법은 여전히 옛 것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에 기반한 성경적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특히 기독교 의학 교육을 실시하여

전인적인 교육을 통해 정신을 개조시키는 것입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성경묵상, 기도, 금식, 공동체생활훈련, 노동과 사랑의 봉사·실천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합니다. 심력, 지력, 체력, 영력, 관계회복 등을 자연친화적인 조건에서 실시할 때 효율적인 영성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 성도들이 통전적인 영성훈련을 받아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로 길러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불·난치 환자들을 위한 통합적인 재활요양센터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특히 암 환자들에게는 전인적인 돌봄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시급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호스피스 시설로는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 가운데 소수 밖에 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호스피스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암 치료 초기부터 개입하는 재활과 휴양에 중점을 둔 신 개념의 전인치유병원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은 후에는 친환경적인 재활마을에서 땅과 함께 봉사생활을 하면서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은퇴하신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님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니어타운을 조성하여 노동과 봉사생활을 통해 100세 자급자족 건강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넷째로 영농 법인을 통해 자연 유기 농법을 연구하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복내는 주암댐으로 인해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적이며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한 생명농업과 건강산업을 일으켜서 도시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고 싶어 하는 생태마을을 주민들과 함께 구축하고 싶습니다. 이미 2013년부터 시작된 마을기업을 활성화하여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위의 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전인건강 캠프도 운영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정착되면 대안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미래의 주역들을 키워 낼 꿈도 꾸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출된 인재들이 건강한 나라와 교회 그리고 선교현장을 세워 가는 일에 헌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선교센터를 운영하여 공동체적인 생명선교 정책연구 및 훈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국내외 전인치유선교 지망생들을 선발하여 훈련한 뒤 파송합니다. 아직 남아 있는 미전도 종족들과 동남 아시아 및 이슬람 지역을 효과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의료가 통합된 선교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수 좋은 곳에 자리잡은 기도원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들의 한 해 적자가 수억 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기도원들이 사랑과 봉사를 위한 전인치유 요양원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교센터에서 배출된 일꾼들이 전국과 세계에 흩어져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인건강 운동을 기대하며

지금 현대 사회는 과학문명으로 인해 편리를 누리는 대신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삭막한 인간관계, 물질주의, 전환기의 심각한 오염 등으로 인해 심각한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거리마다 즐비한 병원과 교회들이 황폐해져 가는 현대인들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루어 주지 못하기에 그 안타까움은 더합니다. 앞으로 인간의 이기심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의 악순환으로 고통 받는 이들은 더해 갈 것입니다.

전인건강운동의 최종 목표는 고통당하는 이웃을 진정으로 돌아보는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자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하는 생활문화를 개혁하고

사회와 환경의 건강회복을 위해서도 관심을 넓혀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광범위한 일이기 때문에 각 분야의 건강 관련 전문가들이 겸손하게 연합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생명의 총체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라도 다시 본질인 ‘생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하는 궁극적 가치는 통전적인 영성을 통해 생명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간의 교만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을 비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실천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총체적으로 이 땅 위에 임하기를 바라며 사랑의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황량한 들판이라도 교회가 한 곳 세워지면 마을과 주민들 그리고 환경에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전 인치유사역을 통한 생명선교목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통해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창조’와 ‘사랑’으로 생명의 향연이 펼쳐지는 조국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샬롬이 모든 사람과 민족 그리고 피조세계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생명신학포럼 2부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본 생명론

김은혜 교수(장로회신학대학, 기독교와 문화)

생태계의 위기와 한국교회 책임

송준인 교수(총신대학, 서울청량교회)

한국교회 생명운동 현장 사례

유미호 실장(한국교회환경연구소)

생명문화형성을 위한 기독교의 생명이해와 여성신학적 대안

김은혜 교수

인류는 지금 전환기에 서 있다. 세계가 하나 된 지구촌 시대의 시급한 과제는 ‘더불어 삶’이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인종과 인종이 동양과 서양이 남성과 여성이 다름을 수용하며 평화를 정착시키는 상생(相生)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모든 다른 생명과도 공생(共生)하고 생명이 없다고 간주되는 무생물하고도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하는 21세기에 분명 화두가 되는 것은 생명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속화 되어가는 생태계의 파괴와 인간의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는 경제적 세계화(Economical Globalization)와 4차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한 정보와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의 위기의 인식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강간, 낙태, 자살, 테러, 폭력, 학살, 하루 밤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수많은 생명들이 테러와 전쟁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다.

자연계에는 하루에도 천문학적 수의 생명체들이 끔찍하게 죽어가고 수많은 종들이 무참하게 사라지고 있다.¹⁾ 이것은 날로 악화되어 가는 경제적 부정의에 의한 인간고통의 극대화와 정보기술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생태계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물학적 생존조건이 근원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을 21세기 최대의 산업으로 생각하고 생명마저 경제 가치로 환원시키고자하는 시도는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에 근원적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는 무한경쟁과 시장의 논리를 앞세워 가난하고 힘없는 생명을 담보로 반생명문화를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생명의 위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근원적이며 생명의 존엄성은 크게 손상 받고 있다. 이처럼 21세기에 생명의 문제가 핵심적 화두가 되는 것은 이 시대가 단위 문명의 전환이 아닌 인류 문명의 전체의 대전환기임을 보여주는 현상들이 곳곳에 나타남을 주목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생명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규명하고 최근 생태신학과 생명신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독교의 생명이해를 토대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반생명문화현상을 분석하여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전회하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을 여성 신학적 관점에서 제시하려고 한다.

1. 생명의 정의와 관계의 중요성

생명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는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면서 가장 어려운 물음이기도하다. 생명이라

1) 과학자들은 1980년 중반 이후부터 연간 4만-5만종의 생물들이 인간 때문에 멸종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환경운동가들은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100년 뒤에는 약 3000만 종 가량으로 추정되는 지구의 생물종 가운데 절반이 사라지며 호모 사피엔스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중앙일보 2004/3/6)

는 말은 최근에 일상생활 뿐 아니라 학문적으로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같은 분야에서도 학자마다 관점이 다른데 그것은 생명의 정의가 깊고 넓으며 한 관점에서 간단히 표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철학적이고 종교적 입장에서 주로 논의 되어왔는데 최근에는 유전 공학을 통해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현상의 핵심 물질인 DNA의 구조해명은 물론 그런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오늘날의 첨단 과학 기술도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완전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²⁾ 특별히 생명철학을 전개한 한스 요나스는 서양철학이 데카르트 이래로 생명체를 기계처럼 여기는 근대의 자연과학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아 생명에 대한 일면만을 강조하는 기계론적 생명관을 발전시켜왔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생명을 ‘살아 있는 생명체’로 볼 것을 강조하면서 생명이 지닌 철학적 특성으로 ‘전체성, 연속성, 초월성을 말한다.’³⁾ 즉, 생명은 ‘살아 있음’에 근거해 있다. 살아있음의 특성을 추상해낸 개념이 바로 ‘생명(life)’이다. 즉, 생명의 정의는 철학자들에게도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되는데 생명은 대체로 살아있는 것(생명체, 생물)과 살아있지 않는 것(무생물)을 나누는 기준, 즉 목숨을 의미하며 생물의 생활현장에서 추출해 낼 수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말한다. 생명에 대한 정의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자 로위(W. Rowe)는 생명의 세 가지 특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첫째, 생명은 대사(metabolism)의 특성이 있어야 한다. 즉 생명체는 주변으로부터 자유 에너지를 흡입하여 이를 자체 유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생식(reproduction)의 특성이 있어야 한다. 즉 생명체는 개체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한 복제능력을 가져야 한다. 셋째, 진화(evolution)의 특성이 있어야 한다. 진화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세대를 거쳐 가며 변이와 선택에 의한 적응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다”⁴⁾ 그러나 하나의 생명체에게 이 모두를 적용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정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 뿐 아니라 철학과 신학에 까지 폭넓은 연구를 통한 학문 간의 대화가 요청된다.

로위의 생명정의를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장희익은 관계성을 포함시켜서 우주적 생명개념을 제안하는데, 생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사, 생식, 진화 외에 협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⁵⁾ 즉 관계 자체가 생명체를 개체생명 되게 해주는 하나의 상위개체로 간주하는데, 그는 이것을 온 생명이라고 하고 온 생명에서 낱생명(개체생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생명(co-life)이라 부르며 이것은 이른바 환경에 해당하는 개념이 된다. 온 생명의 개념은 온 생명 안에서 보생명과의 관계 속에서 낱생명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한다.⁶⁾ 이와 유사하게 심층생태학(deep ecology)에서도 세계는 근본적으로 상호연결 되어 있고 상호의존적 현상들의 연결망으로 본다. 즉 모든 생명현상을 중시하는 온 생명 개념과 심층생태학의 생명이해에는 “생명의 그물”(the web of life)속에서만 가능하기에 인간 중심적 그리고 개체 중심적 관점과는 양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생명의 온전한 이해는 연결망, 즉 개체 생명들 간의 관계성의 중요성을 인식 할 때 가능해진다.

이러한 심층생태학이 표방하는 총체적 생명관의 예로서는 서구에서는 네스(Naess), 세션(Session), 캐리콧(Callicot) 등으로 대표되는 심층 생태주의자들의 생명관과 러브록의 가이아(Gaia)생명론⁷⁾을 들 수 있고 장희익의 온 생명론⁸⁾, 김지하의 한울림 생명론⁹⁾, 한면희의 기(氣) 중심적 온 가치론¹⁰⁾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2) 김영선, 생명과 죽음(서울: 다산글방, 2002), 17.

3) 심용만, “기술공학 시대가 지향해야 할 생명철학,” 철학(제 72집, 2002 겨울), 197-200

4) G. W. Rowe, Theoretical Models in Biology(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103.

5) 이찬수, “관계, 생명, 신학,” 한국기독교신학 논총, 30집(한국기독교학회, 2003), 606.

6) Ibid.

7) Lovelock, J. E. Gaia: A Look at Life on Earth(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8) 장희익, 삶과 온 생명(서울: 솔, 1998), 201.

9) 신승환, '생명(철)학과 선언 사이,' 계간사이, 2003 가을

10) 한면희, 환경윤리(철학과 현실, 1997)

러한 총체론적(holistic)이고 관계론적(relational)인 생명관의 일반적 특징은 때로는 생태계 전체, 때로는 지구 전체, 또는 물리적 우주전체, 또는 존재전체를 단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데 있다.¹¹⁾ 그런데 개체 생명체¹²⁾를 막연하게 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측정할 수도 없는 ‘영혼’ 혹은 기(氣)와 동일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요나스처럼 생명을 살아있는 구체적인 개체생명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이론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생명현상 또한 생명의 본질을 다 밝혀 줄 수 없으며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을 연구할 뿐이지 생명의 본질이나 기원을 온전히 다룰 수 없다. 따라서 생명의 기원의 문제는 엄격히 말해서 과학의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생명에 본질에 대한 이해는 필연적으로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전제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즉, 셸러(M. Scheler)나 베르그송(H. Bergson)은 생명은 우리의 인식대상이 아니라 생명의 의미는 명증적(evident)이며 본질직관(本質直觀)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환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¹³⁾ 즉, 생명은 기계론적인 사고, 도식화하는 사고, 수학적 합리주의적 사고로는 파악될 수 없고¹⁴⁾ 생명의 본질은 온전히 설명될 수 없으며 실제로 생명의 깊은 뜻을 은유적이거나 비유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 생명의 본질은 신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생명을 정의함에 있어서 총체적이고 관계적 생명이해가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면한 문명의 위기는 특정한 지역에서의 특정한 생명의 위기가 아니라 지구전체의 모든 생명의 생사가 걸려있는 총체적 위기이기 때문이며, 모든 개체의 생명들이 다 같이 뗄 수 없는 연결고리를 통해 생명의 망이 형성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생명이해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식물적 생명과 동물적 생명을 포함)만이 아니라 영혼적 생명, 우주적 생명,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언급한다. 이찬수는 “생명의 외연을 확대하는 이러한 작업은 생명의 근거이자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생명론과의 연결이라고 말한다.”¹⁵⁾ 생명의 정의에 대한 다양함과 생명의 본질이 모호하고 오묘한 심연의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생명은 의미 있고 가치가 충만한 것이라는 생명존중의 중요한 가치에는 근원적으로 합의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생명의 다의적 정의에 기초하여 이제는 어떻게 생명의 존귀함을 이해하고 어떻게 생명을 충만하게 고양시킬 수 있는가를 물어야한다.

2. 생명의 가치와 인간의 책임

일반적으로 생명의 가치는 다른 효용가치와는 다르게 살아있음 그자체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간 생명의 가치와,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의 가치와 또 생명체의 삶의 터전인 대지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그동안 인간의 존재 규정에 의해 소외되어 왔던 대지를 인간이 사는 장소로서, 즉 인간은 대지위에 살고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생명의 차원을 지구에 더함으로 생명의 터전인 대지로 생명개념을 확장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환경 철학자인 오귀스탱 베르크는 인간에게 지구는 다른 생물권 안의 모든 생물체처럼 단지 생물로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환경이 아니라 지구는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조건이라고 말한다.¹⁶⁾ 레오폴드(A. Leopold)가 “땅의 윤리(The

11) 박이문, “생명의 존엄성과 윤리적 선택,” 21세기 문명의 전환과 생명문화 (21세기 생명문화포럼, 2003), 95.

12) 생명 개념 속에는 추상적인 개념 외에도 생명체라는 의미의 생명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추상개념으로서 생명정의와 개체생명으로서는 생명체의 개념은 그러나 이원론적이 아니라 일원론적인 개념이다.(김영선, 생명과 죽음, 18)

13) 진교훈, “철학에서 본 생명,” 생명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1992), 9.

14) Ibid., 8-9.

15) 이찬수, “관계 생명 신학,” 608-609.

16) 오귀스탱 베르크, 대지에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 (미다스북, 2001), 13.

Land Ethic)에서 주장하듯이 인간의 윤리적 책임은 인간에서 벗어나 땅과 땅 위의 있는 모든 것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만물의 공생(symbioses)과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¹⁷⁾ 또한 여성신학자인 맥페이그의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지구라는 은유(the world as God' body)”를 고안하여 생태학적 신학의 재구성을 시도했다. 이러한 다양한 주장들은 동일하게 인간을 인식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이해하는데 자연과 지구와 땅이 필수적 요소임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것은 지구와 자연을 생명의 터전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도 자연의 일부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총체적 생명의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서 서양근대사상의 주관과 객관, 자연과 인간,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알버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는 생명에 대한 경외를 일찍이 깨닫고 생태학적 윤리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 생명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존재하는 삼라만상에 대한 사랑을 일치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태양과 달, 불과 물, 꽃과 초목, 들짐승과 새들을 형제자매라고 불렀다.¹⁸⁾ 슈바이처는 생명에 대한 외경사상을 토대로 생명체의 보호와 보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인간은 도울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도와 줄 때, 그리고 어떤 생명체에도 해가 되는 일을 삼가하고 또 여기에 그 자신이 순응할 때에만 인간은 윤리적이다. 슈바이처는 “윤리학은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을 지칭한다”고 말했다.¹⁹⁾ 생명보존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모든 생명체와 자연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함 인간의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대공동체로서 비인간적인 존재의 생존권도 존중하여야 한다. 생명철학을 연구하는 이기상은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존재를 ‘돌보고 보살피어야 할 ‘사이-존재’이다라고 말한다.²⁰⁾ 우리는 생명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이 협력해야하는 연대공동체임을 깨달아야 한다.

예컨대 동양의 정신은 모든 인류와 생명은 모두 정이 통하는 통일체(sympathic unity)속에 일원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다 같이 안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²¹⁾ 서양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상들이 성프란치스코, 슈바이처, 셸러, 베르그송 등에서 나타난다. 오늘날 생명존속을 위한 미래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들에게 ‘여기 이 순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책임의 영역을 인간 중심으로 협소화 시킬 것이 아니라 자연의 전 생명권으로 확장시켜야만 한다. 이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을 “생명의 지속”이라고 보고 있다.²²⁾ 생명의 가치는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생명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이 외적이고 물리적 가치보다 내적 정신적 가치를 도모하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도 과학적 설명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물질문명에 마비되어가는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과 생명 감수성을 함양하여 자연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의 교감을 추구해야 한다. 즉 생명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생명문화의 창출과 생명 중심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사회에 시급히 요청된다. 더불어 인간의 현실이 다른 생명체의 희생으로 살 수 밖에 없다면, 인간도 다른 생명체를 위해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불편함과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때 우리는 인간중심의 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기독교의 생명이해와 생명신학

생명은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하는 생활의 전제이기 때문에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나름대로 알게 모

17) 진교훈, 철학에서 본 생명, 14.

18) 김영선, “생명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신학적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0집 (한국기독교학회, 2003)

19) 진교훈, 철학에서 본 생명, 13.

20) 이기상, “생명학의 미래를 생각 한다: 지구살림살이를 위한 생명학,” 21세기 문명의 전환과 생명문화, 115.

21) 진교훈, 철학에서 본 생명, 12.

22) 심용만, “기술공학시대가 추구해야할 생명철학,” 211.

르게 생명의 사실을 전제하고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을 설명해왔다.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는 창조론이나 수 십 억년동안 진화되었다는 자연발생론이나 진화론은 모두 다 처음부터 생명에 대한 어떤 형이상학적 전 이해에 의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²³⁾ 최근에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생명의 본질, 구조, 기원, 조건, 구성요소 등을 밝혀내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기독교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올바르게 이해되고 평가된다. 세계 안에 현존하는 모든 생명체는 우연히 나타난 실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창조행위를 통해서 생성된 실재이며 생명은 인간에게 누리도록 제공된 선물임과 동시에 보존하고 돌보아야하는 책임이 동시에 주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세계는 단순한 물리적 세계만을 의미하기 보다는 그것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적 질서의 표현이다. 기독교의 생명논의는 모든 살아있음을 대상으로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살아있음을 창조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있음(생물학적 생명)²⁴⁾ 생명의 전부가 아니라 이 살아있음을 풍성하게 만드는 생명의 질적 차원과 생명의 영적인 차원을 강조한다. 기독교는 자연적 생명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즉, 생명을 비오스(생물학적 생명), 프쉬케(혼생명), 조에(신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으로 나눌 때 기독교의 생명이해는 조에에 가깝다.²⁵⁾ 신약성서에서 생명을 뜻하는 ‘조에’는 그리스어에서 동물과 인간, 그리고 식물 등 유기체의 신체적 생동성을 뜻한다. 생명은 하나의 사상이나 사물로서가 아니라 일어서고 움직이며, 본연의 힘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의 ‘살아있음’으로 이해된다.²⁶⁾

따라서 생명은 인간의 속성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이다. 기독교는 하나님 자신을 생명으로 본다. 요한 1서 5:11-12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음을 말하고 요한복음 14:6은 예수자신이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하였고 요한복음 4:14는 예수가 주는 생수가 영생하는 물임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성서는 생명을 ‘하나님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이것이 곧 생명임을 말하는 것이다.²⁷⁾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거하는 즉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한데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맺을 때만 참 생명을 얻는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은 상호내재 혹은 상호관계에 의해 생성되며 기독교의 생명관은 타자의 생명이 곧 내 생명의 일부임을 인지하고 모든 생명의 살림을 중시하는²⁸⁾ 생명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생명이해의 핵심은 “관계”에 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관계가 살아 있는 것을 살아있게 즉 생명 되는 것을 생명 되게 해주는 것이다. 그 속에서 기독교의 자연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며 자연정복사상 그리고 자연 숭배사상을 넘어서는 인간중심에서 우주중심으로, 개인영혼 구원에서 모든 피조물의 구원으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대표적인 학자로 더글러스 할(Douglas J. Hall)의 자연친화 사상은 창세기 1:28의 “정복하라”와 “다스리라”는 의미를 자연정복으로 해석하지 않고 착취가 아닌 봉사와 보살핌을 강조하는 청지기정신을 강조한다.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에서 식물과 동물 그리고

23) 진교훈, 8.

24) 김영선은 . . . 단순한 생물학적 살아 있음에 넘어서는 풀성한 생명의 질적 차원을 ‘영혼’과 ‘목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살아 있음에 ‘영’의 개념으로 기독교의 생명논의는 생명, 영혼, 영이라는 생명 요소를 넘어 질적으로 다른 생명문제를 다루는데 있다고 설명한다.(생명과 죽음, 20)

25) 성서에서 생명(vita)는 히브리어 ‘하임’과 그리스어 ‘조에’이다. 또한 이와 관련되어 사용하는 개념은 히브리어 ‘루아하나’ ‘네페쉬, 그리고 ‘바사르’나 그리스 단어 ‘프네우마’와 ‘프쉬케’, ‘소마,와 ‘사르크스’등도 생명과 관련된 단어 들이다.

26) 심상태, 물리적 환경과 신학에 대한 신학적 고찰, 물리적 환경과 생명,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 1993,19.

27) 김영선, 생명과 죽음, 22

28) 김영선, “생명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신학적 고찰,”한국기독교 신학논총, vol.30(한국기독교학회2003), 249-250

모든 생물의 존엄성을 볼 수 있다. 즉 인간에게 종속된 피동적 객체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의 한 부분으로 독립적 추체이며 하나님 아래 서로 수평적 지위를 갖는다.²⁹⁾ 즉, 이러한 새로운 해석은 전통적기독교가 몸과 지구의 생명회복보다는 영적인 생명회복과 치유에 치우쳐서 생태계의 파괴를 중지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생태계는 인간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대상이 아님을 깨달아야한다. 즉, 우주적 질서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인간은 각 개체를 개별화된 존재로 보기보다는 우주적 생명망의 한 부분으로 보는 생명 중심적 관점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관계적 생명이해는 다른 생명을 파괴한다거나 확대하는 개념과 함께 양립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균형과 조화의 분열과 타락은 가장 치명적으로 인간됨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기 때문이다.

전통적 신학에서 본 생명 이해는 주로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이르는 창조에 대한 성서적 진술에 기초하고 있으며 세상을 창조주와 피조물로 분리하여 우주의 모든 것들은 비신성화(desacralized)의 논리적 토대가 되어 자연을 비신화하고 대상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다른 존재와는 다르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흠으로 빚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인간이 되게 하셔서 지상의 것들을 이름 짓게 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명하셨다고 해석한다.³⁰⁾ 또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독특한 이해는 인간의 권위와 존엄성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특히 아퀴나스의 신학사상 이래로 생명에 대한 계층적 지배이론을 발전시키는 근거가 되어 왔다.³¹⁾ 물론 생태신학이 논의되면서 창세기 1장28절에 대한 해석을 비판하는 베스터만(Westermann) 같은 구약학자는 지배자의 표상이 아니라 관리자의 표상으로 그 이해구조를 바꾸어야한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모든 만물의 중심으로 땅을 지배하고 정복할 충분한 권리가 있는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다.

생명신학을 주창하는 이정배는 생태학적 성서읽기를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이해, 성서내의 창조-타락의 이원론적 도식, 그리고 죄와 죽음을 일치시키는 바울적 전통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전제한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해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탈신성화를 지적한다. 둘째, 창조-타락의 이원론에 나타나는 인간의 죄를 개인주의적으로 축소시켜 이해하고 창조 자체의 자기 보전적 특성보다는 타락된 본질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게 되어 자연에 대한 적극적 이해가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된 신학적 토대를 비판한다. 셋째, 바울의 죄의 대한 이해가 유한한 인간의 삶을 악으로, 죄의 열매로 평가하는 것은 여성의 몸의 부정과 반자연주의 그리고 인간의 현실적 죄성과 영생하는 삶의 이원론적 분리주의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그는 죽음은 인간의 죄의 삶도 아니며 유한한 인간의 삶이 악으로 정의 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가 반 생태적 특성을 떨 수밖에 없고 땅을 거부하게 한다고 말한다.³²⁾ 이러한 비판은 우리에게 성서적 창조론이 결코 인간 중심적이지 않으며 인간과 자연의 공동운명을 강조하고 상호의존성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온전한 기독교의 생명의 가치의 회복과 관계성의 회복은 자연과의 관계맺음의 방식이 변화를 전제하여야 한다. 자연을 더 이상 대상화 시켜 인간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자원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새 천년에 인류가 극복해야 하는 반 생명문화는 곧 생태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명문화의 형성을 위해 생명철학은 발상의 전환을 위해서 인간의 인식론적 사유의 틀이 ‘존재(있음)에서 생명(살아 있음)’으로 ‘이성

29) 김은규, “창세기 1장의 생명과 생태사상,” 한국기독교논총, vol. 30(한국기독교학회, 2003)

30) 창 1:28

31) 박충구, “생명 신학 윤리,” 한국기독교윤리학회 논총, 한국기독교윤리학회(한들, 2003), 15.

32) 이정배, 신학의 생명화 신학의 영성화 (대한기독교서회, 1999), 11-18

에서 감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³⁾ 이러한 사상은 최근의 다양한 동서양의 대화를 통해 생명신학의 중심 되는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³⁴⁾ 기독교가 추구하는 생명관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관계를 떠나서는 생성, 유지, 성장이 불가능한 상호공생의 길 추구해야 함을 의미하며 생명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와 과학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의 신비이며 그것은 삶의 모든 가치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4. 반생명문화 현상에 대한 분석과 생명문화 형성

ㄱ. 경제적 위기와 반생명문화

20세기 말부터 대두되는 생태의 문제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생명문제로 변화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안 모색 과정에서 많은 철학자 신학자들이 서양과는 다르게 생명을 이해하는 동양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이러한 세계의 정신사적 흐름의 반영이다. 필자는 죽음의 문화와 반생명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심축으로 경제적 지구화와 과학기술의 무제한적 경쟁과 발전으로 보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반생명문화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 시키고 있는 경제부정의와 그에 따른 생태계의 문제에 중심을 두려고 한다. 즉, 자본주의 문화에 과고들고 있는 물질 지상주의와 시장경제에 뿌리내린 무한경쟁주의 그리고 개인주의적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는 우리들의 정신을 서서히 병들게 한다. 그리스도인 또한 지나친 소유욕과 교회의 세속화와 가치의 상대화에 따른 허무주의적 경향이 만연하여서 구별된 삶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에 기초한 세계관과 가치관의 밑바탕에는 무엇보다도 인간중심적인 시각과 적자생존의 원칙을 앞세우는 진화론적 세계관이 큰 몫을 하고 있다. 무한 욕망, 무한 소유, 무한 소비를 부추기며 무한 경쟁을 유일한 생존의 법칙으로 내세우는 이 세계관을 주도하는 원리는 자유경쟁이라는 이름아래 자행되는 자본과 권력에 의한 지배이며 정복의 논리이다.³⁵⁾ 그러므로 최근에 이러한 인간 중심적, 남성중심적, 서양 중심적 세계관이 총체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생태여성주의자인 발 플럼우드스는 서양철학과 역사를 연구하면서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계 파괴로 인한 생명위기의 많은 부분은 현재의 지배적임 문화 즉, 서양문화의 생명부정의 요소들에서 기인하였음을 논증하고자 했다. 서양문화는 자연을 인간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더 낮은 세계로 간주하였다. 또한 서양문화는 합리성이라는 생태맹(ecology-blind)적인 개념 틀을 자연화하고 인간의 우월성과 탈육화라는 위험성을 높이 세웠다.³⁶⁾ 감지하는 인류가 당면한 생명의 위기를 그의 논문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직관하고 있다. “19세기 이후 동아시아는 서양의 물질문명과 제국주의, 신식민주의의 거듭된 개변과정에서 자기의 과거에 대해 전혀 해괴한 방향으로 자기 기억을 수정, 착각해왔으며 구미 문명의 왜곡 등에 의해 자신과 세계의 미래에 대해 극히 엉뚱한 방향으로 목표를 더듬고 있다”고 말한다.³⁷⁾ 구체적으로 죽음의 문화의 징조를 인간의 내면적 도덕적 황폐와 더불어 물질문명과 제국주의 그리고 신식민주의로 세계 전역의 빈부의 격차가 격심해지고 경제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시장만능주의로 가난한자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33) 이기상, “생명학의 미래를 생각 한다: 지구 살림살이를 위한 생명학”, (세계생명문화포럼, 2003), 107.

34) 한국사상의 생명관은 무교, 노장, 불교, 유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서양과 같이 기계론적으로 생각해 본적은 한번도 없다. 즉 한국의 생명이해는 자연순응, 자연친화, 자연동화라는 천지인(天地人)의 큰 틀 속에서 발전하여왔다.

35) 이기상 113

36) 세계생명문화포럼, 21세기 문명의 전환과 생명문화, 경기문화재단, 세계생명문화원 세계생명문화포럼 2003 자료집, 48.

37) ibid, 23.

자본주의의 생산과 소비의 구조 속에 무한 경쟁의 논리가 절대화되고 생존우선의 현실 논리는 지구촌의 공동 번영이라는 이상적 목표나 살림의 논리, 그리고 상생(相生)의 논리가 들어설 틈이 없게 만든다. 즉 우리시대의 반생명의 징조들이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왜곡된 신념들 위에서 실행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세계개혁교회연맹에서 발표한 신앙적 입장에 의하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경쟁과 소비주의 그리고 부의 무한추적은 전 세계를 위해 최선이다. 둘째, 자유시장은 단 하나의 유일한 합법적 기초로 어떠한 사회적 의무와 제약 없이도 사유재산의 원리위에 세워진다. 셋째, 시장의 자유화, 무제한적인 실천, 사유화, 외국투자와 수출에 대한 개방, 자본의 자유로운 움직임은 공동의 부를 창출한다는 잘못된 신념들이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현실은 부유한 사람과 부유한 국가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제도들과 군사력을 사용하며 타자를 위한 공동의 실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은 가난한 자들과 창조물의 희생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으며 올바른 대안 없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즉, 살아있는 생명들의 고통과 파괴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러한 반생명문화를 확산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자신만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다는 잘못된 약속을 함으로 우리들의 신앙도 위기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³⁸⁾ 자유시장제도는 광범위하게 자연과 인류를 죽음으로 내몰고 우리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지구를 송두리째 강탈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지구화는 자본가의 배타적 사유재산위에 세워져 기업의 이익을 조정하며 시장은 소수를 위한 부의 축적을 극대화하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한다. 특별히 경제세계화를 통해 확산되는 금융자본의 힘은 각국의 경제를 지배하며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키고 투기적 시장의 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며 한 나라의 국민과 국가를 부채에서 영구히 헤어 나올 수 없도록 하는 빛의 틈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과 자본주의 시장의 맹진은 실업, 노동조건의 악화, 강제이주, 그리고 점점 증가하고 있는 구조적 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다.³⁹⁾ 이 모든 경제적 현상이 생명의 충만함을 원하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생명의 흐름을 거역하는 것이다.

ㄴ. 생태학적 위기에서 본 생명위기

생명위기는 생태학적 위기와 직결 되어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는 상호 연관되어 있어서 자연의 파괴는 인간의 위기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자원의 낭비와 고갈, 오염, 생물과 종의 멸절, 산림과 초원의 상실은 최근에 경제적 세계화를 통해 무섭게 가속화되고 있다. 더욱이 생명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오해, 인간의 지구의 지배, 발전과 기술이데올로기는 인간, 사회, 자연이 모두 삶을 영위하게 하는 자리인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 따라서 생태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다. 이러한 지구파괴에 나타나는 반생명 현상은 인간이 자연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기 보다는 인간을 위한 풍요로움과 소비를 위한 원재료로 보아왔던 왜곡된 창조이해에 그리스도인들의 철저한 반성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우리는 창조물과의 사귄과 자연과의 교감이 인간의 영적이고, 감정적이고, 육체적 온전함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경제의 무제한적 성장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지

38) 이 내용은 필자 2005년 2월 8일부터 11일 까지 런던에서 개최된 세계개혁교회연맹 회원교회 포럼에 참가하여 “경제적 세계화”에 따른 위기와 ‘생태학적 파괴’에 대한 위기를 바르게 인식하고 극복하기위하여 전 세계로부터 27개국에서 38명의 교단대표들이 함께 발표한 신앙적 입장(Faith Stance)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39) WARC's Faith Stance 중에서

구의 약탈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강대국의 힘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지구적 전쟁의 전략으로서 군사주의를 강화시킨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동반되는 극심한 가난은 온전한 인간성을 성취하려는 여성들을 억압하고 경제체제에 의해 생산되어지는 구조적 폭력의 악순환은 인종주의, 계급주의, 성차별주의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현대과학과 기술은 생명을 위한 봉사라기보다는 지구적 군사력과 세계시장을 위해 봉사하는데 남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기업의 힘에 의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점점 더 통제되어가는 미디어는 우리들의 의식을 식민화시키고 시장의 소비만능주의의 가치를 주입시킨 병든 정신을 확산시킨다.⁴⁰⁾

모든 죽어가는 생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통치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중요하다.(Gen 2:8-9) 이 믿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세계문제들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짓된 믿음에 대해 참회하고 시장경제와 돈의 힘이 배고픔과 질병으로부터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왜곡된 신념에 대해 회개하는 것이며 특별히 생명을 정복하고 착취하며 파괴하는 일에 창조론이 왜곡되어 사용되어지는 것과 모든 창조물의 청지기로서의 인간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여성과 자연을 억압한 것을 참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안에 포함되며 축복받은 존재들이며 인간에게 모든 창조물을 보존하며 돌보고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자유를 주셨음을 고백하여야 한다.(Gen 2, 1Cor 10:23-26)

끝으로 인간과 지구의 생명위기에 응답하기 위해 교회는 더 이상 미온적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이 경제와 지구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하는 시간임을 인식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가난한자와 창조물을 담보로 하는 소비주의, 물질주의, 개인과 기업의 목적을 위한 축적, 군사주의, 경제적 이데올로기로 오용되는 성서해석, 이윤의 극대화, 환경을 착취하고 실업을 증대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 국제적 부채의 불가능한 상황의 현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 불가능하다는 생각 등을 반대한다. 둘째,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교회로 가난한 자와 창조물의 직면한 고통에 응답하는데 신속하지 못함을, 생명을 억압하고 노예화하는 권력에 대항하여 예언자적으로 말하지 못함을, 현재의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경제에 대한 성서적 비전을 제시하는데 실패한 점을, 특별히 부유한 북반구의 물질주의와 과도한 소비주의에 굴복한 것 등을 고백하고 회개하여야 한다. 셋째, 교회는 공동체와 생태계를 보존을 증진시키는 경제 활동과, 인간과 국가를 노예화시키는 구조적 부채들의 해방을 위한 일과, 지역적으로 더욱 바람직한 방법으로 경제기반, 건강복지, 교육을 발전시키고 자신들의 시장과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를 지원하는 일과, 더욱 강화되는 오염에 대한 통제를 위한 일과, 보편적 인권을 증진시키는 일과, 평화와 군비축소를 위해 노력하는 일과, 가난한 자들과 환경을 고려하는 지속적 투자를 증진시키는 일과,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경제에 대한 증인으로 대안적 삶의 방법을 취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교회에서 경제적 부정의와 생태적 파괴를 관심하는 인식, 교육, 그리고 고백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⁴¹⁾

앞에서 경제위기와 생태위기에 따른 반 생명 현실은 경제적 부정의와 생태적 파괴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생명 중심적 관점을 지속적으로 고려하는 여성신학자인 맥페이그의 최근 책인, Life Abundant: Rethinking Theology and Economy for a planet in Peril는 그동안 많지는 않지만 심층적으로 논의 되어오

40) WARC의 Faith Stance 중에서

41) WARC's Faith Stance중에서

던 경제에 대한 신학적 작업이다. 특별히 주목하는 점은 그녀가 신학적, 생태적, 경제적 이론과 실천들 사이의 관계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점이다. 이 책이 발간되기 직전의 책인 Super, Natural Christians 에서 강조한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한다는 환경보존의 차원이 충분치 않음을 지적하였다. 즉, 서구사회에서 필요한 신학적 실천의 재구성은 지구의 안녕의 측면에서 신학적으로 동기가 부여되는 실천과 영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명에 대한 위기극복은 추상적이고 명상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바른 행위의 목적을 위해 경제적이고 생태적 관심과 연합하는 신학의 재구성 안에서 그녀는 생태적 경제학(Ecological Economic Model)을 제안한다.⁴²⁾ 맥페이그는 지배적인 신고전적(neo-classical) 접근과 생태학적 경제학의 모델을 비교하면 근대 신고전주의 경제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의무와 함께 인간을 주체로 이해하는 인간의 통치와 독립성 강조하는 반면에 생태적 경제는 오히려 지구생명과 인간의 상호관련을 강조한다. 즉, 생태적 경제학은 성장보다는 지속성을 목적으로 하고 인간과 생태계 요구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태적 경제학의 관계적 비전을 주장한다. 이러한 생태적 경제모델은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든 창조물 속에 내재하시는 지구로 오시는 살림하는 지구주로서 모든 생명들을 사랑으로 관심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한다.⁴³⁾

또한 맥페이그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모든 일을 혼자서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증진시키는 지구의 안녕을 위해 세계의 몸 안에서 몸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 보조적 행위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⁴⁴⁾ 살림의 원칙을 존중하는 생태학적 모델과 함께 인간생명의 개인주의적 모델을 대신할 수 있는 경제적 개혁을 함께 주장하는 맥페이그의 생태경제학은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지구와 인간에게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살림의 원칙을 존중하는 생태학적 모델과 함께 인간생명의 개인주의적 모델을 대신할 수 있는 경제적 개혁을 함께 주장하는 맥페이그의 생태경제학은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지구와 인간에게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놀랍게도 경제학(economy)과 생태학(ecology)의 어원은 똑같은 그리스어 'oikos'에서 그 뜻은 “집, 주거, 거주”의 뜻으로 가정경제나 주거관리를 의미한다. 이것에 해당하는 우리말은 ‘살림살이’이다. 즉 살림이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지 않도록 보살피고 돌보아 주는 다시 말해서 “살리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조상의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⁴⁵⁾ 살림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에코(eco)가 동시에 경제를 의미하는 것은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즉 경제는 생명과 관련된 때 인간과 자연을 살릴 수 있다. 경제는 본래 생명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경제가치 그 자체를 극단적으로 물신화하고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왜곡시켜서 그것의 근원적인 가치인 생명의 가치를 무참하게 짓밟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 성장과 자원의 한계를 무시한다면 모든 생명이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태학적인 감수성을 지닌 기독교 영성과 생명을 살리는 생태적 경제모델에 대한 관점을 신학적으로 재구성하여야한다. 이러한 신학은 생태학적 위기를 초래하는데 침묵하거나 도움을 주어왔던 기독교 전통을 다시 고려하고 경제적 관점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다.

42) Sallie Mcague, Life Abundant: rethinking Theology and Economy for a Planet in Peril, (Minneapolis: Augsburg-Fortress, 2000), 33.

43) Ibid., 99.

44) Ibid., 150-151

45) 이기상, “생명학의 미래를 생각한다.”117.

5. 생명 중심적 패러다임을 위한 여성 신학적 대안

21세기에 새롭게 전개되는 사회변화와 국제질서 그리고 다양한 문화현상들은 한국사회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향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응답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로서 많은 영역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한다. 특별히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되어지는 여성 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은 한결같이 생명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반생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으로 이 시대가 여성 중심적 관점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시대라는 인식을 여성 신학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하려고 한다. 이것은 그 동안 남성적 특성들 즉 독립성, 자율성, 자립성, 정신, 이성, 문화, 초월성, 그리고 전쟁과 죽음 등을 지나치게 가치화 하고 여성적 특성들, 몸, 감정, 자연, 내재, 평화와 생명 등 문화적으로 표현되는 여성적 특성들을 가치 절하하여온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통찰은 인간과 자연의 억압과 상처의 회복은 남성과 기술문명이 지배한 사회에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적 절박함 속에서 지구적 차원에서나 지역적 차원에서 가장 절실하고 광범위한 생명의 주제를 중심에 두고 2002-2012년 동안 실행되는 예정통합 총회의 '생명 살리기 운동 10년'은 하나님의 시대적 부름에 응답하는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생명의 주제는 21세기에 나타나는 산재한 세계의 문제를 각각의 문제들의 특수성과 지역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보편성을 획득하게 하며 동시에 특수한 상황과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통해 지역에서 생명 회복의 구체성을 현장에서 획득하지 못할 때 이것은 죽음의 문화 속에 고통 받고 신음하며 하나 밖에 없는 생명을 담보해야 할 절대적 조건을 무시하는 공허한 이론에 머무를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교회의 여성문제의 중요성은 한국교회의 숫자와 물리적 토대 뿐 아니라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의 문화에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집단 중에 하나가 여성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에 여성이 소외되어서는 아니 된다. 생명의 주제는 가장 긴급한 주제임이지만 동시에 단숨에 해결될 주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생명의 문제는 현대사회의 물질중심주의, 기술문명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가부장제) 등과 결합하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으로 확장되는 전 지구적 주제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생명의 문제는 지극히 지역적이고 개인적이며 그러나 모든 것이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 중심적 관점은 반 생명문화에 의해 이미 깊이 병든 한국사회를 위한 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바르게 풀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생명의 문제에 가장 중심에 인간이 있다. 특별히 여성 신학적 관점은 남성중심문화가 초래한 많은 반생명 현상들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하나의 중요한 입장이 된다. 이러한 여성 중심적(women-centered)관점은 생명 중심의 세계관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생명 중심적 세계관은 근원적으로 분리적이거나 독립적이기보다는 유기체적이고 관계적이다. 이러한 여성주의적 세계관은 여성 중심적 관점들의 토대가 되는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 가정들을 먼저 규명하지 않는 한 만들어지기 어렵다. 즉, 보편주의에 입각한 근대 서구신학은 자율적이고 독립된 자아에 기초한 반면에 여성 중심적 접근을 주장한 대부분의 여성신학자들은 타자로부터 자아를 가능하면 분리시키려는 것이 자아를 발견하는 길이라는 존재론적 가정과 보편적이고 추상적이고 중립적인 이성적 지식이 더욱 근접하게 현실을 반영한다는 인식론적 가정을 거부해 왔다. 이러한 지배적인 가정에 근거한 관점들에 대하여 여성 중심적 접근을 시도한 신학자들은 대신에 타자와의 관련성 속에서 발견된 자아가 더욱 성숙하고 바람직한 자아임을 존재론적으로 주장하고 특수하고, 구체적이고, 부분

적이며 그리고 감성적 지식이 더욱더 가깝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주장을 인식론적으로 확대시켜왔다.⁴⁶⁾ 이러한 존재론과 인식론의 새로운 해석은 생명신학과도 유사하다.

특별히 생명의 문제는 여성과 가장 밀접한 주제이다. 왜냐하면 여성이 어린이를 낳고 양육 할 수 있는 사실은 새 생명의 존재 앞에서 남자보다 결국 더 큰 책임을 갖는다는 표시일 수도 있다. 여성주의자들은 여성 뿐 아니라 남정도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양육과 남성의 양육 사이에 질적 차이의 존재를 지적한다. 또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임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을 존재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여성의 궁극적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일차적 입장 즉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어린이를 낳지 못하지만 양육 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정도 생명의 창조에 관련하기 때문에 생명의 유지보호에도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⁴⁷⁾ 그러므로 생명에 대한 여성적 관점도 남성과 여성의 질적 차이와 평등한 의무 사이의 긴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이러한 여성 중심적 관점은 자연과의 계층성 속에서 인간의 우위를 통한 지배와 통제를 의미하기보다는 많은 생태학자나 생명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생명간의 유기체적 관계성을 중시하면서도 인간의 책임과 돌봄의 윤리를 강조하는 새로운 인간주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 현실과 신학적 반성 속에서 한국교회는 “왜 이 시대가 여성적 모성적 감수성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반 생명의 시대, 즉 죽음과 폭력 그리고 전쟁의 문화가 지배적인 시대의 논리는 이성의 논리, 경쟁의 논리 그리고 힘의 논리가 가치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생명의 문화는 생명을 회복하는 여성의 감수성과 어머니의 지혜 그리고 모성적 실천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돌봄의 윤리, 양육의 윤리, 관계의 윤리를 통해 인간의 생명과 지구의 생명이 회복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부정적으로 그려진 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평가들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성과 함께 감수성이 그리고 지식과 함께 지혜가 필요한 시대, 논리적 사고와 함께 영적인 각성을 통한 감동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은 논리와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시도와는 다르게 여성들의 영적 각성, 모성적 실천, 여성성의 재발견 등을 통하여 병든 사회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천들은 생명회복운동의 구체적 실천의 대안들을 생각할 때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남성적 방법들, 즉 규칙과 보편성, 공평성을 강조하는 방법보다는 여성적 방법들, 즉 관계성, 특수성, 그리고 부분성을 강조하는 방법들을 선호한다.⁴⁸⁾ 한국사회의 남성의 중심문화의 결과인 남아 선호로 인한 여아살해, 성매매, 성폭력과 강간의 문제는 여성의 존엄성이 무참하게 짓 밟혀온 생명 죽임의 현장들이다. 따라서 생명 살리기 운동에 여성의 생명회복과 구체적으로 성불평등을 유지 시키는 제도적·문화적 변화를 통해 양성평등 세상을 구현 하는 것은 생명문화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길이다. 교회여성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여성의식에 대한 무분별한 영향이나 절대적 거부라는 일면적 선택으로부터 벗어나 여성 신학적 관점에서 생명을 주제로 한 교회 여성교육 등을(여성을 위한 생명교육-낙태, 생명문화 개발과 확산, 다양한 가난한 여성을 위한 쉼터, 돌보는 자의 소모임 개발-자연과 모든 생명)통하여 여성이야 말로 한국교회의 생명운동의 주체임을 자각하도록 도와야 한다.

46) L. Kohlberg, *Cognitive Development and Epistem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164.

47) V. Held, "The Obligation of Mother and Father," ed., J. Trebilot, In *Mothering*, NJ: Rowman and Allanheld, 1984, 7.

48) Alison Jaggar, eds., L. Becker and C. Becker, *Feminist Ethics*, *Encyclopedia of Ethics*, (New York: Garland Press), 1992, 363.

생태계 위기와 한국교회의 책임

송준인 교수

[1] 들어가는 말

21세기 초 지구에 몰아 닥친 생태계위기는 자연의 반란 앞에서 오만한 인간의 힘이 얼마나 나약한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난 2004년도에 있었던 23만 명의 사망자에 피해액이 15조원도 넘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동아시아의 쓰나미, 그로부터 불과 7년만인 2011년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일본 후쿠시마에서 있었던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지금도 그 피해를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핵 발전소 사고는 이제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체르노빌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도시로 남아 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환경호르몬,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동 호흡기 증후군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조류독감 AI(Avian Influenza) 등, 과거에는 거의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생태계위기와 관련된 단어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습격해 오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교계에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환경과 관련된 날은 세계 환경의 날, 지구의 날, 물의 날 등이 있다. 세계 환경의 날은 6월5일이고 지구의 날은 4월 22일, 그리고 물의 날은 3월 22일인 것을 아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세계 환경의 날인 6월 5일을 기해서 환경주일을 지키고 있는 교회는 몇 개나 있을까?

[2] 상처 입은 지구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오늘날의 절반이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정답은 1970년이다. 지구의 인구는 반세기도 되기 전에 두 배가 되었다. 이런 인구 증가는 대부분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국가들이나 개발도상국들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인구 증가는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해 환경 파괴에 거대한 동인으로 작용해 왔고, 턱없이 부족한 자원들에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 왔다. 만일 오늘날 굶주리는 사람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줄을 선다면, 그 줄은 얼마나 길까? 참고로 지구 둘레는 약 4만 km이다. 놀랍게도 정답은 지구를 13번 돌만큼이다. (어깨 폭이 60cm일 때 8억 5천 만을 곱하면 약 52만 km가 된다). 대략 8억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모자라 고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굶주린 사람들이 늘어선 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동물이나 식물의 한 종이 멸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학적으로 믿을 만한 수치는 하루에 3종, 즉 8시간에 한 종씩 사라진다. 즉 날마다 세 종이 멸종한다. 우리는 인간이 저지르는 생물학적 홀로코스트를 날마다 겪고 있는 셈이다. 생물다양성은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조건이다. 우리 인간은 자연세계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깊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의 멸종은 곧 인간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 원초적 그물망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열대의 숲은 매년 어느 정도의 비율로 파괴되고 있을까? 믿기 싫지만, 불행하게도 정답은 남한만한 넓이로 매년 10만 제곱 킬로미터 정도가 파괴된다.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물을 먹지 못하고 살아갈까? 정답은 50% 이상이다. 전 세계에 걸쳐 5세 이하의 어린이가 6천 명 가량이 매일 설사와 연관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시간 당 250명, 분당 4명꼴, 15초 당 1명꼴이다. 미국에서 매년 배출하는 고형쓰레기를 청소차에 실어 일렬로 세운다면? 믿기지 않겠지만 적도를 따라 지구를 네 번 도는 길이이다. 미국에서 1년 간 버려지는 일회용 기저귀 쓰레기도 죽 늘어 놓으면 얼마나 될까? 지구에서 달까지(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약 38만 4천 km이다) 7번 왕복할 수 있는 만큼이다. 미국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타이어도 한 줄로 세우면 지구를 세 번 가까이 회전할 수 있다. 도시 고형 쓰레기만의 수치가 이렇진대, 산업 쓰레기, 농업 쓰레기까지 합하면 천문학적인 수치가 된다. 왜냐하면 지구를 네 바퀴나 돌 정도의 고형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의 1.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고형 쓰레기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애플루엔자(affluent+influenza)라는 신조어로 대표되는 거대한 문화적 추세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부유한 사회에 사는 우리는 물질의 소비에 중독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 질병의 수상한 보상들은 엄청난 환경 비용 문제와 얽히게 됨으로써 이 질병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에너지의 몇 %를 사용할 것 같은가? 10%, 15%, 25%? 마지막의 것이 정답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로, 지구 전체의 석유 소비량의 24%, 하루에 2,100만 배럴(1배럴은 약 160리터이므로 이것은 약 33억 6천만 리터에 해당한다) 정도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하루 소비량 220만 배럴(약 3억 5천 2백만 리터)의 약 10배 정도 사용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지난 50년 동안 세계 에너지 수요는 5배로 늘었다. 이것은 인구 증가 속도보다 두 배 이상 빠른 것이다. 하지만 화석 연료에 대한 우리의 중독이 빠른 시일 내에 줄게 되리라는 증거는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10년 단위로 묶었을 때 기록상 가장 더웠던 햇수가 들어있던 때는 언제일까? 그것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직전 10년 간이다. 지난 30년 동안 특히 강한 온난화 추세가 계속되었다. 이산화탄소 외에 오존, 메탄, 아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수증기 등이 온실가스에 속한다. 이 가스들은 대류권에 존재하면서 적외선이 우주로 빠져 나가지 못하게 막아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한다. 사실 이들 가스 때문에 지구 표면의 온도가 생명체에 유익한 상태로 유지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존재가 아니라 이들의 적절한 농도다. 농도가 너무 높아서 지구가 필요 이상으로 더워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 심각해지는 기아 문제, 생물다양성의 감소, 삼림 파괴, 물의 부족과 오염, 땅의 황폐화, 늘어나는 쓰레기, 에너지 소비의 증가, 산성비, 지구의 기후 변화, 이러한 것들은 생태계가 쏟아놓는 탄식의 긴 목록이다. 우리 지구별이 신음하고 있다. 지구과학자인 E G Nisbet은 지구의 상태를 다룬 그의 저서 <Leaving Eden>에서, 지구의 환경 변화와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지구는 상처를 입고 있으며, 그 상처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분명하다. 고발의 내용은 그 상처의 책임이 인간이 과거와 현재에 저지른 일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간의 범죄와 관련해서, 이성적인 인간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라면 어떤 평결을 내릴 것인가? 이성적인 배심원단은 기소의 평결을 내릴 것이다. 우리의 지구별에 입힌 상처에 대해 우리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거는 확실하다. ‘내 탓입니다’ 외에 우리가 할 최종 변론은 없다. 참으로 엄청난고 서글픈 역설이 아닐 수 없다.”

[3] 생태 윤리에 대한 성경적 기초

1. 자연과 인간

이와 같은 생태계 위기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창세기 1장에는 세상이 선하다는 하나님의 판단에 초점이 맞추어진 하나의 윤리적 원리가 나온다. 우리 인간은 광대하고 멋진, 복잡하면서도 조화로운 피조물의 하나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다(창 1:31). 시편 24편에도 “땅이 주의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했다. 시편 104편과 욥기 38장에도 피조물의 선함을 강조하는 표현이 나온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파괴시키고 황폐화시켰다. 기독교의 전통적인 자연관은 자연이 인간의 죄성의 결과로 타락했다는 것이다. 칼빈의 말대로, 아담의 죄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연의 질서를 왜곡시켰다(기독교강요 II, 1, 5, 246). 또한 모든 피조물이 아무 잘못도 없이 땅으로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죄가 치러야 하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로마서 주석 8:21-22). 루터 역시 “지금 태양은 그것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밝고 선명하지 않고 인간의 죄 때문에 반쯤 어둡고 거무스름하고 손상되었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죄를 자연 안에 투영시켰다(『루터연구』 제17집, 39-40).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이 저주를 받았으며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연에 의해 위협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서 자연에 대항해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런 해석은 물론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전체 피조물에 가해진 무서운 징계를 불러온 것이 바로 인간이었다. 인간은 자연 세계의 조화를 파괴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남용하였으며 사랑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 세계를 파괴하고 훼손했다. 인간의 죄는 자연 세계에 세 가지 방법으로 영향을 미쳤다.

첫째는, 땅이 인간의 오용으로 신음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사용에 관한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 그들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땅을 쉬게 하지 않았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파괴시킨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환경 훼손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계 11:18).

둘째는, 보편적인 인간의 죄가 우주 질서의 조화로운 관계를 깨뜨렸다(창 6:5-13). 피조물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호세아의 글에 그 관련성이 잘 예시되어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이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호 4:1-3).

셋째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신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연에 대한 영향력을 일부 유보하심으로, 또는 땅이 소출을 내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또는 자연의 힘을 조종하심으로, 또는 환경의 재난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신다. 인간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사상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다. 특히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가뭄이나 다른 자연 재해가 생겼다고 보았

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사 24:3-5).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 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시랑 같이 혈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찌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렘 14:4-7).

그러므로, 우리의 계속된 죄악은 땅을 치유하지 못하게 한다. 이기심이 횡행하는 한 조화와 치유는 불가능하다. 교만, 자기 영광, 풍요, 탐심과 같은 자아 중심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죄악은 생태학적 조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덕 법칙과 위배된다. 우리의 문화가 생태학적 위기 상황까지 다다르게 된 것은 바로 종교적인 신앙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무지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롬 8:22).

자연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의 모든 구절들 중에서 로마서 8:18-23 만큼 지금의 환경 위기와 관련이 되는 구절은 없다. 그 구절은 두 가지 주제를 거론하여 확대시키고 있다. 첫째는 전체 피조물의 상호 의존성과 공동 운명이라는 주제이고, 둘째는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치유하는 데에는 인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주제이다. 바울은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 당하는 점에서 다른 피조물과 나란히 서 있지만 해방과 성취를 기대감과 희망을 갖고 기다린다고 묘사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피조물을 확립하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롬 8:18-23).

2.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

한편으로 우리는 광대한 피조물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피조물 가운데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갖고 있다. 창세기 1:26-28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은 한편으론 흥분이 되고 다른 한편으론 위협스럽다. 흥분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빈자나, 자유인이나 묵인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 받아 하나님의 사역과 안식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

기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다. 다른 한편, 위협스럽다는 것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과 관련된다. 이것이 위협하다는 것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땅에 대한 지배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다. 나는 땅을 밟고 짓밟고 땅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쓸 수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생각이 생태학적인 재난을 가져 오는 데 공헌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독재자나 정복자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시편 8편을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감독할 책임을 부여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의 일부를 위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고 섬김과 희생으로 나타난다(시 97:1-2; 99:4; 89).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인 섬김으로 특징지어진다. 이스라엘의 왕의 의무는 의와 공평으로 그 나라를 섬기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다스리는 것이고 나라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에 나타난 고난의 종 구절과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신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다스림과 섬김의 개념을 융합시킬 때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생태 윤리를 위한 함축된 뜻과 창세기 2장에 나타난 그것 사이의 강력한 관계이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인간이 피조물을 경작하고 돌보는 책임을 맡았다. 따라서 다스림의 윤리가 나오는 창세기 1장에서 그 다스림이 섬김과 희생이라는 의미로 나타난다면 창세기 2장과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시편 104편과 욥기 38장의 메시지는 인간의 인간중심적인 오만을 제한시켜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성경의 논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이 정말로 피조물 안에서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정말로 지배권을 갖고 있다. 우리는 피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강조점은 구원과 약속과 소망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피조물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언제나 구원과 약속과 소망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한다. 시편 33편을 비롯한 성경의 다른 많은 구절들은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그리스도로 성육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므로, 피조된 세상이 정의와 자비에 뿌리를 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한다.

“여호와와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심이어 세상에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충만하시도다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도다”(시 33:4-6).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예표이다.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도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성취해야 할 것을 상기시켜 준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은 피조물 전체를 위한 것이다(롬 8:19-24).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될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이 약속은 우리의 책임을 면제하는 약속이 아니라 책임 있는 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는 바로 그 소망 자체를 지지해 준다. 요컨대, 여기에서 논의한 모든 성경적인 기초는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사회 정의와 결부된 개혁주의적인 생태 윤리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각각의 성경적인 기초는 환경적인 도전과,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와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도와

준다.

[4] 생태계 위기와 교회의 역할

1. 환경 의식화의 과제

교회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무엇보다 환경 의식화 교육에 앞장 서야 한다. 계속되는 대형 환경 사고와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로 인해 일반인의 환경 의식이 확산되는 것 같다. 동네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환경 강좌도 자주 열린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의 질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날로 악화되는 환경에 불평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봉사와 희생, 불편의 감수는 원치 않기 때문이다.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란 결국 의식화의 결여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환경 의식화 교육은 학교나 대중매체에 의한 환경 계몽과 더불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환경의식화의 첫째 과제는 인간중심적인 자연 이해를 극복하는 데 있다. 데카르트 이래로 인간은 자연을 자신의 물질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대상으로 파악했으며 기술은 그 과정에서 인간에 의해 사용되는 수단이었다. 또한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간의 이성이 극대화되고 자연이 대상화되면서 역사와 자연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고에 빠지게 되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은 인간에 의해 대량으로 점점 더 조직적으로 착취되고 남용되었다. 그 결과 인류는 오늘날과 같은 지구 환경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오늘날 강조되는 생태학적 사고에 따르면 인간과 자연은 상호보완적이다. 인간 삶의 토대가 되는 자연이 죽으면 인간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운명공동체이다. 이런 배경에서 알트너를 비롯한 독일 신학자들은 인간 중심으로 파악되는 자연 개념인 '환경' 대신에 '공동세계'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했다. 둘째, 환경 의식화란 자연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돌봄의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다. 과거에 사람들은 자연자원이 무한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정화 능력도 한계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피조물이 신음하며 구속의 날,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날을 기다린다고 한다(롬 8:18-22). 자연에 대한 성경의 지배 명령은 무자비한 착취가 아니라 돌봄과 가꿈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창 1:28 vs. 2:15). 인간은 자연에 대한 절대 지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청지기이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환경보전의 책임은 윤리적인 의미에서만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도 지닌다. 셋째, 환경의식화란 환경과 관련하여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감도 포함된다.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아름다운 산과 바다는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다. 자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현 세대에 의해 제한된 자원의 독점적 사용이나 낭비는 미래 세대의 권리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미래 세대의 생태학적 권리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넷째, 환경의식화란 환경 문제에 대한 생각과 일상적 실천 사이의 간격을 극복하는 것이다. 오늘날 환경의식은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의식은 대체로 구체적 실천이 따르지 않는 관념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환경보전에 대한 캠페인도 많고 구호도 크지만 실천은 미약하다. 환경보전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나 기업에 대한 불만의 소리는 높지만 시민들 자신이 생활의 불편과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려는 의지가 박약하다.

그 결과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 환경 운동 단체들은 인적 자원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열악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환경 운동가들이 제 기능을 못할 때 환경보전 운동은 대중화될 수 없으며 정부나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도 불가능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개인들을 환경의식화하고 의식화된 개인들을 하나씩 그 그룹으로 묶어주고 또 그 그룹들로 하여금 사회의 민간단체들과 연대하게 도울 때 더욱 효과적인 환경보전 운동

이 가능할 것이다.

2. 자족의 가치관

현대 소비사회의 문제는 정치, 경제적인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에는 인간의 가치관의 문제가 놓여 있다. 인간이 자신의 소유욕, 부에 대한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환경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해 보인다. 인간 욕망의 무한성과 지구 자원의 물리적 한계 및 생태학적 한계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윤리,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을 요청하고 있다. 아메리카 인디언 마이크 맥 추장은 "그대의 눈에는 우리가 비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그대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성경 역시 자족의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구약 잠언 30:8에서 아굴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의 행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으며,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경고하셨다. 한편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한다. 히브리서 13:5에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교훈한다. 고대 교부 중의 한 사람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자족의 삶을 정의하기를 "필수품에 만족하고 자신의 노고로 그것을 획득하며 그것들이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태도"라고 했다.

3. 금욕과 절제의 덕

오늘날 인류는 지구환경 위기에 직면해서 금욕과 절제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물론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구원론적 의미에서 즉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윤리적 의미에서, 말하자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자연세계나 물질세계와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논증한다. 금욕과 절제는 구원 받은 자의 새로운 생활양식이니 중세 수도원주의에서와 같은 구원을 위한 업적이 아니다. 독일 괴팅겐의 크라머 교수는 '새로운 금욕'이란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활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금욕과 절제란 '소비 이데올로기에 대한 자유인의 자기 주장이며, 금욕과 절제는 물질주의적 유희와 탐심으로부터의 인간의 내면적 자유 획득을 의미한다'고 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금욕과 절제를 경주자처럼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 실존의 모습으로(고전 9:25), 모든 신앙인의 덕으로(벧후1:6), 그리고 교회 지도자의 품성(딤후1:8)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절제를 성령의 열매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철학자나 자기 훈련의 과제로만 이해하는 일반 종교적 이해와는 구별된다. 금욕과 절제를 단지 가진 자, 풍족한 자의 덕목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물론 기본적 욕구 충족도 못하여 생존의 위협 아래 있는 빈민들에게 환경보전을 위한 금욕과 절제의 강조는 무리한 요구이다. 금욕과 절제는 우선적으로 선진 소비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임이 사실이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풍족해서 금욕과 절제의 덕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 변증서인 『기독교신앙을 위한 변증』을 쓴 아리스티데스는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재위AD 117-138)에게 초대 기독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일용품이 풍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 3일씩 금식하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그런데 기독교적 금욕과 절제는 중세 수도원적 금욕주의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중세 수도원적 금욕주의는 이원론적이고 세계부정적이다. 중세 수도원적 금욕주의가 창조의 선함을 인정하지 않고 육체와 일체의 소유를 악마화하며 오직 물질적 궁핍에서만 행복을 찾으려는 염세주의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에 기독교적 절제 이해는 부를 악으로, 가난을 선으로 보는 이원론을 거부한다. 기독교적 금욕 이해는 육체를 악 자체로 규정하는 인간학적 이원론과도 거리가 멀다. 기독교적 금욕과 절제는 삶의 부정이 아니라 삶을 긍정하는 적극적인 태도이다. 기독교적 절제의 참 의미는 축적하기 위해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행동으로서 그 동기가 이기적인 데 있지 않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의 절제 이해도 이와 같다. "의식주와 각종 소비생활에 있어서 낭비와 사치를 피하고 검소와 절제를 습관화한다. 이는 이웃의 괴로움을 줄이는 길ियो, 우리 영혼을 깨끗이 하는 방법이며, 공해와 자원고갈을 줄이는 길임을 인식한다.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은 우리의 향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므로 잘 관리하여 장애인들을 비롯한 불우한 이웃을 남 모르게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금욕과 절제의 삶을 통해 내면적 자유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돕고 환경보전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보다 건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 금욕과 절제는 인간이 이웃과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윤리적 삶의 방식이다.

4. 지속 가능한 소비생활의 실천

지속 가능한 소비란 지구 자원의 유한성과 자연의 정화능력의 한계를 염두에 둔 소비이며, 환경보전과 경제성을 조화하려는 소비행태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소비란 소비의 무조건적 포기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소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소비는 먼저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지는 과소비를 배격한다. 신용카드, 할부제도 등은 과소비 조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과시용 소비도 비판한다. 이것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부를 과시하려는 방편으로 소비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외국 상표나 외제 상품, 소위 명품에 대한 선호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는 사회 일부 고소득층의 소비행태를 무비판적으로 흉내 내는 모방소비를 거부한다. 그리고 무계획적인 즉흥소비나 기업의 광고에 현혹되어 물건을 구매하는 맹종소비와도 거리가 멀다. 이 모든 소비행태는 비합리적이며 불건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 것만 추구하는 편의주의적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소비생활을 위해 우리는 먼저 필수품과 사치품, 필요와 과시욕 사이를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1980년 영국에서 열린 복음주의자들의 검소한 생활방식을 위한 국제협의회의 결의문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는 개인생활과 의복, 집 단장, 여행, 교회 건축 등에서 낭비와 사치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결의한다. 또한 필수품과 사치품, 건전한 취미와 실속 없는 지위의 상징, 적절함과 허영, 가끔씩 있는 축하행사와 일상적인 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유행에 노예가 되는 것을 명백하게 구분한다. 어디에 그 한계선을 그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과 더불어 양심적으로 생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우리 중 서구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소비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3세계에 사는 형제 자매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그리스도인은 각 가정과 교회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절약을 실천하고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 자가용 대신에 환경친화적인 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주일예배 참석 시 대중교통 이용이나 카 풀 제도 등을 실천할 수 있다. 한편 농촌지역의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식품을 구입하여 최소한으

로 가공 처리되고 덜 포장된 식품을 소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교회 내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해서 의류나 가전제품, 생활용품을 재활용하고 서로 나누는 것도 시도해 보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각 가정과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과제는 김소한 식생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 쓰레기의 30-50%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적인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이유에서 비난 받을 일이다.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물을 쓰레기통에 내버리는 그 순간에도 아시아의 인도나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등 세계 여러 곳에서는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5] 한국 기독교의 절제 운동사

한국 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청교도적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이 당시 조선사회의 고질병이었던 조상신 숭배, 각종 허례허식, 뿌리 깊은 미신 문화, 축첩 제도, 음주 흡연의 폐해 등을 고치고자 기독교인들에게 청빈 절제 검약과 경건생활을 강조함으로써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금욕적인 종교로 인식되어 왔다. 초기 한국교회의 생활강령 7개조는 예배, 주일성수, 효도, 순결, 인가귀도, 근면 정직, 술과 담배 도박 아편의 금지로 되어 있었다. 한국교회가 1920년 대부터 본격적으로 절제 운동에 나선 이유는 공창제도, 술, 담배, 아편의 보급으로 조선인의 몸과 마음을 타락시키려는 일제의 식민정책에 항거하기 위함이었다고, 3.1운동의 실패로 인하여 실의와 절망에 빠져 있던 젊은이들의 자포자기적인 퇴폐 향락적 문화의 확산을 막기 위함이었다.

일제 통감부가 가옥세, 주세, 연초세를 징수하고 술, 담배, 홍삼 등에 대해 전매사업을 시작하여 민족의 자본을 수탈하려 하자 교회가 금주운동을 호소하였다. 교회 내의 금주운동이 확산되자 이화여전 6회 졸업생인 임배세 여사가 작시 작곡한 '금주가'가 정식 찬송가곡으로 채택되었다. 이 금주는 1923년 청년찬송가에, 1931년 장로교와 감리교가 만든 신정찬송가 230장에, 1949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만든 합동찬송가 486장에 수록되어 있다가 1963년 개편찬송가에서 누락되어 더 이상 부르지 않게 되었다.

그 가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 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두렵다. 2. 패가망신 될 독주는 빛도 내서 마시면서 자녀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푼 안 쓰려네 3.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 문명 잘 빛내리. 4. 천부 주신 네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술의 독기 받지 말고 국가 위해 일할지라. [후렴] 아, 마시지 말라 그 술, 아 보지도 말라 그 술, 조선사회 복 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1934년 1월 장로회 선교회 절제부가 각 교회에 요청한 내용에도 절제운동의 방향이 잘 나타나 있는데 첫째, 창기, 담배업, 주조업, 등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점이나 돈을 빌려주지 말 것, 둘째, 각 교회에서 경영하는 기독교 학교에서는 금주 및 금연 교육을 시킬 것, 셋째, 주일학교 공과 중에 절제 공과를 넣어 절제를 교육할 것, 넷째,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절제 생활을 교육하며 다섯째, 교역자들이 이 일에 모범이 될 것을 간곡히 권하고 있다. 한국의 초대교회는 사회경제적으로 약자들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교회는 시대 상황에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이 땅의 썩은 문화를 변혁시키고 나라를 살리는 방법으로 절제운동을 일으켰다.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금주 금연 운동이 오늘날까지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표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기독교의 절제운동의 전통은 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물론 오늘날의 절제 운동이 과거와 같이 금연, 금주 운동에 제한되어선 안될 것이다. 우리의 소비생활의 규모가 그 당시보다 훨씬 커졌고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절제 운동은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실천되어야 하며 그

일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사회에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6] 진정한 회심과 사회생태학적 빈곤의 문제

1860년대 미국의 남북전쟁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미국에는 부흥이 있었다. 수많은 회심과 복음주의적 신앙의 강력한 발현이 대각성을 수놓았다. 이 부흥의 핵심적인 사항은 인간 존재가 고안해 낸 가장 커다란 죄악 중의 하나인 노예제도에 대한 확고한 반대였다. 부흥 운동가들과 관련된 한, 그리스도교로 돌아선다는 것은 노예의 소유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했다. 노예 제도에 대한 반대는 회심의 열매로 이해되었다. 사람을 소유물로 삼는 관행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며, 신앙의 문제로서 중단되어야 할 극악무도한 제도로 여겨졌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작정한 많은 회심자가 노예 폐지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교회의 부흥 운동은 노예 폐지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교회 부흥의 위대한 설교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찰스 피니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복음전도자였고 현대 복음전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 그의 설교는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고, 노예제도를 끝장내는 데 강력한 촉진제가 되었다. 피니에 따르면, 노예제도에 대한 질문에 교회가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데 실패한 것은 교회 부흥의 가장 큰 장애물 중의 하나였다. 피니는 그의 저서 <기독교 부흥에 관한 강의>에서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교회가 인권에 관련된 질문에 잘못된 입장을 취할 때 부흥은 지체된다. 특히 노예제도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사실상 노예제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교회가 족쇄를 찬 채 피를 흘리는 노예들이 부르짖는 고통의 외침을 외면하는 것을 경건한 행위라고 여기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피니는 계속해서 “교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 교회는 위증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떠나신다”고 말했다. 피니는 노예 제도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 영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노예들을 감싸 안는 데 실패하는 일은 영적 생명과 교회의 온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피니는 계속해서 말한다. “현 시대에 기독교가 저급하게 평가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교회가 노예제도에 대해서 잘못된 쪽의 편을 들고, 이 혐오스러운 일에 대해서 그것이 혐오스럽다고 사실 그대로 말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피니의 견해는 교회가 이 주제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그는 그리스도인이 노예를 소유한다면 교회에서는 그를 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노예 소유자들은 성만찬에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회가 노예제도를 지지할 때 교회의 생명력은 파괴될 것이며, 노예 제도에 관한 교회의 입장이 궁극적으로 교회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니는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복음전도자로서의 자신의 소명과 노예 폐지론자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분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과 메시지의 온전성을 지키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이다.

교회의 근본적인 관심사 중에서 특별히 긴급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아마도 인간 생명과 가치를 특별히 위협하는 문제들과 사랑의 하나님의 의를 침해하는 문제들이 바로 특별히 긴급한 문제들일 것이다. 이런 중요한 도덕적 질문들은 교회의 정규적인 일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공훈과 용기를 요구할 것이다. 19세기에는 노예제도가 바로 그런 질문이었고, 오늘날은 빈곤이 바로 그런 질문일 것이다. 노예제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빈곤을 모른 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를 불러온다. 빈곤은 노예제도가 그러했듯이, 분명히 정치적인 문제이다.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정말인지 도전한다. 다시 말해서, 전 지구적인 막대한 빈곤이라는 특성은 우리 경제에

대한 시금석 훨씬 이상의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회심의 시금석으로 직면해야 한다. 회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 우리의 재물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친밀한 관심을 요구한다. 경제적 나눔과 단순한 삶을 향한 새로운 헌신은 우리를 풍요에 대한 예측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회중 대다수가 이전에는 경험한 적이 없는 생명력과 기쁨을 제공한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자원에 대한 절약과 나눔과 통제를 공유하는 것과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의 일부이다. 경제적 나눔은 단순히 구제사역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마음이 너그럽고 사랑이 많은 특별한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이다. 특별히 친교(코이노니아)에 대한 성경의 비전은 항상 삶의 경제적인 측면, 즉 우리의 돈과 소유를 서로서로,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것을 포함한다. 초대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나눔을 실천하고, 19세기의 교회가 노예들의 자유를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를 바란다면, 교회는 새로운 경제적인 틀을 세울 필요가 있다. 현재의 경제적 위기의 혹독함은 초대교회의 급진적인 모범들을 오늘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더더욱 중요한 일로 만든다. 미래에 일어날 대부분의 전쟁들은 분명히 세계적인 경제 과잉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관한 의견 불일치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성경과 초대교회의 증언과 우리의 역사적 상황 모두가 우리를 이런 결론으로 이끈다. 돈과 소유에 대한 우리의 관계의 급진적인 변화가 우리의 회심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것이다.

회심은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르심과 함께 온다. 우리가 알듯이, 세상은 마침내 극심한 빈곤을 종식시킬 수 있는 지식, 정보, 기술 자원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의지이다. 그런 도덕적 의지를 생성하는 일이 누구의 몫일까?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교회 공동체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G8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G8은 정기적으로 연간 회담을 갖는 선진 8개국을 두고 하는 말이다. 1975년 6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으로 출범했으며 이후 1976년에는 캐나다가 추가로 가입했고, 1994년에는 러시아가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G8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러시아의 회원권이 정지된 상태이다. 각 회원국은 매년 돌아가며 회의를 개최하는데, 지난 2016년에는 일본에서 42번째 회의가 열렸고 올해에는 이탈리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G8의 주목할 만한 활동 중의 하나는 지난 2005년도에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18나라의 빚 40조 원을 탕감해 준 것이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2명 중의 한 명이 극빈상태에서 살고 있으며, 3명 중 1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또 어린이 6명 중 한 명은 5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을 돕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신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적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8과 같은 경제대국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19세기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개혁과 교회의 부흥을 한데 연결했다. 노예제도의 폐지를 위한 운동에 앞장섰으며, 여성의 참정권 획득과 미성년자 노동 금지법을 관철시켰다. 찰스 피니는 자신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이 노예 제도 폐지 운동에 확실히 참여하도록 요구하였다. 그것을 위해 그는 회심한 자들을 강단 앞에 불러내어 약속하게 했다. 오늘날 빈곤은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도이다. 왜냐하면 몸과 영혼을 감금하여

희망을 파괴하고 미래를 종식시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긴급한 일들을 위해 가장 먼저 일하고 계신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회심으로의 부르심은 바로 신앙으로의 부르심이고, 그것은 또한 빈곤의 문제에 대한 헌신으로의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7] 창조 보전의 사명

개혁주의는 성경이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속주로 고백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진 장엄한 건축물이다...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과 통치를 믿는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와 인간 사회와 창조세계까지 미친다고 고백하는 개혁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조직된 교회를 중요시하여 설교와 목회적 훈련과 거룩한 삶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기 위한 삶을 역설함으로 역사상 가장 맹렬한 문화변혁자가 되었다(안인섭, 2015. 『칼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의 사람』. 서울: 익투스, pp. 148-149). 안인섭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칼빈의 경건은 그의 모든 신학이 지향하는 목표가 된다. 칼빈의 경건은 개인의 인격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고 있다. 그의 경건 사상 바탕에는 창조주요,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지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칼빈은 경건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예배를 정점으로 해서 타자에 대한 사랑과 창조 세계에 대한 돌봄으로 풀어내고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칼빈이 자신의 경건의 개념에 기초하여 경건을 사회적, 경제적, 생태학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학적 포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p. 182)

칼빈은 창세기 2:15-18의 주석에서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의 일원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축복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칼빈 자신이 우리를 창조보전의 청지기라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엄청난 자연적, 사회적 생태계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루터나 칼빈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함께 살고 있다면 모양과 틀을 바꾸는 개혁(re-formation)의 의미를 어떻게 제시할까? 분명히 창조-타락-구속의 틀을 가지고 현 시대를 조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보전의 사명을 강조할 것이다.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열정적인 문화변혁자로서의 삶을 강조했던 칼빈의 후예들로서, 오늘 우리는 경건한 삶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자연적, 사회적 생태계 위기로 인해 지구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그다지 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언자적 입장에서 회개를 외쳐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부르짖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결과는 비록 비관적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바른 진리를 외쳐야 할 선지자적 사명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근접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근접한 방식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지,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권리는 없다. 세상이 오염된 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의 깨끗한 물 한 바가지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더러운 물을 퍼부을 수 있는 권리는 없고, 깨끗한 물을

퍼부어야 하는 의무만 있다. 우리가 지갑을 털어서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해도 지구적 빈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갑의 회심’을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부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창조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맹렬한 문화변혁자로서, 진정한 개혁주의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성경적인 청지기직에 관한 좋은 말씀을 소개한다. 누가복음 12:42-43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

한국교회 생명운동 현장 사례 ‘참 좋은’지구 동산을 회복하는 ‘녹색’교회

유미호 실장

지구 동산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좋다’시며 환히 웃으셨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닐던 곳, 하나님을 가까이서 대할 수 있었던 친근한 곳이었습니다. 힘겨울 정도로 열심히 지내다가도 ‘주께서 쉬시면 함께 쉬므로 모두가 필요로 하는 먹을거리를 골고루 얻던(레25장)’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탐욕에 신음하는 지구동산

그런데 지금 그 지구가 회생되지 못할 마지막 숨을 쉬듯 혈땀입니다.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갈수록 커지는 지진과 태풍, 홍수와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로 지난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6년 전 일본에서 일어난 엄청난 지진·해일은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인재까지 겹쳐, 지구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사고 원전의 폐로는 30~40년은 더 걸려야 하고, 벚꽃이 아름답고 복숭아와 딸기가 맛있었던 후쿠시마로 되돌리는 건 영영 불가능할 듯합니다.

이를 보면서도 우리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는커녕 오히려 핵발전소가 가장 싸고 안전하며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에만 급급합니다. 폐쇄를 결정한 고리 1호기는 물론, 같이 폐쇄해야 할 월성1호기의 폐로비용은 계산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값싼 에너지라며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고 석탄화력 발전도 더하여 지구 온도 상승만 더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0.8도나 높아졌는데, 그로 인한 기후재난은 가난한 이들의 삶의 터전을 먼저 덮치고 있습니다. 곧 1.5도가 되어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이 바닷물에 잠기고 수많은 생물 종들이 멸종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우리의 기억에서는 흐릿해졌지만, 숲과 바다 모든 자연은 순환하며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지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면 대재앙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때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숲이 줄어드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지나친 벌목으로 지난 십년 간 사라진 숲이 한반도 면적의 10배가 넘습니다. 특히 지구의 허파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열대우림은 여의도면적의 38배나 되는 숲이 매일 없어져 현재 절반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구의 콩팥인 갯벌은 10여 년 전 방조제가 완공된 새만금 갯벌만 봐도 철새 도래에 심각한 변화가 생겼고 조개류가 대량 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곳은 도요물떼새를 비롯한 철새들이 86%나 사라졌습니다. 골프장, 케이블카, 4대강사업 등 대규모로 진행한 토목공사는, 설악산 국립공원은 물론 백두대간을 심히 병들게 했고, 흐르던 큰 강물에 이상현상을 일으켰습니다.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은 이제 강이 아니라 호수로 변하고 있습니다. 담수어종이 사라져가고 정체 수역에는 큰빛이끼벌레가 대

거 살고 있습니다. 보의 보수공사가 행해지는 곳은 부유물이 가득해 흙탕물입니다. 생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게다가 강바닥에 쏟아 붓는 시멘트는 유해성분이 가득한 알카리성 독성물질이어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지구동산과 잊혀져가는 생명의 기억

인간의 부질없는 욕망이 지구를 얼마나 망가뜨린 걸까요? 지금부터라도 노력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결국 자연을 거스르고, 온실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고, 분별없이 강산을 탐욕으로 개발하고, 자원을 남획하면 일시적으로 풍요로울 수는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큰 피해가 오게 마련입니다. 지금 지구 동산 안의 수많은 생명들은 온갖 독성물질에 오염되었습니다. 사람의 접촉이 없는 태평양 해저 생물이 중국의 오염된 강에서 잡은 게보다 50배나 높은 독성물질을 갖고 있다니 더 이상 깨끗한 곳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플라스틱이 땅과 바다를 뒤덮으면서 바다 생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바다 물고기와 새들의 내장에서까지 우리가 버린 수백만 톤의 폐플라스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성은 먹이사슬을 거쳐 우리 몸속으로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합성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양과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으나, '바디버든(Body Burden, 인체 내 특정 유해인자 또는 화학 물질의 총량)'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고 하니 유해물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찾아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길을 찾아도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명들 간의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것은 지구 동산에 살고 있는 생명들에 대한 기억을 살리는 일입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서로 사랑으로 지키고 돌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마다 조류독감과 구제역에 수많은 생명을 산 채로 묻는 것도, 실은 가축들을 '똥은 배필로 지어진 동물'이 아니라 그저 '고기'로만 보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사람도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숨조차 쉬기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구 동산이 더 이상 우리를 품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닐까 걱정입니다.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요즘 전염병으로 해마다 1천4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그동안 잊혔던 전염병이 변형되어 다시 돌아왔고 또 신종 전염병 때문입니다. 도시 과밀화와 잦은 이동과 운송, 항생제 남용과 밀집사육, 다른 생명체의 서식지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기억으로, 신음하는 지구에 '회복처방'

지금이라도 달리 행동한다면 달라질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랫동안 지구 동산과 그곳 생명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아와 달리 행동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신선한 공기와 새들의 지저귀음과 시원한 바람에 감탄할 줄 안다면, 겨우내 말라있던 가지에서 새로이 피어나는 연한 싹이나 한 송이 꽃의 복잡한 생김새를 보고 설렘 줄 안다면, 새로 태어나는 새들의 서투른 동작에 웃음 지을 수 있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청구서를 받아들지 않았더라도, '지구 동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좋은', '꼭 필요한' 동산임을 인정하게 될 터이니깐요.

그렇습니다. 신음하는 동산 지구의 회복은 지금껏 부지불식간에 폭력을 일삼아온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동산에 거하는 수많은 생명에 대한 기억을 살려내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동산 안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참 좋다.' 서로 사랑으로

지키고 돌보라.”

오늘 지구 동산 위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진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와 같다(요3:8)”침묵에 깊이 뿌리내리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겸손히 오늘 하루를 살아낸다면, 지구는 계속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어줄 것입니다. 낮의 태양은 밝게 비추일 것이고, 밤의 달도 자신의 빛을 내어줄 것입니다. 땅도 필요로 하는 것을 가까이 내어줄 것입니다. 나 한 사람과 우리 모두의 깨어남을 위해서.

“나 하나 꽃피어/풀밭이 달라지겠냐고/말하지 말아라/네가 꽃피고 내가 꽃피면/결국 풀밭이 온통/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화, 나 하나 꽃피어)”

‘참 좋은’지구 동산을 향한 녹색교회 실천¹⁾

- ‘숨’을 치유하는, 사방으로 열린 교회

다행히 이미 그 길을 걷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곳, 생명이 살아있게 하는 ‘존재의 근거이자 이유’요, 생명을 지속시키는 숨을 공급하는 생명의 터전인 지구 동산을 지키고 돌보는 ‘녹색’교회들입니다. 이들 교회들은 창조자이자 구속자인 주님을 모시고 기뻐하며 잔치에 참여하는 예배와, 생명을 살리는 선교와, 생명을 양육하는 교육과, 생명을 섬기는 봉사와, 생명을 나누는 친교가 균형을 이루는 생명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겉모습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초록빛 향내가 짙게 풍깁니다. 벽면엔 담쟁이넝쿨이 초록을 더하고, 건물 옥상은 물론 창가에는 햇빛을 받아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전지판이 있습니다.²⁾ 낮 시간 동안 햇빛이 생산한 전기는 교회에서 사용하고 남으면 전력회사에 판매합니다. 판매 수익을 높이기 위해 효율을 높이고 절전소³⁾를 짓는 일에도 힘을 쏟습니다. 실내온도 및 조명을 적절히 유지하고 대기전력을 차단해 전기 낭비를 없앱니다. 생산과 절약을 통해 얻어진 수익만큼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배웁니다.

교회 둘레엔 담장이 없습니다.⁴⁾ 둘레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새들이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꽃과 열매는 새들로

1) ‘기후붕괴 시대, 생명을 살리는 교회 환경교육’(유미호 지음, 도서출판 동연)에는 녹색교회의 이러한 실천을 뒷받침하는 교육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교육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지구에 부담을 주고 있는지, 생태발자국 지수를 살피는 일로 시작되되, 기도 가운데 녹색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제안한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합성세제 사용을 삼가하고, 중고품을 사용하고, 물과 전기를 아껴 쓰고,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하고, 시간에 쫓기지 않게 살고, 소비광고에 한 눈을 팔지 않고, 작고 단순하고 불편한 것을 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연과 이웃을 돕는 삶”(녹색기독교인집계명). 그리고 교육이 끝나면 교회 내에 환경위원회를 만들어, 하늘, 땅, 물, 빛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 실행하는 방법도 그려놓고 있다.

2) ■교회 에너지 전환(절약, 효율향상, 생산) -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효율 향상은 물론 재생에너지 생산에 힘쓰고 있다. 우선 기갑 서울연회는 서울시와, 경기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에너지진단을 받고 그를 토대로 교회절전소 짓는 일에 힘쓰고 있다. 절전소는 적정 실내온도 및 조명을 유지하면서 대기전력을 차단함으로써 낭비되는 전기가 없도록 하되, 절약한 양을 구역(속회)을 통해 교회 전체적으로 모아 ‘절전=발전’의 효과를 내게 한다. 한편 부천의 지평교회와 서울의 청과교회는 자체 예산으로 옥상에 3kW의 햇빛발전기를 설치하여 국가 기준가의 7배나 높은 가격으로 생산한 전기를 팔아 햇빛기금을 마련하여 마을을 위한 선교비로 쓰고 있다. 서울의 광동교회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or.kr)로부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교육관 지붕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여 낮에 생산된 전기는 자체적으로 사용하다가 많으면 전력회사에 소비자가로 판매하고 밤에는 다시 전력회사에서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향린교회는 도농직거래를 하고 있는 들녘교회 지붕에 햇빛발전기를 올렸고, 청주의 교회는 100kW급을 설치하여 생산되는 전기의 연간 판매수익금을 전액 기부하고 있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을 만들어 교회들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돕는 가장 햇빛발전협동조합도 있다.

3) ■‘절전소’란 네가와트(Negawatt) 곧 ‘쓰지 않아 남은 전력’을 말한다. 교우 가정의 작년 대비 절감량을 모아놓으면 그 총량이 ‘교회 절전소’가 된다.

4) ■교회 숲 가꾸기 - 교회 둘레엔 담장이 없고, 벽면엔 담쟁이넝쿨이 자라고, 옥상에는 하늘정원이 꾸며져 있다. 2000년 초부터 40여 개의 교회들이 이 실천을 해왔는데, 마을 안의 버려져 있는 작은 공간도 놓치지 않고 모퉁이 숲을 꾸며 놓았다. 비록 작은 숲이지만 온갖

하여금 날마다 종종거리며 앉아서 그들의 일상을 살게 합니다. 교회 주변은 비록 작지만 다양한 생명들을 품고 있는 숲입니다. 온갖 동식물과 곤충,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도 드나들며 친교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숲이 다양하게 잘 보호되어 있어, 때때로 자신의 빛깔을 바꾸는 새들의 노래 소리와 작은 못가에 사는 개구리 소리도 들려옵니다. 물 흐르는 소리도 멀리서 들려옵니다. 이곳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만으로도 자기 소유와 이기심이 서서히 무너지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나눔과 평화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만 같습니다.

- ‘필요’를 알아 풍성히 채워주는 교회

마당 한쪽 편에는 토마토, 상추, 치커리, 오이, 당근 등을 가꾸어 먹는 텃밭이 있습니다. 주일밥상은 공동체텃밭에서 수확한 텃밭 푸성귀들로 풍성합니다. 그러다보니 교우들도 가정에 작은 텃밭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식물과 흙, 화분만 있으면 되니 가정마다 초록빛이 은은히 새어나옵니다. 때론 기분까지 상쾌하게 해주는 로즈마리와 애플민트, 스위트 바질 등 미니 허브정원을 만들어 자신을 돌봅니다. 교회와 이웃을 잇는 길가 모퉁이에도 텃밭이 있는데 교우들이 돌보긴 하지만 거두는 이는 따로 있습니다. 쓰레기가 쌓이던 곳에 주인 허락도 없이 만든 것이니 ‘게릴라’텃밭입니다. 텃밭 옆 “언제든 ‘필요’할 때는 가져드세요”라는 팻말은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또 함박웃음을 짓게 합니다. 텃밭에 심는 씨앗은 토종입니다. 작고 앙증맞은 ‘토종종자 씨앗 도서관’이 있어 때때로 토종씨앗기행을 떠나고 토종 씨앗 나눔 축제도 즐깁니다.

앞마당엔 수상한 통이 하나 있는데 빗물받이 통입니다.⁵⁾ 모아진 빗물은 화단과 텃밭을 가꾸는 데 쓰입니다. 물이 파이프를 통해 흘러 가닿는 작은 연못은 도시의 새와 길 고양이들의 목을 축이는 생명의 샘입니다.

마당 다른 한쪽에는 자전거 주차장도 있습니다.⁶⁾ 자전거가 즐비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교우들 대부분이 자전거를 타고 세상과 교회를 오가기 때문입니다. 주일엔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외에는 걸거나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맑은 공기와 고요함을 즐깁니다. 그러다보니 저마다 하나님의 창조에 순응하기 수월합니다. 싹을 돋우는 이파리 소리나 벌레들이 날개를 바스락 거리는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소나무향기가 은은하게 배어나는 바람 그 자체의 향기도 맡을 줄 압니다. 물론 피조물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것은 기본입니다.

-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게 하는 교회

교우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늘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대화합니다. 강단에는 말씀선포 전에 철따라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들꽃 등 자연 상징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날의 메시지를 더 명료히 받아들여지게 돕습니다. 그들은 기도 중에 자기 소리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적

식물과 동물들이 자라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쉽게 드나들며 친교하면서 마음 문을 열게 한다. 마당 한편에 교회 공동체텃밭을 가꾸거나 가까운 곳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5) ■물 살리기 - 서울 봉천동에 있는 광동교회 마당 계단 위에는 에는 수상한 통이 하나 보인다. 지하수를 퍼 올려 저장하는 물탱크다. 이곳에 채워진 물이 파이프를 통해 흘러 정원 한쪽 구석에 연못을 만들어놓았다. 이 물통을 설치한 후로 여름철 겪던 침수 현상이 해결됐고, 연못도 가꾸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 연못은 도심 속 새들에게 작은 쉼터가 되고 있다. 한편 정원을 가꾸기 위한 물은 빗물을 받아 저장한 물탱크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6) ■대중교통 캠페인(혹은 차 없는 주일) - 한 달에 한번이나 분기별로 한 번, 주일에 자가용 대신 걸거나 자전거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차 없는 주일’캠페인이다.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차량은 운행하고, 부득이 한 경우 카풀을 한다. 때에 따라서는 교회 자체적으로 교통카드를 제작하여 교우들에게 나눠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독려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의 택시를 이용해 예배에 출석하게 한 경우도 있다. 교회들은 주일만큼이라도 자동차 소음 없이 열병을 알고 있는 지구가 다소나마 시원하게 돕게 한다.

고요, 기다림에 처할 줄 압니다.

그들의 찬양은 이 나무 저 나무로 넘쳐흐르면서 마을 숲속으로 크게 퍼져 나갑니다. 찬양이 흐르는 동안 피꼬리, 직박구리, 다람쥐, 청솔모, 백로와 왜가리, 그리고 교회 마당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닭과 오리, 개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끼어들어 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비록 작지만 숲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모아 증폭시키면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다시 흠뻑려줍니다.

부드럽게 떨어지는 잎사귀처럼, 찬양이 끝나면 모두 모여들어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깊이 느껴서인지 모두의 눈시울이 젖어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교우들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화해하고 하나 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 말씀이 주어지는데, 저마다 삶을 돌이켜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냅니다. 일상에서 날마다 읽는 말씀은 자신의 필요를 넘어 다른 생명(후손)의 것까지 앞당겨서 씬으로 지속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막는 원리와 힘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사랑의 친교를 통해 '참 좋은'관계를 맺게 합니다. 탐욕과 명예심을 버리고 가난에 만족할 줄 알아,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모든 생명이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게 하고, 보다 많은 생명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므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친교를 즐기게 합니다. 이들이 나누는 밥상엔 몸과 마음 즉 생명을 살리는 음식이 가득하고, 그들 마음엔 생명에 대한 감사가 넘쳐납니다.⁷⁾

-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소중히 여기게 하는 교회

또한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창조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가르칩니다. 성장이 아닌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도 키우기 위해 훈련합니다. 녹색의 눈으로 성서를 다시 읽게 함으로 창조에 대한 신앙고백들이 지속되게 합니다. 그리고 자연학교를 열어 생명과의 교감을 영성적 차원에서 수용하게 합니다. 들꽃과 나무, 곤충과 새들의 이름을 부를 줄 알고, 그들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것을 예배와 교육의 핵심에 놓습니다.⁸⁾ 그러다 보니 한 생명 한 생명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알게 되고 그들의 아픔을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끝없는 성장을 향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이들도 생겨납니다. 이들은 '필요한 것만 취한다면 모두가 골고루 풍요로울 수 있음'을 압니다. '생명유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덜 가지고 덜 쓰고 덜 먹고 덜 버리는 삶을 살아냅니다. 교회는 이들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교우들을 힘껏 지지해줍니다. 모두가 주는 것보다 결코 더 많이 취하는 일이 없게 하려 애씁니다.⁹⁾ 탐욕을 채우려고 함부로 파괴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위협에 처해

7) ■생명밥상 빈 그릇 실천 - 평택에 있는 기쁜교회는 주일 공동식사에 대한 생명밥상 빈 그릇 서약실천으로 매주 40리터 나오던 음식물 쓰레기가 5~10리터로 줄었고 먹을거리를 함부로 대하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식단은 마땅히 치러야 할 값을 치루며 건강한 먹을거리로 차리고, 아토피에 예민한 아이들을 위해 우유도 산양유로 바꿨다. 이밖에도 다수 교회들이 주방담당자 또는 여성교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생명밥상'교육을 실시하고는 국내산 유기농으로, 가공식품이 아닌 제철재료로, 육식보단 가급적 곡채식으로 차려서 남김없이 먹고, EM(Effective Micro-organism)발효액으로 설거지하는 실천을 하고 있다.

8) ■창조영성(생태적 삶) 훈련 - 강원도 고성에 있는 오봉교회는 주보의 첫 면은 들꽃과 향기 이야기 등이 그림과 더불어 실린다. 그리고 강단에는 예배위원회와 들꽃위원회에서 그 주일의 주제에 맞는 그림이나 형상, 들꽃을 놓아 메시지를 명료하게 받아들게 한다. 또 경북 군위에 있는 작은교회는 농사를 제대로 지어보면 누구나 영성적이 된다는 생각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생명을 가까이 하면 미학에 눈을 뜨고, 예술은 사람 속에 잠재해 있는 온갖 느낌과 생각,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매곡리 자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집짓기, 도예, 목공, 서각, 천연염색, 자연식 요리 등의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쌍샘, 반들, 동면교회도 물건을 소비하고 소유하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이 사지 않고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노동과 생산, 창조의 기쁨을 누리보게 하는 주말 가족농사나 1일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9) ■사순절 등의 교회절기와 환경력에 맞춰 '지구를 위해 없이 지내는 주일'을 정해 지구 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성찰하면서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실천을 하는 곳도 있다. '지구를 위해 없이 지내는 주일'과 관련하여서는, '기후붕괴 시대, 생명을 살리는 교회 환경교육'(유미호 지음, 도서출판 동연)을 보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우선 몇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회용 컵 없는 주일', '비닐 없는 주일', '고기 없는 주일', '종이 없는 주일', '잔반 없는 주일', '전기 없는 주일', '차 없는 주일', '첨가물 없는 주

있는 생명들이 도움을 청해올 때 거부하거나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고 ‘늘 깨어 있으려’ 훈련합니다.

- 한 생명의 행복감을 높이려 애쓰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녹색교회는 교회 성장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장은 교인 수의 늘어남이 아니라 한 사람, 아니 한 생명의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물을 키우거나 주차장을 넓히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자연과 이웃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살핍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생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민감합니다. 그것을 내어주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마당 한 쪽엔 길 잃은 개와 고양이들이 쉴 곳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버려져 외로움, 배고픔과 싸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물들이 쉬면서 제 숨을 되찾게 해줍니다.

이웃과 자연을 배려해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한 번 구입하면 가능한 한 오래 씁니다.¹⁰⁾ 새로 사야 한다면 친환경이나 재활용 제품을 골라 씁니다. 매 주일 주보로 사용되는 복사지는 재생지여서 창조의 숲을 지키고 자 하는 마음을 자연스레 드러냅니다.

지금껏 죽고 또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을 기억해, 그들과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예산을 아낌없이 씁니다. 교회의 이익을 위해 투기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공동의 자산으로 내어놓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을 구입해서 자연에게 돌려줍니다. 숨쉬기 힘들어하는 생명들을 찾아가 막힌 부분을 터주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자신을 내주셨듯이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 일상에서 온 우주가 제 숨 쉬는 구원을 노래하는 교회

녹색교회가 공동으로 고백하는 신앙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보전을 위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사랑하사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피로 만물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영생을 약속 하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피조물이 창조될 때에 보내심을 받았으며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창지기의 사명을 부여받았으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녹색교회는 사람이 한 개인으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들 모두가 세상을 보는 눈에는 흠에 대한 진한 그리움과, 형제요 자매로 지음 받은 생명들에 대한 따스함이 배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며, 한 생명, 한 우주, 한 천지, 한 바람 속에서 사는 기쁨의 의미를 깨달아갑니다. 그들에겐 뜨거운 물을 마당에 쏟아 붓지 않을 만큼 작은 생명일지라도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주일은 교우들이 통째로 숨을 돌리는 날입니다. 일하고 쉬고 먹고 자고 하는 일상의 일들을 창조신앙에 비추어 성찰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일상은 늘 창조신앙에 근거해 제 숨을 쉬며 살아가는 시간들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기후변화와 핵발전소, 송전탑과 같은 에너지 문제, GMO 문제 등에 깊이

일, ‘소비 없는 주일’, ‘말 없는 주일’등.

10) ■ ‘초록가게’를 통한 자원 재활용, 재사용 실천 - 백석, 하늘담은 등은 초록가게를 열어 아나바다고(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고 고쳐쓰고)의 재활용 재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고효율제품이나 환경에 피해를 덜 주는 환경상품의 사용도 권장하고 있는데, ‘교회 주보를 재생복사용지로’, ‘화장실 화장지를 재생화장지로’ 바꾸도록 유도하고, ‘교회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문구류도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는 실천을 주도하고 있다.

관여하며 산천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저항합니다. 또 마을 안에 있는 교회로서 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되, 때로는 생태마을 만드는 일에도 헌신합니다. 한 생명이 제 숨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와 온 우주 만물이 제 숨을 회복하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녹색교회는 결코 사람에만 관심을 두고 사람의 구원에만 관여하는 하나님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향기로운 꽃, 맑게 노래하는 온갖 새와 벌레들, 아니 모든 생명 안에서 하늘과 땅, 비와 바람, 온 우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모두가 그들에게 거룩하게 다가섭니다. 모든 생명 안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동일한 생명의 가치가 있음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협에 처한 생명의 외침을 들을 수 있으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합니다. 주님이 그랬듯이, 그들과 함께 호흡하길 희망해서입니다.

길 잃은 한 생명의 숨까지도 품는 교회

이들 녹색교회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이요, 우리도 한 생명으로서 공통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압니다. 또한 하나의 숨, 하나님의 숨으로 이어져 있어 어느 한 곳이 끊기면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렇기에 한 생명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성장’에서 돌아서서 ‘생명’ 그 자체를 품으려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지키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주님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셨듯이.

솔한 생명들이 사람들의 탐욕과 개발 유혹에 ‘이미’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이들 녹색교회들이 있어 우리는 ‘아직’희망을 노래합니다. 녹색교회들은 2006년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환경주일을 기뻐하면서 공동으로 선정하였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50곳¹¹⁾이 있습니다.

이들 교회들은 “개발의 최종목표는 성장이 아닌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아마티아 센)이라고 생각하고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이 아니라 지금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할 적절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들 녹색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취한다면, 우리 모두가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덜 가지고 덜 쓰고 덜 먹고 덜 버린다면, 생명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실 것입니다(시 104).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게’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미 떠나간 생명의 마지막 울음을 기억하며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기대어 살 수 있는 지구 동산을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영을 불어넣으시며, 나 자신과 다른 생명을 주신 그대로 지키며 돌보게 하소서.” 첫 숨을 불어 넣어준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한 숨도 받아주실 것이라 믿고 간구합니다. “이 땅 모든 교회들이 이 길을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소서.” <끝>

11) ■ 지금까지 선정된 녹색교회는 백석, 내동, 석포(2006), 광동, 들녘, 송악(2007), 신양, 지평, 청파(2008), 서울복음, 쌍샘자연, 평화의, 향린(2009), 고기, 동녘, 받들, 아름다운, 용진, 황지중앙(2010), 동면, 새터, 완도제일, 은광, 하남영락(2011), 갈계, 오봉, 주산, 청지기, 하늘담은(2012), 기쁜, 성북, 작은, 전주예벳, 정읍중앙, 혜현(2013), 갈산, 구름산, 사랑방, 원주, 푸른마을(2014), 봉원, 산본중앙, 완대리(2015), 가장제일, 포항(2016년)